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EVANGELISTIC SMALL GROUP LEADER**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Myung Chul Chang (장 명 철)

Lynchburg, Virginia

May 2020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Sungtaek Kim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Yunseop Kim
Adjunct Professor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EVANGELISTIC SMALL GROUP LEADER

Myung Chul Chang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Sungtae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at small groups in church need to pursue evangelism and introduce an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evangelistic small group leaders.

Korean churches have several types of small groups. All small groups, however, need to pursue evangelism, because an evangelistic small group is a biblical model for a small group. The growth of a small group solely depends on the leader. Therefore, an effective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leaders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nurture evangelistic small groups.

This project will address four major types of small groups in Korean church—home cell group, pasture group, house church group, and upper room (an inductive bible study group)—and analyze different training programs for leaders. It will study a survey on pastors and laity members in church to examine how they view evangelistic small groups and what they expect from the development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Such study will not only reaffirm the belief that evangelistic small groups are key to sound growth of Korean churches, but also contribute to the local churches in managing evangelistic small groups more effectively by introducing specific evangelism training program to small group leaders.

Abstract length: 197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EVANGELISTIC SMALL GROUP LEADER**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Myung Chul Chang (장명철)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Sungtaek Kim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안의 소그룹이 전도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구체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그룹이 존재한다. 그런데 각 소그룹 유형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요소는 전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 성경적인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그룹의 성장은 리더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자는 먼저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소그룹 유형들 -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 등 - 에서 어떻게 소그룹 리더를 훈련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전도 지향적 소그룹에 대한 인식과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대를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기초임을 한국교회에 재확인시키며, 소그룹 리더를 위한 구체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지역교회가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초록 길이: 148 words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고백하며(잠 16:9).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제가 리버티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늘 선물과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평생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내 손희정 사모와 늘 기쁨을 주는 딸 선우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아내는 저의 영성과 인격의 계발에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코치이며, 사역과 인생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다음으로 저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의 후원을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물려주셨으며, 사랑 가운데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누나와 동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과 관련하여서는 멘토이신 김성택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김교수님께서 저가 논문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셨으며, 한국을 잠시 방문하셨을 때 이른 아침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문 연구에 있어서 방향성과 통찰력을 제시해주신 김윤섭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소그룹과 전도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사랑의교회에서 몸과 마음으로 배웠던 제자훈련 목회철학과 목자의 심정은 앞으로 저의 사역에 있어서 변함 없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양사역, 훈련사역, 전도사역 등에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구상되었음을 인정하며,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협력해 주신 여러분의 성숙함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
감사의 글	
TABLES	xv
표	
FIGURES.....	xviii
그림	
ABBREVIATIONS	xix
약어	
SUMMARY.....	xx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Purpose of the Study and Statement of the Problem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2. Statement of Scope and Limitations	4
범위와 한계	
3.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	6
성경적 역사적 근거	
1) Biblical Basis	6
성경적 근거	
2) Historical Basis.....	7
신학적 근거	
4. Statement of Methodology.....	8
연구 방법론	
5. Review of Literature	10
문헌 비평	

CHAPTER 2: Understanding of Small Group and Evangelism	20
제 2 장: 소그룹과 전도에 대한 이해	
1. Understanding of Small Group	20
소그룹에 대한 이해	
1) Definition of Small Group	21
소그룹의 정의	
2) Understanding of Small Group	21
소그룹의 이해	
(1) Study of Biblical Basis	22
성경적 근거에 대한 연구	
(2) Study of Theological Basis.....	33
신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	
(3) Study of Historical Basis	36
역사적 근거에 대한 연구	
3) Small Group Movement in 20th Century and Korean Church	41
20 세기 소그룹 운동과 한국교회	
(1) Small Group Movement in 20th Century	41
20 세기 소그룹 운동	
(2) Small Group Movement in Korean Church	44
한국교회의 소그룹 운동	
4) Summary.....	46
요약	
2. Understanding of Evangelism.....	47
전도에 대한 이해	
1) Definition of Evangelism.....	47
전도의 정의	
2) Type of Evangelism.....	49
전도의 유형	
3) Summary.....	50
요약	
3. Sub-conclusion.....	51
소결론	

CHAPTER 3: Case Studies on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 in Local Churches	53
제 3 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 사례연구	
1. Case Study on Home Cell Group in Mannam Church.....	53
만남의교회 구역 사례연구	
1) Characteristic of Home Cell Group and Evangelism.....	53
구역의 특징과 전도	
2) Case in Mannam Church	55
만남의교회의 사례	
(1) Church Establishment and Growth.....	55
교회 설립 및 성장 과정	
(2) Nurture for Small Group Leader through Spiritual Growth Class	56
영적성장반을 통한 소그룹 리더 양성	
(3) Re-education for Small Group Leader through Home Cell Group Leaders' Meeting.....	57
구역장모임을 통한 소그룹 리더 재교육	
(4) Evangelism Ministry Centered on Street Evangelism.....	58
노방전도 중심의 전도사역	
3) Evaluation	58
평가	
(1) General Evaluation of Home Cell Group.....	58
구역에 대한 일반적 평가	
(2) Evaluation of Mannam Church	59
만남의교회에 대한 평가	
2. Case Study on Pasture Group in Shinil Church	59
신일교회 목장 사례연구	
1) Characteristic of Pasture Group and Evangelism	59
목장의 특징과 전도	
2) Case in Shinil Church	61
신일교회의 사례	
(1) Church Establishment and Growth.....	61
교회 설립 및 성장 과정	

(2) Nurture for Small Group Leader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62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리더 양성	
(3) Re-education for Small Group Leader through Shepherds' Meeting.....	63
목자모임을 통한 소그룹 리더 재교육	
(4) Evangelism Ministry Centered on 70 Evangelism Band and New Life Festival.....	64
70인 전도대와 새생명축제 중심의 전도사역	
3) Evaluation	66
평가	
(1) General Evaluation of Pasture Group.....	66
목장에 대한 일반적 평가	
(2) Evaluation of Shinil Church.....	67
신일교회에 대한 평가	
3. Case Study on House Church Group in Hwapyung Church.....	67
화평교회 가정교회 사례연구	
1) Characteristic of House Church Group and Evangelism	68
가정교회의 특징과 전도	
2) Case in Hwapyung Church	70
화평교회의 사례	
(1) Church Establishment and Growth.....	70
교회 설립 및 성장 과정	
(2) Nurture for Small Group Leader Centered on Discipleship Training	70
제자훈련 중심의 소그룹 리더 양성	
(3) Re-education for Small Group Leader through Leaders' Meeting.....	71
지도자모임을 통한 소그룹 리더 재교육	
(4) Evangelism Ministry Centered on Evangelism Explosion and Evangelism Festival.....	72
전도폭발훈련과 전도축제 중심의 전도사역	
3) Evaluation	73
평가	
(1) General Evaluation of House Church Group	73
가정교회에 대한 일반적 평가	

(2) Evaluation of Hwapyung Church.....	74
화평교회에 대한 평가	
4. Case Study on Upper Room Group in Sarang Church	74
사랑의교회 다락방 사례연구	
1) Characteristic of Upper Room Group and Evangelism	74
다락방의 특징과 전도	
2) Case in Sarang Church.....	76
사랑의교회의 사례	
(1) Church Establishment and Growth.....	76
교회 설립 및 성장 과정	
(2) Nurture for Small Group Leader Centered on Discipleship Training and leadership Training	77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중심의 소그룹 리더 양성	
(3) Re-education for Small Group Leader through Upper Room Leaders' Meeting	78
순장반을 통한 소그룹 리더 재교육	
(4) Evangelism Ministry Centered on Evangelism Explosion and Great Awakening Evangelism Assembly.....	78
전도폭발훈련과 대각성전도집회 중심의 전도사역	
3) Evaluation	80
평가	
(1) General Evaluation of Upper Room Group.....	80
다락방에 대한 일반적 평가	
(2) Evaluation of Sarang Church	80
사랑의교회에 대한 평가	
5. Sub-conclusion.....	81
소결론	
CHAPTER 4: A Research Survey for Development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	83
제 4 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	
1. Purpose and Procedures of the Survey.....	84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Purpose of the Survey	84
설문의 목적	

2) Participants	84
참가자	
3) Survey Methods.....	84
설문 방법	
4) Survey Composition.....	85
설문 구성	
2. Survey Results	87
설문 결과	
1) Demographic Questionnaire to Participants.....	87
참가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질문 (1-7)	
2) Questionnaire about Type and Characteristic of Small Group.....	89
소그룹 유형과 특성에 대한 질문 (8-11)	
3) Questionnaire about Necessity of Evangelism Training for Small Group Leader.....	91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12-18)	
4) Questionnaire about Composition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	94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질문 (19-24)	
3. Sub-conclusion.....	99
소결론	
1) Frequency Analysis of Demographic Questionnaire.....	99
인구사회학적 질문에 대한 빈도 분석	
2) Cross-Analysis Related to Type of Small Group	99
소그룹 유형과 관련된 교차 분석	
3) Frequency Analysis about Necessity of Evangelism Training for Small Group Leader.....	100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빈도 분석	
4) Cross-Analysis about Composition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	100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교차 분석	
CHAPTER 5: Strategic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	102
제 5 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략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	

1. Name, Purpose, and Goal.....	102
명칭과 목적과 목표	
2. Prospective Participants for Education	103
교육 대상	
3. Length of Education.....	103
교육 기간	
4. Contents of Education.....	105
교육 내용	
1) Training in the First Week	105
1 주차 훈련	
2) Training in the Second Week	107
2 주차 훈련	
3) Training in the Third Week	109
3 주차 훈련	
4) Training in the Fourth Week.....	112
4 주차 훈련	
5) Training in the Fifth Week	114
5 주차 훈련	
6) Training in the Sixth Week.....	116
6 주차 훈련	
7) Training in the Seventh Week	118
7 주차 훈련	
8) Training in the Eighth Week.....	119
8 주차 훈련	
9) Training in the Ninth Week	122
9 주차 훈련	
10) Training in the Tenth Week	124
10 주차 훈련	
11) Training in the Eleventh Week	125
11 주차 훈련	
12) Training in the Twelfth Week.....	127
12 주차 훈련	

5. Analysis of EASGL Evangelism Training Program	129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 분석	
CHAPTER 6: Conclusion	132
제 6 장: 결론	
Appendix A.....	137
부록 A	
Bibliography	140
참고자료	
IRB Approval.....	150
IRB 승인	

TABLES
표

1. 만남의교회 영적성장반 교육과정.....	57
2. 만남의교회 구역장모임 시간계획.....	57
3. 신일교회 목자 모임 시간계획.....	63
4. 신일교회 70인 전도대 운영계획.....	64
5. 신일교회 복음전문.....	65
6. 신일교회 2018 전도 세미나 계획.....	66
7. 화평교회 제자훈련 교육과정.....	71
8. 화평교회 지도자모임 진행계획.....	71
9. 가정교회 전도축제 기획안.....	73
10.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교육과정.....	78
11. 사랑의교회 사역훈련 교육과정.....	78
12. 사랑의교회 전도폭발훈련(수요반) 진행순서.....	79
13.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88
14. 직분에 따른 전도훈련 경험에 대한 교차표.....	89
15. 전도훈련 기관.....	89
16. 소그룹 유형.....	90
17. 소그룹 유형에 따른 소그룹의 강점에 대한 교차표.....	90
18. 소그룹 유형에 따른 소그룹의 약점에 대한 교차표.....	91
19. 전도 지향적 소그룹에 대한 찬반.....	91
20. 소그룹 리더 양성훈련에 대한 특성.....	92
21. 소그룹 리더 양성훈련에 포함된 전도훈련에 대한 특성.....	92
22.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의 필요성 찬반.....	93

23.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의 유익에 대한 교차표.....	93
24. 신앙경력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교차표.....	94
25.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에 대한 교차표.....	95
26. 전도훈련 경험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에 대한 교차표.....	96
27. 교회 규모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중점에 대한 교차표.....	97
28. 성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에 대한 교차표.....	97
29.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방식에 대한 교차표.....	98
30.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 일정표.....	104
31. 훈련서약서 예시.....	106
32. EASGL 전도훈련 1 주차 큐시트.....	107
33. 전도대상자 목록 예시.....	108
34. 전도보고서 예시.....	108
35. EASGL 전도훈련 2 주차 큐시트.....	109
36. 요한복음 3:16의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	110
37. 공개보고 예시.....	112
38. 요한복음 3:16 핵심 문장을 활용한 복음 제시.....	112
39. ‘하나님, 세상’ 핵심 문장 확장하기.....	113
40. 코치가 조원에게 복음 제시를 넘겨주는 예시.....	114
41. ‘사랑하사, 독생자’ 핵심 문장 확장하기.....	115
42. ‘믿는 자, 멸망’ 핵심 문장 확장하기.....	117
43. ‘영생’ 핵심 문장 확장하기.....	118
44. 결신 기도 인도하기.....	118
45.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 예문.....	120
46. 열린 소그룹을 위한 역할 분담표.....	121

47. 열린 소그룹 시간진행계획 예시	123
48. 수료간증문 작성 양식.....	124
49.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 예시.....	126
50. 현장 시험 평가표.....	127
51. EASGL 전도훈련 12주차 큐시트	128
52. 전도헌신작정서 예시.....	128

FIGURES
그림

1. 요한복음 3:16 전도법 그림 111

ABBREVIATIONS
약어

CAL-NET	Called to Awaken the Laity-Network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D-12	Disciple-12
EASGL	Evangelism Academy for Small Group Leaders
GBS	Group Bible Study
G-12	Groups of 12
IFES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
IV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Korean churches have been seeking to utilize small groups with developing Bible-based principles; in reality, however, small groups have only reinforced the leadership of pastors, being reduced to mere platforms of Bible study and fellowship. One of the contributors to the weakened growth of Korean churches that have been shown since late 1990s is the failure of nurturing healthy small groups.

One of the purposes of the existence of the church is evangelism; in order to vitalize evangelism in local churches, small groups must be the main strategy to pursue. Evangelistic small group is the essence of local churches. The growth of church depends on the growth of small groups. Therefore, small groups should have an open attitude toward the souls they seek to win to Christ, and for this, small group leaders should be armed with enthusiasm for evangelism and encourage small groups to become evangelistic. The way for the Korean Church to experience the revival once again is to develop and apply a specialized evangelistic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The biblical basis in this study will be obtained through the biblical scriptures related to the small group based on the trinity and ecclesiology. The historical basis will be verified by organi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groups from the Early Church to the 20th century Korean church. This project will analyze the features of the major small group types in Korean church such as home cell group, pasture group, house church group, and upper room, and conduct case studies for each type in local church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ursue church growth through small groups; it will propose an

effective evangelism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maintain evangelistic small groups in 21st century Korean church.

CHAPTER 2

UNDERSTANDING OF SMALL GROUP AND EVANGELISM

This study uses the definition of a small group presented by Roberta Hestenes. A small group is “a deliberate face-to-face gathering of three to twelve people who meet regularly and share the common purpose of exploring together some aspect of Christian faith and discipleship.” The premise for this study is that the concept of evangelism is contained with “common purpose.”

The study of the biblical basis of a small group is set in the era of the Old Testament, the public ministry of Jesus, and the Early Church, respectively. In the Old Testament, small groups can be found from the household of Adam and Eve, Post-exodus Israel community, and the audience of Ezra gathering in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During the time of the public ministry of Jesus, the household of Matthew the tax collector and the group of twelve disciples show the evangelistic characteristics of a small group. In the era of the Early Church, many types of small groups existed for the prayer and evangelism in local churches—from the church of Jerusalem centered around the Upper Room of Mark to the church of Laodicea based in the house of Nympha. The theological basis of a small group is the ecclesiology founded on the Community of Trinity. The church may become interdependent as the body of the Christ while achieving spiritual unity by the small group setting.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groups in the Early Church were weakened when the Christianity became the state religion of the Roman Empire. Small groups for personal spirituality remained in existence in medieval monasteries. During the Reformation era, the third form of worship from Luther and Anabaptist movement created a

room for the revival of small groups, though they never succeeded in making small groups mainstream. In the era of modern church, small groups recovered their evangelistic characters within Moravian community of Zizendorf—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Lutheran Pietism. As a result of the Pietist movement, John Wesley in England founded the Methodist Church and conducted a small group-oriented ministry.

The small group movement, which thrived around the United States in the twentieth century, was greatly developed by parachurch organizations such as The Navigators, Serendipity House,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y (IFES) and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 and it was used as a tool for evangelism. David Yonggi Cho introduced home cell group system to Korean churches, and many local churches in 1980s tried to incorporate the dynamics of parachurches into groups of young adults. From then, new types of small groups such as upper room, cell, and house church group were developed.

Meanwhile, in this study, evangelism is defined as all activities and processes that aim to convert a non-believer, make him to change others, and carry out the spiritual multiplication by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character and death of Jesus based on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Korean churches use different evangelism methods—Evangelism Explosion, Visitation Evangelism, Street Evangelism, Total Mobilization Evangelism, or Small Group Evangelism—for each individual and different settings, but all methods have the same purpose: winning a soul to make a disciple of Jesus Christ.

CHAPTER 3

CASE STUDIES ON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 IN LOCAL CHURCH

Chapter 3 conducts a research on four different Korean churches that utilize major small group settings: Mannam Church with home cell group, Shinil Church with pasture group, Hwapyung Church with house church group, and Sarang Church with upper room group. This chapter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mall group type with a scope of evangelism ministry and conduct a study on evangelism training and nurtur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Home cell groups can directly deliver the ministry philosophy of a senior pastor to church members and effectively take care of church members, having more chance to win unsaved souls with close relationship. They, however, can have limitations in evangelism and nurturing programs when they become mere worship meetings which could focus heavily on the fellowship within the group. Mannam Church utilizes home cell groups with a focus on fellowship and provides Spiritual Growth Class for church members. It conducts weekly meetings for cell group leaders to equip them with re-education and organize volunteer-oriented street evangelism without actual evangelism training.

Pasture groups provide an easier access to the church for nonbelievers by strengthening life sharing based on the Scripture.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church growth by actively evangelizing and multiplying small groups, but they may fall into a hole of having unprepared leaders because of a heavy focus on multiplying rather than nurturing. Shinil Church systemizes the steps of nurturing leaders and encourages the whole church to participate in its

New Life Festival. Evangelism training, however, is not required for pasture group leaders. Street evangelism is conducted involuntarily by pasture groups.

House church groups accentuate life sharing among small group members and excel in settling and nurturing new members, but they tend to minimize the Bible study. Unmarried people or married people who attend church alone find it difficult to join house church groups. Hwapyung Church has Evangelism Explosion program for church members who finished nurturing programs and discipleship training and conducts evangelism based on small group setting, but current leaders of house church groups feel burdened by Evangelism Explosion and evangelism program.

The upper rooms seek a holistic change by taking spiritual care of the members with an inductive approach, but they lack the passion for evangelism because they focus more on nurturing and caring. Sarang Church provides systematic nurturing and training process and carries out evangelism ministry with Evangelism Explosion program and Great Awakening Evangelism Assembly. Unfortunately, though, the participation of upper room leaders in evangelistic training and evangelism ministry is low.

Four main types of small group in Korean church—home cell group, pasture group, house church group, and upper room group—share two same principles: following the model of the Early Church in the book of Acts and epistles and considering the role of a small group leader the most important matter. The difference is that home cell group and upper room are native to Korean churches, while pasture group and house church group are influenced by Western churches.

As noted in the case study of four local churches, although all four small group types acknowledge the necessity that small groups must be evangelistic and insist that the focus of

small groups need be on evangelism and reproduction, they are more centered on fellowship and nurture in reality. Therefore, regardless of small group typ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vangelism which is the essence of small groups and develop effective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first.

CHAPTER 4

A RESEARCH SURVEY FOR DEVELOPMENT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

For the study, a survey of four churches—Mannam Church, Shinil Church, Hwapyung Church, and Sarang Church—was conducted on four different types of small groups that are most common in Korea. The senior pastors of all the four churches are currently the members of Called to Awaken the Laity-Network (CAL-NET) and had completed the Called to Awaken the Laity Discipleship Seminar (CAL-Seminar) courses hosted by Disciple-making Ministries International of Sarang Church.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make pastors and lay members of local churches understand the necessity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s for small group leaders and to develop the most effective evangelism training program.

70% of focused groups of this survey were lay members and 30% of them were pastors. 42.5% of participants were in the age of 50-59 and 30% of them in 40-49. 57.5% of them were women and 42.5% of them were men. 87.5% of participants have been believers for more than 21 years. 30% of participants attend mega churches (more than 10,001 members), while 25% of them attending large churches (1,001-10,000 members) and 25% of them attending medium churches (301-500 members). 77.5% of participants had experience in evangelism training and 61.3% of which were trained in churches.

Analysis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mall group types showed that the strength of home cell group and house church group was ‘fellowship’ and the strength of pasture group and upper room group was ‘nurture.’ All three other than house church group had ‘evangelism’ as their biggest weakness; 55% of all four groups consider ‘evangelism’ their

weakness and 92.5% of all participants thought that small groups must be evangelistic. Thus, churches need to strengthen the aspect of evangelism to transform small groups evangelistic.

All four churches surveyed had training programs to nurture small group leaders. 57.5% of those training programs had evangelism training elements, majority of them conducting Evangelism Explosion for more than 13 weeks. All participants in the survey agre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evangelism training suited for small group leaders, and 42.5% them expected to see “the growth and multiplication of small groups” with the specialized evangelism training. This clearly shows that survey participants had a burden of Evangelism Explosion and a thought that effective evangelism training would help small groups to grow.

52.5% of survey respondents wanted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50% of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all church members’ for ‘12 weeks.’ 50.0%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main focus must be on ‘the gospel (doctrines)’ while 37.5% on ‘having relationship with the target.’ All four local churches had great interest in evangelizing unsaved targets and nurturing them in small groups, and they believed the 12-week training is appropriate.

For the type of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70% of participants picked ‘small group training’ and 80% chose ‘field test.’ Because those four churches had already experienced the benefits of small groups, participants expected ‘small group training’ to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and they consider ‘field test’ to be more appropriate than classroom te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mentioned above, chapter 5 will discuss specific plans for developing evangelism training programs designed to make evangelistic small group leaders.

CHAPTER 5

STRATEGIC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

Chapter 5 will discuss an effective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supplementing shortcomings found in church case studies and reflecting the expectations of pastors and lay believers identified through the survey. The specific content is to be discussed in each weekly curriculum.

The program is called the “Evangelism Academy for Small Group Leaders” (“EASGL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enable small group leaders and prospective leader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groups and to evangelize in person-to friends and relatives or to strangers on the street—and to proceed with Open Small Groups after acquiring information on the souls that are sought. Primarily, lay believers who serve as small group leaders in local churches are subject to the training program of 12 weeks; no age and gender restrictions are in place.

The EASGL program consists of classroom classes (all-gathering meetings and small group activities) and field exercises. Classroom classes begin with the “Understanding Small Group and the Souls We Seek to Win.” Afterwards, the so-called “John 3:16 Evangelism Strategy” is taught for five weeks. Then, the lecture on the “Preparation and Practicality of Open Small Group” is given to the trainees; each small group will have a coach and an assistant coach and perform tasks assigned for each week. On-site practices are conducted by two times of visiting and six times of performance. In the 8th week, a recital contest of gospel proposal will be held, and in the 11th week, a “field test” for each small group will be conducted during street evangelism activities to evaluate traine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GL Program is as follows: first, the program is a training that applied the “John 3:16 evangelism strategy” in a creative way; second, the program is small-group oriented, with coaches and assistant coaches leading the group members (usually a group consists of four to six members) each as a group head, leading two to three group members with intensive care; third, the EASGL Program is a phased program with an emphasis on on-site evangelism activities. Coaches and assistant coaches show examples of different types of evangelism targeting friends or strangers on the street in the second and third week. Afterwards, group members get to participate in the gospel proposal partially in the fourth to sixth week. At the end of the Program, from seventh to eighth week, all group members should be able to propose the given gospel text to their targeting souls.

Fourth, as mentioned above, the program holds a recital contest of gospel proposal to improve the participants’ ability to propose the gospel to their targets and to promote confidence. The competition is designed to help participants in evangelical training master the presentation of gospel which is an expansion of the key sentences in the content of the John 3:16 evangelism strategy. Fifth, the EASGL Program operates “Open Small Groups” to enable participants to experience small group evangelism from the ninth to tenth week. The pastor in charge shall explain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Open Small Groups and also provide tips for small group participants. Meanwhile, coaches and assistant coaches help small group members set up specific time plans and assign roles for each member in the group. Sixth, the EASGL Program evaluates the participants through an on-site evangelism activity. Lastly, the EASGL Program encourages the participants to engage in such evangelism activities consistently after completing the course.

As such, the EASGL Program consists of small group leaders with the ability to actually lead evangelistic small groups. All church members including the senior pastor and fellow

ministers should regularly motivate all members of the church, including small group leaders, to take an active part in this Program. Further, the church needs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evangelistic ministries and seek sites for on-site evangelism activities, providing opportunities and platforms for the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Program to practice their evangelism techniques.

CHAPTER 6

CONCLUSION

In this paper, the small group was understood as “a deliberate face-to-face gathering of three to twelve people who meet regularly and share the common purpose of exploring together some aspect of Christian faith and discipleship.”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basis of small group, while defining evangelism as “all activities and processes aimed at delivering the gospel to the souls that are sought, driven by the Holy Spirit on the basis of the command of Jesus that change not only the targeting soul but also other souls through the soul who is gained.”

As conducting case studies of churches, the study found that all four types of small group shown in the Korean church consider the Early Church their ultimate model. Further, the study found that small groups in the Korean church showed little emphasis on evangelism overall, though they agreed that the role of small group leader is crucial. In the survey, small groups in all four types answered that their weakness was evangelism, and the participants of survey agreed that small groups need to focus more on evangelism; reaching consensus that a specialized evangelism training program dedicated to small group leaders is needed.

It was in this light that the paper was dedicated to introducing the EASGL Program, as a strategic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small group leaders that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above-mentioned case studies and survey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help pastors, the church, and the laity in Korea obtain theoretical insights on small groups and evangelism and nurture evangelistic small groups to seek growth by adopting the EASGL Program. It would be pleased to see more effective and sophisticated evangelism training program developed based on further

research that will harness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with the extension of various evangelical ministries of local churches.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한국교회의 성장과정에는 한국교회 내의 소그룹 운동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채이석은 그의 책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소그룹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면서 각 유형의 성경적 기초와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소그룹 유형은 구역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는 강단과 소그룹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구역장을 리더로 세워 자신이 가르친 말씀을 구역모임에서 그대로 반복하도록 했다. 채이석에 의하면 구역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으나 리더십의 공백기에는 소그룹이 와해될 위험성을 갖게 된다.¹⁾

다음으로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가정교회이다. 현재 국제가정교회사역원의 원장으로 사역하는 최영기는 칼 조지(Karl George)의 메타모델에 기초하여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소그룹의 리더인 목자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교회 안의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이 약화된 교제 중심의 모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²⁾

마지막으로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다락방이다. 옥한흠은 제자훈련을 통해 양성한 소그룹 리더를 순장으로 파송하였다. 그는 정기적인 순장반 모임을 통하여 다락방 성경공부 교재를 예습시키고 순장들로 하여금 전인적인 소그룹을 인도하도록 요청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다락방 모임은 성경공부 위주로 진행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³⁾

1) 채이석,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소그룹하우스, 2005), 41-2.

2) Ibid., 40-1.

3) Ibid., 38.

이와 같이 한국교회에 나타난 소그룹 유형들은 성경에 기초한 원리를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지향적 소그룹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조 또는 기존의 성도들을 위한 교제와 성경공부를 위한 조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성장둔화 현상은 지역교회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최윤식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이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⁴⁾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불신자들의 종교선호도에 있어서 기독교가 천주교와 불교에 이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⁵⁾ 이상대는 전도가 심하게 왜곡되어 인식되는 현실에서 전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재정립해야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다시 말해 교회 부흥을 단순한 수적 증가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성도가 특정한 지역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구조는 소그룹이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그룹을 통해서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주일예배는 공동체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동일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으며, 공동체의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성도들의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바로 소그룹이다.

소그룹 리더는 멤버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소그룹 안에서는 모방의 원리가 작동하므로 멤버들은 리더의 인격과 삶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가 어떠한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소그룹의 특성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가 특정한 목적을

4)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3.

5) 2015년 1월 28일자 경향신문에서 손봉석 기자는 이날 한국 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에 관한 기사의 제목을 ‘비종교인 선호 종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순’이라고 표현하며, 3대 종교 중 비신자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종교가 개신교라고 기술하였다.

6) 이상대, 「그 교회를 찾다」(서울: 마음지기, 2016), 151.

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한다면, 그 소그룹은 리더의 목적에 따라 한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목회자는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목회자가 기대하는 리더의 자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목회자가 선호하는 리더의 자질과 소그룹의 유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성경에서 - 특히 신약성경 - 에서 발견되는 소그룹의 특징은 전도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마 9:1-13). 또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녀의 집을 통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 믿음의 형제들이 되었다(행 16:15, 40).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에 힘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믿는 자들만을 위한 교제의 모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전도의 현상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였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권위와 책임이 부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초대 교인들의 생활 양식이 매우 강력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매일 새롭게 생겨났다고 주장한다.⁷⁾ 특히 그는 고린도전서 14 장 24-25 절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생활을 통한 복음 전도(Body Life Evangelism)’의 개념을 소개한다.

네이버는 마음이 굳어 있고 의심이 많은 자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전문 성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외하고는 리더십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일들은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그 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루었다고 주장한다.⁸⁾

따라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소그룹의 전도 지향적 특징은 21 세기 한국교회에서도 재현되어야 한다.

7) Ralph W.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서울: 도서출판 NCD, 2006), 76.

8) Ibid., 77.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부흥을 경험하고 세계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성경적인 소그룹의 특징이 전도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현재 한국에서 대표적인 4 가지 소그룹 유형 -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 등 - 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교회에서 실시하는 소그룹 리더 양성 및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한 이후,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그룹 리더에게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전도 지향적인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교회에는 이미 총동원전도주일, 대각성전도집회 등의 검증된 대그룹 전도방법론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도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소그룹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현재 지역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양성 및 전도훈련에 대해 사례 연구를 할 것이다. 한국교회에는 앞의 4 가지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소그룹 유형이 존재하지만,⁹⁾ 본 연구에서 모든 유형을 연구할 수는 없으므로 칼넷(CAL-NET)¹⁰⁾에 소속된 교회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4 가지 유형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한다.

9) 한국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 유형에는 순, 속회, 셀, G-12, D-12, GBS 등이 있다.

10) 칼넷(CAL-NET)은 사랑의교회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주최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Seminar)를 수료한 목회자들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소그룹을 비롯한 제자훈련목회를 서로 공유하고 지원하는 초교파 목회자 모임이다.

본 연구는 소그룹 리더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리더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데 헌신하지 않는 한, 소그룹 사역은 성공할 수 없다.”¹¹⁾ 소그룹 리더가 어떠한 성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냐에 따라 소그룹 운영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는 성경에 기초한 소그룹을 운영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그룹 리더가 전도 지향적인 소그룹을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소그룹 멤버들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소그룹 리더를 바라보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4 가지 소그룹을 운영하는 4 개의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한정하도록 한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4 개의 지역교회는 칼넷(CAL-NET) 소속교회로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담임목사가 칼넷의 임원(대표 또는 총무)으로 활동하며 소그룹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하는 교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단행본, 정기 간행물,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과 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제자훈련 전문 월간 잡지인 「디사이플」에 소개된 소그룹 리더십과 전도사역에 대한 기사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미 현장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전도훈련과정과 전도자료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통해 개인 복음제시 능력을 숙달하고 <열린 다락방>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한계이다. 즉 소그룹 리더가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개인 전도를 위한 복음제시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소그룹 멤버들을 동원하여 소그룹 단위의 관계전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차후 본 연구가 확장된다면 교회 전체가 동원되는 대그룹 단위의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동일지역 안에서 여러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전도집회를 실시하는 지역별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1)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92.

3. 성경적 역사적 근거

성경은 신학과 목회의 유일한 기준이므로 소그룹의 형태와 특징을 성경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주권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 안에서 발견되는 소그룹의 역사를 검토하고 21 세기를 대표하는 소그룹 유형들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1) 성경적 근거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학적인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먼저 연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소그룹의 원리를 신론과 구원론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며 적용하심으로써 전도 지향적 소그룹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신약성경을 기초로 교회론의 관점에서 소그룹의 이론과 실체를 검토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론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교회 설립 과정 및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교회의 실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와 관련하여 복음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 장 18 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사도행전 2 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성경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연속성 상에 있다는 성경신학적 확신에 근거한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적인 확장을 경험한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교회의 설립과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그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셋째,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교회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선교사이자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신학적인 기초를 마련한 이론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서신에서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며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교회 안의 소그룹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위일체론과 교회론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하여 성경적이며 신학적으로 교회와 소그룹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의 토대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차후 진행되는 역사적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2장에서 다룰 것이다.

2) 역사적 근거

본 연구에서 역사적 연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신약교회의 역사를 주요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각 시대에 나타난 소그룹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시대 이후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경건주의운동 안에서 태동한 소그룹 운동을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대교회사 안에서 20 세기의 소그룹 운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펼쳐진 소그룹 이론과 유형에 대한 연구를 교회론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 세기 교회론의 특징은 평신도의 재발견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소그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연구의 주된 관심이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회 안에서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1970 년대에 이후 한국교회에서 주로 발견되는 4 가지 소그룹 유형 -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 등 - 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는

4 가지 소그룹 유형이 한국교회에 나타난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 지역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소그룹 유형들이므로 이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자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시대를 거쳐 근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소그룹의 역사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현재 한국교회에 주로 운영되는 4 가지 소그룹 유형에 대해 공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역사적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4. 연구 방법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그룹을 통해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그룹이 전도 지향적이어야 하며,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가 효과적인 전도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 성경적, 역사적으로 교회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21 세기 한국교회에서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 소그룹 리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헌 연구는 성경을 기초로 신학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설문 조사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설문에 대한 분석은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성경적, 역사적으로 이론적 토대를 확보한 이후 목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자는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의 역사와 특징을 본문 중심의 성경해석을 통하여 정리하여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 가장 성경적인 모델임을 검증하는 성경해석학적 방법론과 교회사에 나타난 실제적인 소그룹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문헌적 자료를 검토하는 역사학적 방법론을 통해 이론적인 배경을 확립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례 연구와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4 가지 소그룹 유형별로 실시되고 있는 소그룹 리더 양성 및 전도훈련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소그룹 리더를 위한 실제적인 전도훈련의 필요 요건을

종합하여 지역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소그룹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대한 탐방 및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각 소그룹 유형의 특징과 전도훈련에 대한 실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실천신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21 세기 한국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학교(EASGL: Evangelism Academy for Small Group Leaders)’라고 명명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1 장은 서론으로 서술한다. 2 장에서는 소그룹의 정의를 제시한 이후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고 20 세기의 소그룹 운동과 한국교회의 소그룹 운동을 연구한다. 그리고 전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가 지향하는 전도에 대한 이해를 정리한다.

3 장에서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4 가지 소그룹 유형 -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 등 - 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그룹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각 유형별 지역교회에서 실시되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양육 및 전도훈련의 장점과 단점을 연구함으로써 차후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그룹 리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의 필요성을 확증한다.

4 장에서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교회에서 운영 중인 소그룹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그룹 리더 양육 및 전도훈련의 상황을 진단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다.

5 장에서는 4 장에서 도출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명칭과 목적 및 목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 분석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 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이후 한국교회에서의 적용 및 발전 방안 대해 서술할 것이다.

5. 문헌 비평

사랑의교회의 담임목사 오정현은 그의 책 「잠들지 않는 사역자」에서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절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역사도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말하며, 목회자들은 너무나 자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열 마리 양을 돌보느라 우리 밖의 아흔 마리의 양을 놓친다고 말한다.¹²⁾ 이어서 그는 전도 목회를 통해 교회에 재생산의 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다. 즉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그룹 사역에 접목하여 소그룹의 3대 사역을 교제와 성장과 전도라고 규정하고, 소그룹이 가정교회 형태의 구조를 활성화시켜 영혼 구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전도 중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³⁾

소그룹은 현재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지역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소그룹이 전도 지향적으로 움직일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지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교회는 존재 목적상 이미 전도 지향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태동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옥한흠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는 그의 책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증인의 공동체이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어머니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⁴⁾

그런데 옥한흠은 교회의 전도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평신도가 부름 받은 가장 큰 봉사 사역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12) 오정현, 「잠들지 않는 사역자」(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164.

13) Ibid., 166.

1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06-113.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⁵⁾ 이어서 그는 만인제사장설을 기초로 평신도에게 주어진 사도적 사명을 바로 인식할 때 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교회의 전도 사역은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주체로서 평신도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소그룹 리더는 평신도 사역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소그룹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의 하나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옥한흠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그의 책 「살아 있는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을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규정하며, 예배와 전도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어서 그는 복음 전도의 여러 형태로서 개인전도, 대중전도, 지역교회의 전도를 제시한다.

이어서 스토틀은 자신이 제시한 복음 전도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지역교회의 전도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생산적인 복음 전파 방식이라고 주장한다.¹⁶⁾ 다시 말해 그는 성경적인 논거와 전략적인 논거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분을 증거할 수 밖에 없고, 각각의 지역교회는 특정한 이웃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교회의 전도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관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의 전도 지향적 특성을 이해하고 소그룹을 통한 관계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이석은 그의 책 「소그룹의 역사」에서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분석한다. 그는 가장 먼저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15) Ibid., 109.

16) John R. W. Stott, 「살아 있는 교회」(서울: IVP, 2009), 57.

지으시고 가정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살도록 디자인하셨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기초가 야곱의 열 두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소그룹의 기초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이어서 그는 교회사에 나타난 소그룹의 유형과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우선 초대교회시대, 중세교회시대, 종교개혁시대, 경건주의시대에 등장한 소그룹 운동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영국교회에서 요한 웨슬레에 의해 만들어진 속회 모임의 역사와 모임 규칙 등을 설명한다.

한편 채이석은 현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의 유형을 여덟 가지 모델 - 언약, 통합, 메타(셀그룹), 세렌디피티, 두날개양육, G12, 알파, 제자훈련 등 - 로 제시하면서, 각 모델의 핵심 개념과 원리 및 강점과 약점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는 교회는 곧 소그룹의 역사이며 소그룹이 곧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채이석은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그룹이 지역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었음을 강조하며, 소그룹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교회의 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소그룹의 성장은 곧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며, 소그룹 리더가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랭크 비올라(Frank Viola) 또한 「1세기 관계적 교회」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인 장소는 가정집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¹⁹⁾ 첫째, 가정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증거한다. 둘째, 가정집은 서로 교제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 셋째, 가정집은 그리스도의 단순성을 나타내 준다. 넷째, 교회의 가족적 성격을 반영해준다. 다섯째, 가정집은 영적 확실성의 예를 보여준다.

비올라는 교회 집회에 치우쳐 있는 현대교회를 비판하면서, 현대교회가 오히려 가정교회 집회로부터 특별한 진리적 요소를 얻어야 하며, 가정교회 집회가 가진 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17)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25-6.

18) Ibid., 213-227.

19)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서울: 미션월드, 2006), 71-8.

규범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다시 말해서 그는 소그룹이 교회의 본질이며 사실상 소그룹이 곧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광수는 그의 책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에서 소그룹 목회의 성서적 전거와 역사 및 신학에 대해 간략하게 다룬 이후,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모델을 세 가지 -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구역, 풍성한교회의 셀,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등 - 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그는 구역을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소그룹 목회 구조로 평가하면서 세상을 위한 전도와 봉사를 강조하고, 셀 교회의 한국적 적용의 대표적 사례로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소개하며, 새로운 소그룹 목회의 모델로 가정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한다.²¹⁾ 그리고 각 소그룹 모델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이광수는 자신이 담임으로 섬기는 신갈장로교회의 소그룹의 역사가 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셀을 경험한 이후 최종적으로 가정교회 목회로 정착하였음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건강한 교회와 성서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소그룹 목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한다.²²⁾ 다시 말해 이광수는 자신의 목회현장을 소그룹 중심의 목회로 전환하면서 확신하게 된 목회철학에 따라, 소그룹이 제자도를 목적으로 하여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 할 때 건강한 교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 한국교회에서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성장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이 요구된다.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그의 책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에서 만일 교회가 열린 자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소그룹들이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소그룹들이 구도자에게 무신경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한다.²³⁾ 그리고 ‘단힌 소그룹의 증상’이 나타날 때 교회는 신자와 구도자를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도나휴가 말하는

20) Ibid., 28.

21)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0), 214-5.

22) Ibid., 216

23) Bill Donahue, 「소그룹을 망치는 7가지 실수」(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168.

‘닫힌 소그룹의 증상’ 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구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둘째, 구도자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 셋째, 구도자들이 구도자다운 행동을 할 때 충격을 받는다. 넷째, 특정 종류의 기독교 용어를 사용한다. 다섯째, 난해한 성경공부주제를 선택한다.

결론적으로 도나휴는 소그룹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열린 자세’에 대한 비전을 품고 열린 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그룹의 탄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그룹이 가진 구속 사역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소그룹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개발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²⁵⁾

한편 도나휴는 그의 또 다른 책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시키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자의 역할 중 하나는 아직 성경적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빈 의자를 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⁶⁾ 이어서 그는 소그룹의 빈 의자에 구도자를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²⁷⁾ 첫째, 구도자의 필요에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 구도자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 전문용어나 표현들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넷째,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다루어야 한다. 다섯째, 구도자가 강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을 때는 용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진다면 대개의 구도자들이 전형적인 소그룹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에 대한 전도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가 구도자의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소그룹의 빈 의자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배창돈은 「열매 맺는 순장」에서 소그룹 리더들이 항상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야 함을

24) Ibid., 168-73.

25) Ibid., 174-5.

26) _____,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221-2.

27) Ibid., 227-8.

강조한다. 그는 소그룹 리더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하며, 해산을 향한 거룩한 부담과 열심을 품고 기도해야 하며,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상이 변화되고 민족이 부흥할 것을 꿈꿔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이어서 그는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번식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이 세상에서 그 존재 가치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장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⁹⁾

한편 배창돈은 그의 또 다른 책 「아름다운 이름, 순장」에서 소그룹 리더십을 이끄는 힘으로서 지속적인 전도를 언급한다. 그는 소그룹 리더가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그룹이 활기를 잃게 된다고 말하면서 전도가 없다면 소그룹도 없다고 단언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소그룹은 생기가 있다고 말한다.³⁰⁾

결국 배창돈이 이상의 두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그룹 리더에게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하고 소그룹 안에서 지속적인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는 자신이 먼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훈련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나열한 문헌들을 통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전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소그룹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했음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가 전도 대상자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효과적인 전도훈련을 통해 실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할 것이다.

28) 배창돈, 「열매 맺는 순장」(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41.

29) Ibid., 46-7.

30) _____, 「아름다운 이름, 순장」(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91.

한편 본 연구는 한국에서 출간되는 정기간행물 중에서 「디사이플」에 연재된 기사들을 주목하여 검토할 것이다. 「디사이플」은 1987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자훈련목회를 돕기 위해 창간한 전문잡지로서 매월 발행되고 있다. 「디사이플」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은 소그룹, 전도, 리더십 등이며 실제 목회현장에서 검증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경적 문맥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소그룹의 성경적 연구를 위한 본문은 구약시대, 예수님의 공생애, 초대교회 시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구약시대에서 소그룹의 성경적 정의를 위한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2장 18-25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고 말씀하셨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라고 선언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최초의 소그룹을 만드셨다.

두 번째 구약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7-23절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출 18:21-22)고 조언한다. 이는 한 명의 리더가 돌볼 수 있는 구성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써, 5명 또는 10명 단위의 소그룹 구조를 보여준다.

세 번째 구약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5-12절이다.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청중에게 율법책을 낭독하였는데 이때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느 8:7). 다시 말해 레위 사람들은 청중 사이에 들어가서 소그룹 단위로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한편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소그룹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소그룹과 관련된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13절이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마 9:10).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3)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은 마태의 집을 전도를 위한 소그룹 모임장소로 사용하신 것이다.

두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3 장 13-19 절이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막 3:14-15).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열두 명으로 구성된 제자 소그룹에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소그룹 안에는 네 명으로 구성된 세 개의 작은 소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다.

세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9 장 1-6 절이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눅 9:1-2).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눅 9:6). 누가복음 10 장 1 절을 참고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명 이상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또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과 관련된 첫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1 장 12-14 절이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열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행 1:13-14).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에서 제자들은 소그룹을 형성하여 기도에 집중했다.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 장 37-47 절이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삼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행 2:46). 이는 예루살렘교회가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대그룹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16 장 11-15 절이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유하도록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행 16:15).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그때 이미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소그룹을 이루고 있었다(행 16:40).

네 번째 본문은 고린도교회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18 장 5-11 절이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거절하자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행 18:7-8). 이와 같이 바울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전도사역을 펼침으로써 고린도교회를 세웠다.

다섯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0 장 17-21 절이다. 바울은 3 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만나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했다(행 20:20). 이것은 바울이 대그룹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 장 12-17 절이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언급하면서 그가 골로새교회와 라오디게아교회와 히에라볼리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증언하였다(골 4:13). 한편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골 4:15)고 말하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 4:17)는 말을 아킵보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골로새교회는 에바브라, 아킵보와 같은 소그룹 리더들이 갈라디아지역 안의 다른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과 협력하여 사역했다.

한편 소그룹의 신학적 연구를 위한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1 장 26 절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섯 째 날에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6)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복수를 의미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6 장 16-18 절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상한 교회는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이 내포되어 있다.

세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7 장 20-22 절이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체사장적 기도를 하시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1-22)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열두 제자의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본받아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승천 이후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12 장 24-27 절이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전 12:24-25)고 말한다. 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유기적 상호의존의 관계가 존재하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임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회의 특성은 소그룹 안에서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경적 문맥 형성 및 신학적 연구를 위해 이상에서 언급한 성경구절들은 제 2 장에서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시대에 이르기까지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그룹의 신학적 의미를 밝히고 실제로 예루살렘과 이방지역에서 초대교회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제 2 장

소그룹과 전도에 대한 이해

2 장에서는 소그룹을 이해하기 위해 소그룹의 정의를 서술한 이후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이해를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전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1. 소그룹에 대한 이해

1)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은 영어의 ‘small group’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한자와 영어의 합성어이다. 개러스 아이스노글(Gareth W. Icenogle)은 “소그룹은 몇몇 사람(3 명에서 20 명 정도)이 상호 발전과 타인의 보편적인 유익을 위해 얼굴을 마주하고 존재하고, 삶을 나누며, 행동하는 모임이다”라고 정의했다.³¹⁾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는 “기독교 소그룹은 의도적이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3-12 명 정도의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³²⁾ 김덕수는 헤르테네스가 제시한 소그룹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때 ‘의도적’이란 것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공통 목적’은 공동체가 가져야 할 공유 비전의 중요성을 말한다. ‘얼굴을 대면하여’란 것은 소그룹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3-12 명’이라 한 것은 일대일도 아니고 교류가 일어나기 힘든 숫자보다는 상호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숫자를 지적한 것이다. ‘정기적으로’란 말은 공동체가 가져야 할 정규적 모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상황이 되면 모이고 힘들면 안 모이는 방식은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 사역과 거리가 멀다.

또한 ‘발견’한다는 말은 소그룹 사역이 리더 중심의 일방적 교육 훈련과 달라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라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자라감은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 나 혼자의 신앙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그룹 사역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능성’이란 말 속에서 소그룹 사역은 주어진 공과만 의존하는 정형성보다는 모험을 감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모임의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고자 함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성경공부를 통해 신학적

31)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출판부, 2007), 21.

32) 김덕수, 「소그룹과 셀사역, 그리고 셀 교회로의 전환」(경기: 킹덤북스, 2011), 81.

지식을 얻는 것이 소그룹의 목표가 아니다.³³⁾

채이석은 “헤르테네스의 정의 안에 있는 ‘의도적’라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 그룹에 참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모든 의사 소통의 90%는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서로 마주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 ‘정해진 시간’은 소그룹의 결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모이는 간격을 보다 더 자유롭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 소그룹을 시작한 처음 몇 주 동안은 매주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통의 목적’이 주는 의미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이 모임을 혼란스럽지 않게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말한다.³⁴⁾

본 연구에서는 헤르테네스가 제시한 소그룹의 정의를 사용할 것이며, 그녀가 제시한 ‘공통의 목적’의 내용 안에 전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할 것이다.

2) 소그룹의 이해

(1) 성경적 근거에 대한 연구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즉 구약시대, 예수님의 공생애 및 초대교회시대를 배경으로 각각 구약과 신약의 주요 본문이 제시될 것이다.

i) 구약시대의 소그룹

구약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첫 번째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고 말씀하셨다. 강사문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1:23)는 아담의 고백에 대해

33) Ibid., 842.

34) 채이석, 「건강한 소그룹 목회 컨설팅」(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66.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에는 여자가 남자의 예속이나 종속이라는 의미는 없고 남녀가 완전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잘 잘못을 보완하고 보충하여 한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공조라는 뜻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social being)이므로 피차 돕고 돕는 공조의 기본이 남녀의 공제에서 출발함을 뜻한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으므로 뼈인 동시에 살도 된다는 말이다.……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이 가깝다는 표현이다. 동심일체(同心一體)란 뜻이다. 따라서 아담의 고백은 곧 여자와 남자는 같은 본질이란 뜻이다.³⁵⁾

강사문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완전한 친밀함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한편 월터 브뤼게만(Walter Brueggemann)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은 계약으로 연결된 인간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연대감과 신뢰 및 행복을 그 특징으로 갖는다. 그들은 하나이다”³⁶⁾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구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공동체로서 이상적인 소그룹의 구약적 모델이다.

구약에서 발견하는 대표적인 소그룹 유형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견된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출 18:1)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 이 때 모세는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조언한 내용이 출애굽기 18 장 17-23 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출 18:21-22)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수용하여 ‘백성의 우두머리들’(출 18:25)을 세워 작은 일들에 대한 재판을 그들에게 위임했다.

트렌스 프레다임(Trence E. Fretheim)은 모세가 세운 사람들은 “비중양화된 공동체 구조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며,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차원들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받되, 가장 어려운 문제들만

35) 강사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가정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8), 45.

36) Walter Brueggemann,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창세기」,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91.

모세의 결정권에 위임해야 한다”라고 해석한다.³⁷⁾ 그리고 박철현은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평가한다.³⁸⁾ 그러나 존 더햄(John I. Durham)은 이 본문을 ‘말씀의 권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에는 모세가 선택하여 세운 지도자들이 선포할 율례와 법도는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보다 더 ‘세속적’이거나 혹은 ‘덜 거룩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모세가 적용한 것이든지 혹은 이드로가 제안해서 뽑은 지도자들이 적용한 것이든지 간에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차이점은 이미 선례가 있는 문제들을 사례별로 다루는 것과 명백한 원칙을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주는 것이다.³⁹⁾

정리하자면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모세가 세운 조직은 단순히 행정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수용될 수 있는 구조를 추구했던 것이다. 즉 모세로부터 공동체의 사역을 위임 받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책임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다섯 또는 열을 한 묶음으로 하는 구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를 위한 구약의 또 다른 본문은 느헤미야 8장 5-12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였고,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할 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느 8:7-8).” 마크 트론베이트(Mark A. Throntveit)는 “이들의 임무는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백성들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의역하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⁴⁰⁾ H.G.M. 윌리엄슨(H.G.M. Williamson)은 이 상황을 조금 더

37) Trencé E. Fretheim,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출애굽기」,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312.

38) 박철현, 「출애굽기 산책」 (서울: 도서출판 목양, 2011), 164.

39) John I. Durham, 「WBC 성경주석-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426-7.

40) Mark A. Throntveit,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에스라/느헤미야」,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147.

세밀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지만 “그 처소에 쪼는 백성”이라고 묘사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레위인들이 그들 주변으로 이동해 갔다는 암시가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율법의 각 부분을 읽은 다음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의 이 그룹 저 그룹 사이를 이동하면서 그들이 이미 들었던 내용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끔 했을 것이다.⁴¹⁾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은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소그룹 단위로 선포된 말씀을 해석해줌으로써 백성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왔던 것이다. 한편 민경진은 백성들의 ‘깨달음’에 주목하여 “에스라가 새벽 일찍부터 한 나절 동안 전심으로 율법을 읽어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도통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답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을 백성들의 언어로 깨닫게 해 주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한다.⁴²⁾

그러므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에 의해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레위인들이 소그룹 단위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에스라 당시의 소그룹은 레위인들이 리더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ii) 예수님의 공생애와 소그룹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여러 가지 소그룹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기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을 방문하신 장면에서 소그룹의 형태가 발견된다(마 9:9-13).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마 9:10). 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다. 데이비드 터너(David Turner)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들’은 의식적 정결과 음식법 및 안식일 준수와 같은 문제에 있어 구약 성경의 전통적 해석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당시에 식탁 주위에서 교체하는 것은

41) H.G.M. Williamson, 「WBC 성경주석-에스라/느헤미야」, 조호진 역 (서울: 솔로몬, 2008), 539.

42) 민경진,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83.

보다 깊은 하나 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⁴³⁾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13)고 말씀하신다. 곧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선언이다. 정우홍은 “죄인을 불러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로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의로운 자들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라고 말한다.⁴⁴⁾ 다시 말해 마태의 집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소그룹 모임장소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열두 명을 구별하여 세우셨다. 마가는 예수님이 열두 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막 3:14-15).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별도로 비유를 해석해주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가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고 말한다(막 4:33-34). 마태는 동일한 상황을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마 13:36)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말씀을 해석해주시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용의는 “따라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만큼은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더 깨닫고, 그 비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한다.⁴⁵⁾

다음으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열두 명의 소그룹

43) David Turner, 「마태복음」,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344.

44) 정우홍, 「마태복음 강해(상)」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9), 244.

45) 양용의, 「마가복음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0), 118.

구조로 제자를 세우신 것의 목적 중 하나가 ‘전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로버트
 귄리히(Robert A. Guelich)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음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파하는 그들의
 선교의 기초를 제공한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의 사역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그가 준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자로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다.⁴⁶⁾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실 때 이미 그들을 전도의 사명을 위해 파송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다.

유태엽은 열두 제자의 명단을 거론함에 있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성분별로 혹은 역할별로
 거론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처음 세 명은 중요성에 있어서 함께 소개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두
 명씩 제자들을 묶은 것은 그들의 고향이 같거나 항상 같이 활동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⁴⁷⁾
 채이석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열두 제자 명단을 보면……누가 기록했는지 항상 세 개의 더
 작은 그룹을 보여준다.……그러므로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도 네 명씩 세 개의 소그룹을 나누시고
 베드로, 빌립, 야고보를 각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⁴⁸⁾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열두 명의 제자들을 두 명 내지 네 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훈련시킴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6절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고(눅 9:1-2),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눅 9:6).” 윤철원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파송되었듯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로부터 파송된다.……여기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위임한 병고침과 축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표시로서 기능한다”라고 말한다.⁴⁹⁾ 그리고 존 놀랜드(John
 Nolland)는 “누가는 여기서 사도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땅

46) Robert A. Guelich, 「WBC 성경주석-마가복음」,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1), 285.

47) 유태엽, 「마가복음 해석과 적용」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2), 125.

48)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34.

49) 윤철원, 「누가복음서 다시 읽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7), 199.

끝까지 그의 증인 될(행 1:8) 오순절 이후의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평가한다.⁵⁰⁾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막 6:7)라는 마가의 증언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눅 10:1)라는 누가의 기록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훈련을 시키셨을 때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소그룹 단위로 복음을 전하도록 의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로버트 스타인(Robert H. Stein)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마도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수가 두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구약 요건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입증될 수 없지만, 아마도 이것과 또한 다른 고려들이(상호 보호, 설교할 때의 지원, 정신적 지지, 동료애 등)에 모두 일조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관습은 사도행전 8장 14 절, 9장 38 절, 11장 30 절, 13장 1-3 절, 15장 22 절과 39-40 절, 고린도전서 9장 6 절과 70 인을 보내는 복음서에 나온다.⁵¹⁾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은 소그룹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열두 제자의 경험을 토대로 초대교회에도 소그룹 단위의 전도 유형이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초대교회와 소그룹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설립 및 확장에 따라 다양한 소그룹 유형이 발견되는데,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가장 먼저 발견되는 소그룹은 사도행전 1장 12-14 절에 등장한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행 1:13). 누가는 열한 제자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행 1:14)”라고 기록한다. 유상섭은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 대해 “정확하게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사도들과 120 제자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이다……이

50) John Nolland, 「WBC 성경주석-누가복음」, 김경진 역 (서울: 솔로몬, 2003), 760.

51) Robert H. Stein, 「마가복음」,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405-6.

장소는 사도행전 12:12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다.⁵²⁾ 그리고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사도행전 1장 15절을 근거로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일백 이십 명이라고 말하며, 특히 14절에 언급된 ‘여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들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그의 남편은 헤롯의 왕실을 관리했다) 그리고 수산나를 의미할 것이다. 이들은 누가복음서에서,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였으며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및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즉,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섬겼다’고 거명하고 있는 삼인조이다.⁵³⁾

다시 말해 다락방에 모인 일백 이십 명의 무리 안에는 베드로가 리더인 열한 명의 제자 소그룹과 최소 네 명 이상의 여제자 소그룹을 포함한 여러 개의 소그룹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찰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l)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한다.⁵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모인 일백이십 명의 성도들은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기도에 힘썼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47절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다락방에 모여 있던 일백이십 명의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행 2:4).” 이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교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선포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라고 말하며 묻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행 2:38)고

52) 유상섭, 「분석 사도행전1」(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77-8.

53) John R. W. Stott,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역(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54.

54) Charles R. Swindoll, 「사도행전」, 이종록 역(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23.

권면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게 되었다(행 2:41).

조용기는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어떻게 첫날에 3천명의 개종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는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충족 받았다”라고 주장한다.⁵⁵⁾ 존 칼빈(John Calvin)은 “(누가가) 그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도하며 그들을 칭찬한다. 즉 그들은 사도들이 해주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교회라는 한 몸에 접붙임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⁵⁶⁾ 이어서 칼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행 2:46)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성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개인적인 관심사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얻고자 늘 성전에 있었던 것이다.……누가는 그들이 늘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되,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누가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어구를 덧붙이고 있는 것도 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다.⁵⁷⁾

유상섭은 “46a절은 교회의 대그룹 모임을, 46b절은 교인들의 각 가정에서 있었던 소그룹 모임을 각각 그려준다. 이 두 모습은 예루살렘교회의 모든 교인이 대그룹 모임뿐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모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한다.⁵⁸⁾ 반면에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 Jones)는 “신자들이 처음에 성전에 간 것은 그렇게 하도록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며, 성전에서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임은 서로의 집에서 모이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한다.⁵⁹⁾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15절이다. 바울은 실라를

55) 조용기, 「희망목회 45년-구역 소그룹 부흥 이야기」(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76.

56) John Calvin, 「칼빈주석: 사도행전」, 신윤수 역 (교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111.

57) Ibid., 117.

58) 유상섭, 「분석 사도행전1」(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141-2.

59) Martyn L. Jones, 「진정한 기독교」, 전의우 역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사람, 2008), 312-3.

수행원으로 선택하고 일차 전도여행 지역을 둘러본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행 16:13-14).” 그 이후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행 16:15)”라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즉 루디아의 집은 바울이 개척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윌리엄 윌리먼(William. H. Willimon)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이 그 여자의 친절한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그 여자의 집에 머물기로 동의한 사실은, 때때로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거나 회당 안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놓는 장벽이 교회 안에는 없음을 보여준다. 루디아는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자유롭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여자를 자매로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⁶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행 16:40) 그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난다. 조병수는 “이것은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가정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한다”라고 말한다.⁶¹⁾ 그러므로 루디아의 집에서 형성된 빌립보 교회는 소그룹의 형태로 모였을 것이고, 귀신 들렸다가 치유 받은 여종을 비롯하여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성원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이해하기 위한 네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5-11 절이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사역하던 중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부부를 만나 천막을 만드는 일을 동업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자 바울은 사역의 대상을 이방인에게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었다(행 18:7). 브루스(F. F. Bruce)는 ‘디도 유스도’에 대하여 “이러한 로마식 이름과 성은 그가 로마 시민이요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로마의 한

60) William. H. Willimon,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사도행전」, 박선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207.

61) 조병수, 「사도행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317.

식민지로 만들었던 당시, 고린도에 정착했던 로마인 가문들의 한 가족의 일원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말한다.⁶²⁾

누가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행 18:8)라고 말함으로써 디도 유스도의 집을 중심으로 고린도교회가 크게 성장했음을 알려준다. 박수암은 그리스보에 대하여 “라틴 이름을 가졌으나, 그가 회당장인 것을 보면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그의 개종은 고린도 전도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한다.⁶³⁾

스토트는 “회당에서 개인 집으로,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로 옮기겠다는 대담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것(8 절)을 통해서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환상(9-10 절)과 로마 관원들의 태도(12 절 이하)를 통해 곧 하나님에 의해 정당함이 입증되었다”라고 주장한다.⁶⁴⁾ 그러므로 고린도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는데, 이 집에서 바울이 소그룹 모임을 이끌며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행 18:11)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이해하기 위한 다섯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0 장 17-21 절이다.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개척한 이후 3년간 목회하다가 3 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행 20:17), 그들에게 목회적인 당부를 한다. 스토트는 “에베소교회에는 분명 장로-감독들의 팀이 있었다……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가정교회들을 감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들에 따라 전문적 사역들을 하는,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양떼를 목양하고 돌보는 일을 나누는 하나의 팀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다.⁶⁵⁾

62) F. F. Bruce, 「사도행전(하)」, 김재영, 장동민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150.

63) 박수암, 「신약주석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15.

64) John R. W. Stott,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355.

65) Ibid., 386.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행 20:20)라고 말한다. 바울은 지금 ‘공중’과 ‘집’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대그룹 모임과 더불어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박수암은 “바울은 에베소 선교 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전파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도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말한다.⁶⁶⁾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연구하기 위한 본문은 골로새서 4장 12-17 절이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인사를 나누면서 에바브라를 언급한다. 바울은 “그(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골 4:13)고 말한다. 피터 오브라이언(Peter T. Obrien)은 에바브라에 대하여 “골로새 출신으로서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으며 또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아마도 거기서 바울에 의하여 파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한다.⁶⁷⁾

이어서 바울은 누가와 데마의 안부를 전한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눘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골 4:15)”고 부탁한다. 윌리엄 맥도날드(William Macdonald)는 “사본들이 눘바스(남자)와 눘바(여자) 중 어느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골로새에 있는 그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⁶⁸⁾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은 골로새서 4장 15 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것은 1 세기의 교회 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간접 정보를 제공한다. 즉 문안의 전달과 편지의 공유가 나타내듯이(4:16; 살전 5:27), 교회들은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 또 다른 간접 정보는 신자들이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것에 대한 서술이다. 교회는 3 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재산을 소유하고 공적인 예배 장소들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신자들이 예배를 자기들의 집에서 개방했던 것이다.⁶⁹⁾

66) 박수암, 「신약주석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54.

67) Peter T. Obrien, 「WBC 성경주석-골로새서/빌레몬서」,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8), 442.

68) William Macdonald, 「신자성경주석-골로새서/테살로니가서」, 조성훈, 김대영 역 (고양: 전도출판사, 1999), 123.

69) Grant Osborne, 「적용을 도와주는 빌립보서/골로새서/빌레몬서」, 전광규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341.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골 4:18)고 말한다. 랄프 마틴(Ralph. P. Martin)은 “분명 그는 빌레몬 가족에 속한 사람이며(문 2) 골로새에서 어떤 목회적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아킵보의 직분은 이 편지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직무보다는 교회를 하나되게 유지시키는 책임을 지니고 있어 보인다”라고 말한다.⁷⁰⁾ 골로새교회는 바울이 에바브라를 파송하여 세운 교회였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인근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헌신했다. 그리고 골로새교회에는 아킵보와 같은 동역자들이 에바브라와 더불어 목회적 사명을 감당했고, 라오디게아교회는 놈바와 같은 소그룹 리더들이 그들의 집을 모임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및 골로새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락방 또는 집에서 모여 왔으며,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신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소그룹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말씀하셨다. 고든 웬햄(Gordon J. Wenham)은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절을 삼위일체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왔다”고 서술한다.⁷¹⁾ 한편 칼빈은 “하나님께서……인간 창조에 대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의하신다.……하나님께서 인간을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 상의하신 것이다”라고 말한다.⁷²⁾ 즉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인간 창조에 대해 서로 논의하셨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라는 복수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안에서의 공동체적 사역을 의미하므로, 소그룹의 신학적 기초를 이룬다. 아이스노글은

70) Ralph. P. Martin,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에베소서/골로새서/빌레몬서」, 김춘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85-6.

71) Gordon J. Wenham, 「WBC성경주석-창세기(상)」,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6), 121.

72) 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창세기1」,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원, 1999), 69.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그룹의 신학적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그룹들은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실제로 반영하게 된다. 소그룹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파괴적인 인간의 제도를 투사하는 기본 무대인 것이다. 크고 작은 인간의 모든 모임은 비인간적인 구조를 철저히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구속적 관계를 밝히 보여줄 것인가 하는 긴장 가운데 놓여 있다. 성경 말씀에 따라 모든 소그룹들은 그들의 근원과 목적을 성찰해야 한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 회상을 하는 것은 곧 인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소그룹의 존재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⁷³⁾

마태복음 16 장 16-18 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 나타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고백한다.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N. Ridderbos)는 베드로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의 초점인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이 때문에 그분의 외적인 낮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가지신 독특한 관계를 지칭한다. 그리스도로서 그는 특별한 위엄의 담지자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⁷⁴⁾

리델보스는 베드로의 고백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공동체적 연합과 친밀성을 전제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셨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이곳과 18 장 17 절에서만 두 번 등장한다. 데이비드 터너(David Turner)는 “예수가 제자들의 미래 공동체를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모으신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풍부한 유산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한다.⁷⁵⁾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73) Gareth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출판부, 2007), 26-7.

74) Herman N. Ridderbos, 「마태복음(하)」,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0), 478.

75) David Turner, 「마태복음」,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527.

신앙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시며, 이 새로운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공동체적 친밀함을 반영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신 것이다.

소그룹의 신학적 근거를 위한 세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7 장 20-22 절이다. 요한복음 17 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7 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은 제자들의 하나 됨이었다. 예수님은 20 절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언급하시는데, 백예철은 이들이 “말씀을 받아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⁷⁶⁾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열두 제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 즉 신약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신약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는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1-22)”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신약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되기를 원하셨다.

안드레아스 쾨스텐베르거(Andreas J. Kostenberger)는 “신자들의 ‘온전한’ 하나 됨은 하나님의 하나 됨에 들어감에서 말미암으며”라고 말한다.⁷⁷⁾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브루스는 “그가 하나 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 됨은 사랑의 연합이다. 사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⁷⁸⁾

예수님이 기대했던 신약교회의 하나 됨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장 24-27 절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한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76) 백예철, 「요한복음(하)」(서울: 성광문화사, 1990), 809.

77) Andreas J. Kostenberger, 「요한복음」, 신지철, 전광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632.

78) F. F. Bruce, 「요한복음」, 서문강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3), 584.

하셨느니라……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4-27)고 말한다. 칼빈은 바울이 언급한 ‘지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더 깊이 고찰할 때에 나는 오히려 그것이 바울이 이미 언급하였던 지체들 가운데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그 자신의 몫과 또 정확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지체들인 것이다. 그 문맥 자체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⁷⁹⁾

칼빈은 몸의 지체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리처드 헤이스(Richard B. Hays)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몸을 다양성이 필수적인 상호 의존의 유기체로 구성하셨기 때문에, 지체들 간의 차이는 분열로 유도되지 말고,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는 협력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⁸⁰⁾ 즉 몸의 각 지체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친밀한 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세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⁸¹⁾ 김세윤은 교회의 하나 됨의 근거를 예수님 안에서 찾은 것이다. 이와 같은 교회의 상호 의존적 하나 됨은 지역교회 전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인격적으로 상호 연결된 친밀한 공동체는 오직 소그룹 안에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 의존적인 돌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기초를 둔 몸으로서의 교회론은 소그룹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역사적 근거에 대한 연구

소그룹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연구는 초대교회시대, 중세교회시대, 종교개혁시대,

79) 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고린도전서」,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원, 1999), 368.

80) Richard B. Hays,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고린도전서」, 유승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359.

81)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324.

근현대교회시대로 구분하여 각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소그룹 유형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i) 초대교회시대와 소그룹

후스토 곤잘레스(Justo L. Gonzalez)는 “콘스탄틴 시대까지 기독교 예배는 비교적 단순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집에 모여 예배드렸다. 그 후 로마의 지하묘지와 같은 공동묘지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한다.⁸²⁾ 채이석은 “기독교 초기 가정에서 모인 소그룹 모임의 규모는 가옥 구조상 보통 12명 정도가 적절한 인원으로 보인다.……초대교회는 대그룹 중심에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한다.⁸³⁾ 웨인 믹스(Wayne A. Meeks)는 “바울의 회중들은…… ‘소공동체’(small group) 또는 간단하게 ‘공동체들’(groups) 등으로 불리어진다.……바울 공동체들의 회집 장소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그랬을 것인데, 개인의 집들이었다.……그리고 새로운 개심자들은 기존의 집안 공동체들에게 확실히 더하여지곤 했다. 더욱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수장이 된 집안에 형성된 공동체들도 있었다”라고 말한다.⁸⁴⁾

콘스탄틴이 회심한 이후 초대교회의 모임 장소에 변화가 생겼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제국의 중요한 도시에는 어떤 경우에는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또 다른 경우에는 새 수도의 모양을 본 뜬 유사한 건축 양식의 교회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장대한 교회를 지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한 콘스탄틴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었다”라고 말한다.⁸⁵⁾ 따라서 초기 집에서 모이던 초대교회는 예배를 위해 별도로 구별된 장소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소그룹 모임이 약화되었다.

ii) 중세교회시대와 소그룹

중세교회의 소그룹은 수도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박용규는 4-5 세기에 등장한 “수도원 운동으로……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수도사들은 세상을

82)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12), 212.

83)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52.

84) Wayne A. Meeks, 「바울의 목회와 도시 사회」, 황화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35-8.

85)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214.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수도사의 첫째 목적이 그 자신의 구원에 있었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⁸⁶⁾ 서요한은 중세의 수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시 수도원은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 각각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동방 수도원은……소위 자기 부인이라는 전제 아래 육체를 징벌하는 등의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독한 은둔 생활을 이상적으로 취급하였다.……동시에 이들은 공동체 생활로 경험자들의 모범들을 함께 나누며 형제의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이와 달리 서방은 영혼과 함께 육체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은둔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였다.⁸⁷⁾

이와 같이 중세의 수도원은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는데, 채이석은 “수도사들이 작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리더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수도원 공동체에서도 소그룹을 통해서만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⁸⁸⁾ 이와 같이 중세교회시대의 소그룹은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구원과 영성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iii) 종교개혁시대와 소그룹

폴 알트하우스(Paul Althaus)는 “루터는 형제들의 중보 기도를, <슈말칼트 조항>에 있는 대로, 돕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위로하는 목회적 말씀 곧 ‘형제들의 상호 대화와 위로’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 이러한 참여가 개인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한다.……형제가 서로 제공하는 도움은 그들 자신이 알고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을 훨씬 넘어선다”라고 말한다.⁸⁹⁾ 채이석은 “루터는 <독일 미사와 예배 규범>에서 새로운 예배형태로써 ‘제 3의 형태’라고 하는 교회 안의 교회 개념을

86) 박용규, 「초대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6), 506.

87) 서요한, 「중세교회사」(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637.

88)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61.

89) Paul Althaus,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337-8.

제시하였다”라고 말한다.⁹⁰⁾ 루터는 기존 교회와 함께 제 3의 형태가 교회 안에 공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제 3의 형태’ 예배의 특징은 비공식성, 비강제성, 소공동체성, 가정교회적 성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서요한은 재세례파의 신앙적 특징을 정리하면서 “첫째로, 이 운동은 14세기 말과 15세기 초반부터 내려온 지속적인 작은 기도모임에서 시작되었다.……둘째로, 이 운동의 핵심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세례로부터 평화스런 분리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탄 공동체를 정착시키려 하였다”라고 말한다.⁹¹⁾ 이광수는 “루터의 제 3 형태와 재세례파 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그 당시에 성공적인 모형을 창출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17-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에 이어졌으며, 새로운 소그룹 회복운동은 여기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한다.⁹²⁾ 그러므로 종교개혁시대의 소그룹은 교회의 사역에서 주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근현대교회시대의 소그룹 운동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iv) 근현대교회시대와 소그룹

필립 야곱 스페너(Philipp Jakob Spener)는 루터교 귀족 가문 출신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했는데, 곤잘레스는 “그는 이곳에서 그가 ‘경건의 모임’이라고 부른 성경공부 및 경건 모임을 설립했다.……이것은 평신도들의 열정적인 경건생활과 성경공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페너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의 ‘경건의 모임’과 같은 소그룹 운동을 제안했다”라고 말한다.⁹³⁾ 제럴드 크랙(Gerald G. Cragg)은 스페너에 대해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교제의 중심으로써 ‘경건의 모임’을 만들었다. 신앙적 삶을 증진시키는 것은 성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과제이기도 하였다”라고 말한다.⁹⁴⁾

90)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70-1.

91) 서요한, 「종교개혁사」(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3), 586-7.

92)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0), 65.

93) Justo L. Gonzalez, 「현대교회사」, 엄성욱 역(서울: 은성출판사, 2012), 134.

94) Gerald G. Cragg and Alec Viddler, 「근현대교회사」, 송인설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101.

심창섭은 “프랑케(August Hermann Franke)는 스페너의 뒤를 이어 경건운동을 이끈 주도적 인물로 지성과 재능을 겸비한 인물이다. 그는 할레 대학의 교수가 되어 할레 대학을 경건운동의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켰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열의를 가졌다”라고 말한다.⁹⁵⁾ 채이석은 “프랑케는 1686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책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스페너가 시작한 소그룹 모임을 모방하여 시작한 것이었다”라고 말한다.⁹⁶⁾ 이와 같이 독일 경건주의를 이끈 스페너와 프랑케는 소그룹 모임을 중심으로 개인의 경건생활 및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력은 니콜라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Nikolas Ludwig Zinzendorf)의 모라비안 공동체와 존 웨슬리(John Wesley) 중심의 영국 복음주의에도 미치게 되었다. 박용규는 진젠도르프를 경건주의 운동의 또 다른 지도자로 표현하며 “경건주의 운동이 하나의 교회 조직 형태로 정립된 것은 그에게 와서이다.……진젠도르프는 3년 후 헤른후트 형제단과 공적인 관계를 맺은 후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감독이 되었다”라고 설명한다.⁹⁷⁾ 채이석은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안 교인들을 작은 그룹(band)으로 편성하여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영적으로 돌아보며 격려하게 하였다.……소그룹으로 모일 때 서로 나누게 하고 영적으로 씨름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다”라고 말한다.⁹⁸⁾ 크랙은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확장에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헤른후트의 인력과 경제력은 제한되어 있었으나, 18세기 말에 이르러 모라비안들은 세계 모든 곳에 선교 기지를 세웠다”라고 평가했다.⁹⁹⁾ 즉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공동체는 개인적 체험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도 헌신했던 것이다.

한편 임도건은 영국에서의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95) 심창섭, 「근현대교회사」(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5), 149.

96)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95.

97) 박용규, 「근대교회사」(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207-8.

98)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101.

99) Gerald G. Cragg and Alec Viddler, 「근현대교회사」, 송인철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102-3.

당시 영국에서도 경직된 정통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는데……이 단체들의 목적은……오히려 굳어진 교회의 예배를 작은 모임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그리고 신앙체험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데 있었다.……이런 동기로 감리교주의가 1702년 사무엘 웨슬레에 의해 앵워드에서 시작되었다. 수년 후 그의 아들들인 요한과 찰스는 서로의 공부를 돕자는 취지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의 방향은 스페너가 주장한 ‘경건자 모임’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학문과 연구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거룩한 모임(Holy Club)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경건 추구에 열심이었고 나중에는 방법론자란 의미의 감리교주의자가 되었다.¹⁰⁰⁾

곤잘레스에 따르면 “웨슬리 추종자들은 ‘신도회’(society)들을 조직하여 처음에는 개인 집에서, 후에는 자체 건물에서 모였다. 감리와 신도회들이 크게 성장하여 회원들을 효과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되자 웨슬리는……이들을 11 명의 회원과 지도자 1 명으로 구성된 ‘속회들’(classes)로 조직했다. 이들은 매주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 문제를 논하고 헌금을 거두었다.”¹⁰¹⁾ 이와 같이 웨슬리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소그룹 중심의 목회를 했다.

3) 20 세기 소그룹 운동과 한국교회

여기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20 세기 소그룹 운동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전수되어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1) 20 세기 소그룹 운동

로버트 포스터(Robert D. Foster)는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이 “1934년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는 모토와 함께 네비게이토라는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한다.¹⁰²⁾ 그 이전에 트로트맨은 1933년 4월에 레스 스펜서라는 수병에 대한 일대일 양육을 시작했으며, 그 이후 “도슨은 언제나 개인적으로가 아니면 소그룹으로 사역을 해왔다.”¹⁰³⁾ 왜냐하면

100) 임도건, 「근대.현대 교회의 역사와 신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3.

101) Justo L. Gonzalez, 「현대교회사」, 엄성욱 역(서울: 은성출판사, 2012), 147.

102) Robert D. Foster, 「불타는 세계 비전」, 조성동 역(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2), 14.

103) Ibid., 123.

그는 인격적인 만남과 나눔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옥한흠은 트로트맨의 일대일 양육 및 소그룹 훈련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20 세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개척자 도슨 트로트맨이 예수님의 대사명(마 28:18-20)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후에, 그를 통해 복음주의 선교 기관은 물론이고 기성교회에까지 제자화 운동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은 단순히 ‘전도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트로트맨이 기독교 저변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¹⁰⁴⁾

라이먼 콜먼(Lyman Colman)은 1962년에 세렌디피티 하우스(Serendipity House)라는 소그룹 전문사역기관을 설립하였다. 채이석은 그가 “1950년대 초 텍사스 베일러 대학을 다닐 때 네비게이토 창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한다.¹⁰⁵⁾ 콜먼은 채이석과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다:

초기에는 젊은이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매우 방법론적이고 도구적으로 이 지역에서 커피하우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60년대 초반에는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커피하우스를 통하여 그 문을 개방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를 순회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70년대에는 이것을 장년 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교회들이 장년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그룹이라는 방법으로 교회성장운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영적 스승을 갖는 특권을 누리었습니다. 제 아버지, 저의 형 로버트(Robert Coleman), 도슨 트로트맨, 그가 살해되었을 때 저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에서 그의 짐을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¹⁰⁶⁾

콜먼은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그룹 운동이 지역교회에 접목되도록 도왔으며, 결국 소그룹 운동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른 것이며 교회성장의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의 사역을 통해

104)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21-2.

105)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126.

106)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라이먼 콜먼과의 대화”[온라인 자료]
http://www.smallgroup.co.kr/board/list.php?page=3&code=old_data, 2018년 2월 24일 접속.

증명했다. 또 다른 20세기 소그룹 운동은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IFES(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와 CCC(Campus Crusade for Christ)이다. IFES는 194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준비모임을 거쳐 1947년 세계 10개국 복음주의 학생운동의 대표들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모여 탄생을 선언하며 만들어졌다.¹⁰⁷⁾ IFES는 대학생들이 개인 성경연구와 기도의 훈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리더들을 양육하여 멤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캠퍼스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도전한다. 한국기독교학생회(IV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는 조동진 목사에 의해 1953년에 시작된 한국대학생 복음연맹이 모태가 되었는데, 이 모임에 속해 있던 이정윤이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유학하고 1956년에 귀국하여 국제적인 교류가 시작되었고 1959년에 IFES에 가입하였다.¹⁰⁸⁾

나일선은 CCC가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학가를 휩쓴 허무주의와 도덕적 퇴폐성을 개탄하고,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 인간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 전도, 육성, 파송이라는 3중 목적을 가지고, 1951년 미국의 윌리엄 브라이트(William R. Bright)에 의해 창립되었다”라고 말한다.¹⁰⁹⁾ 한국에서는 1958년에 김준곤 박사에 의해 한국대학생선교회(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대학별 순모임을 통해 전도와 양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스티비 바커(Stevie Barker)는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의 장점들을 인용하면서 “소그룹은 복음 전도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만일 교회가 그 주변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 교회에 있는 소그룹의 참다운 형제에는 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¹¹⁰⁾ 한편 론 니콜라스(Ron Nicholas)는 사도행전 2장 42-47절을 근거로 하여 “당시의 신자들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 즉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선교에 힘썼다”라고 말하며 그 중에서 “선교(mission)는 생명력이 넘치는 소그룹 활동의 네 번째 요소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존재하는 것은, 나가서 그리스도의

107) 한국기독교학생회, “IFES 소개”[온라인 자료] <http://www.onivf.com/info>, 2017년 12월 5일 접속.

108) Rindsay Brown, 「역사를 바꾼 복음주의 학생운동 이야기」, 김중호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271.

109) 나일선, 「한국교회 선교단체, 선교훈련원 및 선교사 일람」 (서울: 도서출판 바실래, 1989), 152.

110)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6), 23-4.

사랑의 기쁜 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하였다.¹¹¹⁾ 그리고 니콜라스는 네 가지 요소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선교와 관련하여 “진정한 예배는 선교 의식을 일으킨다.……양육은 선교에 힘을 불어넣는다.……선교는 공동체적 교제를 강화시켜준다.……공동체적 교제가 강력해야 커다란 선교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¹¹²⁾ 그러므로 21 세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그룹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2) 한국교회의 소그룹 운동

한국교회는 조용기가 1964 년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구역 모임을 조직한 이후부터 소그룹 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 년대 초반에 서울의 내수동교회 대학부, 성도교회 대학부, 사랑의교회 대학부와 청년부 등에서 선교 단체의 역동성을 교회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¹¹³⁾ 또한 1990 년대에 이르러서는 셀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유형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광수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역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했으며, 구역장을 통하여 만인제사장직을 구현했다. 교회 성장의 중심에는 구역이라는 독특한 소그룹 조직과 구역장이라는 사역자들이 있었다.……구역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평가한다.¹¹⁴⁾ 이광수는 구역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웨슬리의 ‘속회론’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웨슬리의 구역 목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교회의 구역 목회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라고 정리하였다: 첫째,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도이다. 둘째, 구성원들을 위한 친교와 신앙 성장이다. 셋째, 구성원들이 속한 세상을 위한 전도와 봉사이다.¹¹⁵⁾

111) Ibid., 26-30.

112) Ibid., 42-4.

113) 채이석 외, 「건강한 소그룹 목회 컨설팅」(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5.

114)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112.

115) Ibid., 113-4.

육한흠은 1978년에 서울 강남지역에서 사랑의교회를 개척하였다.¹¹⁶⁾ 그는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한 평신도 사역자를 다락방의 순장으로 파송하였다. 다락방은 순원들의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과 다락방을 중심으로 교회성장을 이루었고, 칼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그룹 사역을 소개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이르러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가 한국을 방문하여 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상화는 한국교회에서의 셀에 대한 관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자훈련이라는 훈련체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전반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말에는 “셀”이 등장하여 유행하기 시작했다. 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네이버를 한국에 초대하여 셀교회 컨벤션을 열자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 참석하여 “셀”의 열풍을 일으켰다. “셀”이라는 말은 결국 소그룹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만, “셀”이라는 말에는 랄프 네이버의 교회관이 포함된 독특한 소그룹이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그룹이라 하지 않고 “셀”이라는 단어를 고유어로 사용한 것이다.¹¹⁷⁾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는 셀그룹 모델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채이석은 “가정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에서처럼 지역중심의 소그룹이 아닌 관계중심적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 전체의 일이 좌지우지 되고 있지만, 가정교회에서는 소그룹이 우선이고 소그룹원들이 언제나 우선이다”라고 말한다.¹¹⁸⁾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최영기이다.

최영기는 가정교회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가정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합쳐진 것이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요, 교육이요, 교제요, 전도와 선교다. 가정교회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을 다하는 공동체”¹¹⁹⁾

116) 사랑의교회는 1978년 7월 23일(일)에 강남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되었고, 1981년 9월 6일(일)에 사랑의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117) 이상화, “셀 이해를 위한 소그룹사역 조망,”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45.

118)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127.

119)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서울: 두란노서원, 2015), 29.

이와 같이 한국교회 소그룹 운동은 구역모임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21세기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교회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리더를 위한 전문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요약

소그룹은 헤스테네스가 정의한 대로 의도적이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3-12명 정도의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며, 소그룹의 공통 목적에는 전도가 전제되어 있다.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를 위해 먼저 구약시대의 소그룹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및 수문 앞 광장의 청중 등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발견되는 소그룹은 마태의 집에서의 소그룹과 열두 제자의 소그룹이 대표적인데, 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전도지향적 특징을 보여준다.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열한 사도가 중심이 된 백이십 명의 제자들 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며,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성도들을 흡수했다. 한편 초대교회가 확장되면서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의 집, 에베소의 아굴라의 집, 라오디게아의 늬바의 집 등에서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였다.

소그룹의 신학적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교회론에 기초한다. 소그룹 안에서 구성원 간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핵심 요소이다.

소그룹의 역사적 근거는 초대교회시대부터 근현대교회시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확인된다. 초대교회시대에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별도의 건물이 지어지면서 소그룹이 약화되었다. 중세교회시대에는 수도원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가 개인 영성 함양을 위해

존재했다. 종교개혁시대에는 루터와 재세례파에서 소그룹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다. 근현대교회시대에는 스페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웨슬리 등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20세기 소그룹 운동은 도슨 트로트맨의 네비게이트, 라이먼 콜먼의 세렌디피티, 윌리엄 브라이트의 CCC 등의 선교단체 및 복음주의 학생운동을 통해 재발견되어 소그룹 구성원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전도에 힘쓰는 사명을 감당했다. 한국교회에서는 조용기의 구역모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락방, 셀, 가정교회 등의 다양한 소그룹 운동이 진행되어 왔으며, 21세기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그룹이 주목을 받고 있다.

2. 전도에 대한 이해

1) 전도의 정의

일반적으로 지역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으로 인정하고 전도를 위한 성경적 기초로 삼는다. 로버트 콜만(Robert Coleman)은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는 것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개심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 즉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매여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¹²⁰⁾

1974년 로잔회의에서는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자유케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²¹⁾ 조은태는 ‘복음전도’라는 명사로 된 단어는 성경 전체에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영어로도 복음전도(Evangelism)라는 단어가 없었으나

120)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118-9.

121) David Watson, 「복음 전도」, 박영호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32.

17 세기에 와서 비로서 생기게 되었다고 말한다.¹²²⁾ 하지만 신약성경에는 복음전도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오토리(C.E. Autrey)는 복음전도의 의의를 기쁜 소식 즉 복을 전한다는 뜻을 가진 ‘유앙겔리조’(막 1:15),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의미의 ‘케루소’(마 4:23),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여 가르친다는 뜻의 ‘디다스코’(마 9:35),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는 뜻의 ‘말투스’(행 1:8),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뜻의 ‘마세테스’(마 28:19) 등의 헬라이어 단어를 통해 설명한다.¹²³⁾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전도라는 용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깨닫고 믿음과 제자됨을 통하여 응답하게 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모든 노력을 포괄한다고 말한다.¹²⁴⁾ 존 테리(John Terry)는 복음 전도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제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²⁵⁾ 스토트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회심과 함께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예배를 향한 서곡으로 본다고 말하며, 복음 전도자는 구원받은 회심자에게 주어질 유익을 넘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¹²⁶⁾

이명희는 복음 전도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 채 심판과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¹²⁷⁾ 조은태는 델로스 마일스(Delos Miles)의 견해를 인용하여 복음전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각 사람들과 사회의 조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존재하도록 하며(being), 행하게 하며(doing), 말하게

122) 조은태, 「전도학 총론」 (서울: 타문화권목회연구원, 1995), 30.

123) C.E. Autrey, 「기본 전도학」, 정진황 역(서울: 침례회출판사, 1976), 35-8.

124) Billy Graham, 「전도자의 선언문」, 김준식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62.

125) John Terry,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김태곤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10.

126) John R. W. Stott, 「존 스토트의 복음 전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1), 37.

127) 이명희, 「현대전도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하기서원), 2013), 374.

하는(telling) 것이라고 정의한다.¹²⁸⁾

이상과 같이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과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전도의 유형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래 이후 지금까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도 유형을 사역에 적용해왔다. 이명희는 교회가 전도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회적인 전도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¹²⁹⁾ 첫째, 전도훈련 프로그램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전도폭발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제시형 전도법이며 관계전도의 원리를 접목시키고 있다. 둘째, 축호전도와 노방전도이다.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는 미국의 제 2 차 대각성운동 시기부터 본격화했던 방식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1960-70 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효과적인 전도법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총동원 전도이다. 총동원 전도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전도법으로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그날 모든 사람들을 데려 오도록 하며 전교인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조한다. 넷째, 소그룹 전도이다. 소그룹 전도는 교회 내 소그룹에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대접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복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도 특공대이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약 10 퍼센트의 교인들만 전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발굴하여 전도하는 방법이다.

한편 조은태는 전도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며, 다양한 전도 유형과 방법을 소개한다.¹³⁰⁾ 먼저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족전도, 친구전도, 축호전도, 군인전도,

128) 조은태, 「전도학 총론」(서울: 다문화권목회연구원, 1995), 148.

130) Ibid., 70-6.

100) Ibid., 332-390.

경찰전도, 수감자전도, 어린이전도, 청소년전도, 장애인전도, 외국인전도 등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학교전도, 직장전도, 병원전도, 캠퍼스전도, 농어촌전도, 도시전도, 아파트전도, 양로원전도 등으로 전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방송전도, 문서전도, 음악전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영옥은 한국교회에 맞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태신자 운동을 제안한다.¹³¹⁾ 즉 전도적 은사가 없는 90%의 교인들도 동참하는 복음전도를 위해, 40% 정도의 교인들이 태신자를 걱정하고, 나머지 60%의 교인들은 기도사역에 동참하게 한다. 그리고 교인들이 주로 가족, 이웃, 친구 등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태신자를 걱정하도록 하는데, 교인들이 일정기간을 두고 집중적인 관심과 기도로 전도하며 태신자의 교회 등록 및 양육까지 책임지도록 독려한다.

로버트 콜만은 오늘날의 전도 방법론의 문제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의 지혜로 계획한 의식과 프로그램, 조직체, 회의, 전도 집회 등으로 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고상한 노력들을 낮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다면 교회는 지금처럼 활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실행하신 개인적 선교 원리가 모든 계획의 정책과 구조 속에 생명력 있게 통합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당한 모습으로 작용할 수 없다.¹³²⁾

다시 말해 콜만은 지역교회가 어떤 전도 유형과 방법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도의 유형은 다양한 전도 대상과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에 따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

3) 요약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초로 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변화와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과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131) 김영옥, 「21세기 전도전략」(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39-42.

132)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123.

전도의 유형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소결론

소그룹은 의도적이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3-12 명 정도의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며, 소그룹의 공통 목적에는 전도가 전제되어 있다.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로서 구약시대의 소그룹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및 수문 앞 광장의 청중 등이 대표적이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발견되는 소그룹은 마태의 집과 열두 제자와 관련되며, 모두 전도지향적 특징을 보여준다.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열한 사도가 중심이 된 백이십 명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가정 소그룹이 핵심이며, 초대교회가 확장되면서 루디아의 집, 디도 유스도의 집, 아굴라의 집, 늬바의 집 등에서 전도지향적 소그룹이 발견된다.

소그룹의 신학적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교회론이다. 소그룹 안에서 구성원 간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소그룹의 역사적 근거를 정리하면, 초대교회시대에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소그룹이 약화되었고, 중세교회시대에는 수도원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가 개인 영성 함양을 위해 존재했다. 종교개혁시대에는 루터와 재세례파에서 소그룹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고, 근현대교회시대에는 스펜서, 프랑케, 진젠도르프, 웨슬리 등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20 세기 소그룹 운동은 도슨 트로트맨의 네비게이트, 라이먼 콜만의 세렌디피티, 윌리엄 브라이트의 CCC 등의 선교단체 및 복음주의 학생운동을 통해 재발견되었다. 한국교회에서는 조용기의 구역모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락방, 셀, 가정교회 등의 다양한 소그룹 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변화와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과 과정이며, 전도의 유형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제 3 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 사례연구

2 장에서 소그룹과 전도에 대한 이해를 기술하였다면, 3 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소그룹 유형들을 운영하고 있는 4 개 교회의 소그룹 리더를 위한 양성 및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만남의교회, 신일교회, 화평교회, 사랑의교회이다. 이상의 4 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소속된 교회들로서 사랑의교회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주최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Seminar)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연합체인 칼넷(CAL-NET)의 회원교회들이다.

만남의교회는 소그룹을 구역 모임으로 운영하며, 신일교회는 소그룹을 목장 모임으로 운영하고, 화평교회는 소그룹을 가정교회 모임으로 운영하며, 사랑의교회는 소그룹을 다락방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4 가지 소그룹 유형에 해당된다. 본 연구자는 다음에서 각 교회가 대표하는 소그룹 유형의 특징을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체계와 전도훈련에 대한 사례연구를 할 것이다.

1. 만남의교회 구역 사례연구

1) 구역의 특징과 전도

구역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에 의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소그룹 유형이다. 조용기는 1964 년에 과도한 사역으로 인해 쓰러진 이후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사역적 위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때 조용기는 사도행전 2 장 46-47 절을 통해 초대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또, 사도행전 2 장 46 절부터 47 절을 읽었다.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모임이 있었다. 제자들은 성전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친교를 가지기 위해서 그들의 집에서 날마다 모였다.……거기에는 가정의 친교를 위해 보다 작은 그룹이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사도행전 6 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와 함께 하며 평신도 지도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임을 갖는 사역의 일을 분담해야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구역 모임인 것이다.¹³³⁾

그래서 조용기는 구역 모임을 조직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심방과 상담을 위임하였고, 대신에 자신은 평신도를 교육하고 지도하며 설교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결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최자실을 책임자로 하는 최초의 구역 조직을 이십 개 교구로 편성하였다.¹³⁴⁾

그런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구역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급격한 교회성장이 일어났다. 조용기는 “구역원들은 자신들의 이웃을 모임에 초대하고 있었으며, 그 이웃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만나고 있었다. 구역은 성장해 나갔고 세포가 분열되듯이 분할되어 갔다. 그러다 보니 구역에서 전도된 사람들로 인해 매 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라고 말한다.¹³⁵⁾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많은 한국교회는 구역 모델을 받아들여 교회 안에 소그룹 구조를 만들었다. 이광수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역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했으며, 구역장을 통하여 만인 제사장직을 구현했다. 교회 성장의 중심에는 구역이라는 독특한 소그룹 조직과 구역장이라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한다.¹³⁶⁾

김찬중은 구역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다.¹³⁷⁾ 첫째, 구역은 교인들의 거주지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조직한다. 왜냐하면 지리적 여건이 관계적 상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구역은 한 명의 구역장과 부구역장 그리고 약간의 임원을 둔다. 특히 부구역장은 구역이 성장하여 분가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한 구역은 다섯 명에서 열두 명, 혹은 세 가정에서 다섯 가정을 기준으로 한다. 한 구역장이 열두 명 이상을 돌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133) 조용기, 「희망목회 45년-구역 소그룹 부흥 이야기」(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74-5.

134) Ibid., 85-6.

135) Ibid., 88.

136)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112.

137) 김찬중, 「교회성장을 위한 구역 운영 지침서」(서울: 무림출판사, 1991), 122.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115에서 재인용.

조용기는 구역이 해야 할 역할을 전도를 위한 그물이라고 설명한다. 촘촘한 그물이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구역 조직이 체계적이고 튼튼할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⁸⁾ 조용기는 구역의 전도사역과 관련하여 구역이 전도의 전초기지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역 모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인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구역 모임에 가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따라 나선다. 구역 조직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구역 예배를 마치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이웃을 전도해야 한다. 이웃에 혹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감동을 받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해야 한다.¹³⁹⁾

조용기가 말하는 핵심은 구역이 불신자들을 교회로 쉽게 다가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구역에서 불신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들이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교회 성장의 열쇠는 교회가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는 데 있다”라고 말한다.¹⁴⁰⁾

2) 만남의교회의 사례

(1) 교회 설립 및 성장 과정

만남의교회는 정태수가 1980년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중앙성도교회를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만남의교회는 포이동과 양재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1998년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태수는 2015년 4월 원로목사로 은퇴하기까지 35년 동안 “교회는 항상 교인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회철학을 지켜왔다.¹⁴¹⁾ 이상화는

138) 조용기, 「희망목회 45년-구역 소그룹 부흥 이야기」, 215.

139) Ibid., 227.

140)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역 (경기: 도서출판 NCD, 1999), 35.

141) 만남의교회, “정태수 원로목사 인사말”[온라인 자료] <https://www.mannamchurch.org/front/F010301>, 2019년 9월 24일 접속.

정평수와 의 대답에서 “1980년 창립한 만남의교회는 선교, 교육, 구제, 봉사를 목적으로 복지와 환경, 구제와 사랑에 힘쓰고 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성숙한 성도를 배출함으로 이 사회와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¹⁴²⁾

정평수가 은퇴한 이후 만남의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나영진은 6가지 교회 비전¹⁴³⁾ - 가정을 회복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다음세대를 살리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 등 - 을 제시하며 만남의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 나영진은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소그룹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만남의교회의 구역은 남자 3개, 여자 17개, 부부 10개 등 총 3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역 모임의 중점은 말씀과 교제이다.

(2) 영적성장반을 통한 소그룹 리더 양성

만남의교회는 초신자를 위한 새가족교육을 5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새가족교육 이후 제자훈련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3주 과정의 영적성장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노방전도 1회와 봉사활동 1회가 포함되어 있다. 영적성장반의 교재는 국제제자훈련에서 발간한 「영적 성장의 길」을 사용하고 있다. 영적성장반은 오리엔테이션과 엠티(1박 2일)를 포함하여 실제로는 15주 과정으로 진행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나영진은 현재 장로 8명을 대상으로 1기 제자훈련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영적성장반을 수료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2기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만남의교회 영적성장반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42) 교갱뉴스,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만남의교회”[온라인 자료]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85>, 2019년 9월 24일 접속.

143) 만남의교회, “교회 소개 - 교회 비전”[온라인 자료] <https://www.mannamchurch.org/front/F010200>, 2019년 12월 21일 접속.

〈표 1〉 만남의교회 영적성장반 교육과정

구분		내용	참고 사항
1부 영적 성장의 터다지기	1 주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 오리엔테이션: 별도 진행
	2 주차	성경 연구와 묵상	
	3 주차	영혼의 호흡, 기도	
2부 믿음의 내용	4 주차	하나님은 누구신가?	* 노방전도: 1 회 실시 * 앰티: 별도 진행, 1 박 2 일
	5 주차	예수님은 누구신가?	
	6 주차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7 주차	성령님은 누구신가?	
	8 주차	구원이란 무엇인가?	
3부 성숙한 삶	9 주차	하나님 사랑	* 봉사활동: 1 회 실시
	10 주차	이웃 사랑	
	11 주차	인생의 목적	
	12 주차	영적 전투와 고난	
	13 주차	교회란 무엇인가?	

(3) 구역장모임을 통한 소그룹 리더 재교육

만남의교회의 구역장모임은 주일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역장모임은 담임목사가 인도하며 기본적으로 담임목사의 말씀양육과 구역장들의 사역 나눔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영진은 한 주 전의 주일예배설교를 구역 모임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주보를 통해 제공하는데 ‘결단 찬양, 마음 열기, 말씀을 나누며, 삶의 열매를 거두며, 기도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역장들은 구역장모임을 통하여 담임목사로부터 설교의 핵심 메시지와 더불어 적용 방안에 대해 배우며, 교회의 주요 사역에 구역원들과 함께 동참하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한다. 나영진은 구역 모임이 없는 방학 기간 동안에는 구역 모임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를 주보에 게재하는 것을 주일설교를 요약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표 2〉 만남의교회 구역장모임 시간계획

시간	프로그램	비고
1:00-1:10	찬양 및 기도	교구담당 교역자
1:10-1:40	설교요약 및 구역모임 가이드	담임목사
1:40-1:50	사역 보고 및 특별 순서	구역장, 사역팀장, 섬김이 등
1:50-2:00	광고 및 축도	담임목사

(4) 노방전도 중심의 전도사역

만남의교회는 아직 체계적인 전도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주는 교회, 베푸는 성도’라는 구호를 앞세워 전도팀이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방전도의 장소는 초등학교 앞과 교회 부근 사거리인데, 초등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주거나 행인들에게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교회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에게 휴식 공간과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도를 시도하고 있다.¹⁴⁴⁾ 만남의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으로 전도대상자를 초청하는 집회를 열고 있지만,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교회 정착률은 높지 않다. 앞으로 나영진은 구역모임을 전도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삼아 소그룹 전도를 추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3) 평가

(1) 구역에 대한 일반적 평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된 구역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봄으로써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한국교회에 소그룹 구조를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는 구역 모임을 통해 새신자가 친분을 중심으로 전도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이 오랜 걸린다는 것과 구역이 나누어질 때의 관계적 어려움을 한계로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구조 안에는 셀멤버를 통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새신자가 된 많은 이들은 셀에 합류하여 세 명이나 또는 더 많은 셀멤버들과 친밀한 교분을 쌓는다. ……이 구조는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요한다. 한편 셀멤버에 의한 복음전도를 통해 개종한 셀멤버가 지도력과 만날 때 이 구조에서 셀은 급속히 번식한다. ……여기서 불리한 점은 번식할 때 친밀해진 가까운 멤버들이 다른 셀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¹⁴⁵⁾

144) 만남의교회, “목요나눔 (무료)카페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 오픈”[온라인 자료] <https://www.mannamchurch.org/board/F050800/3/144?page=1>, 2019년 12월 20일 접속.

145) Ralph W.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320.

김덕수는 구역 모임이 단순한 예배모임으로 전락할 경우 친교 중심의 소그룹에 머무르게 되고, 전도와 양육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고 분석한다.

단점은 교안대로 움직이고, 끝나면 2부 순서로 친교를 하다 돌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 진정한 사역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많은 구역별 소그룹에는 전도와 양육과 돌봄은 별로 없다. 그저 구역예배만 드린 후 잠시 교체하고 돌아가면 그만이다. 리더 훈련은 간단한 신앙교육만 있을 뿐이다. 주로 교구 사역자들에게 보고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¹⁴⁶⁾

이와 같이 구역은 전도 지향적인 소그룹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예배와 교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체계적인 양육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그룹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기존의 소그룹을 분가하거나 해체하는 일에 많은 저항감을 나타내는 한계가 있다.

(2) 만남의교회에 대한 평가

만남의교회는 일반적 구역의 상황과 동일하다. 구역 모임을 통해 주일예배 설교를 반복적으로 나누지만 구역 모임의 중심은 교체이다. 교회 차원에서 양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제자훈련 과정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매주 노방전도를 중심으로 전도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전도훈련 없이 전도지와 차를 나누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구역 모임을 전도 지향적 소그룹으로 전환하고 구역장의 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2. 신일교회 목장 사례연구

1) 목장의 특징과 전도

정삼지는 “목장모임은 각 목장에서 일주일에 한번 목자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와 전도와 양육과

146) 김덕수, 「소그룹과 셀사역, 그리고 셀 교회로의 전환」(경기: 킹덤박스, 2011), 108.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소그룹 모임이다. 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간의 긴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라고 말한다.¹⁴⁷⁾

이권희는 “소그룹(목장)의 가장 큰 목표는 공동체성의 회복과 영혼 구원에 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공동체성의 회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끼리 연합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데서 시작한다” 라고 말한다.¹⁴⁸⁾ 이와 같이 목장은 나눔 중심의 성경공부를 기초로 하여 교제와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을 지향한다.

목장은 기본적으로 소그룹의 리더인 목자와 목녀 및 멤버인 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원 중에서 예비 리더를 세운다.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셀 리더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안내하고, 그룹을 위해 기도하고, 셀 회원들을 심방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말한다.¹⁴⁹⁾ 김덕수는 셀 리더(목자)가 셀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며, 셀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셀 리더는 가정교회(소그룹)의 작은 목사로서 목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양육을 하고 그 중에 차기 셀 리더가 될만한 재목을 눈여겨 보았다가 잘 훈련시키고 교회를 통해 더 양육받고 다음에 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는 셀 수퍼바이저와 교구 목사를 통해 나누고 공급받으며 동료 셀 리더들과의 셀 모임을 통해 동역자들과 항상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좋다. 셀 가족원들을 잘 돌보며 그들의 은사와 관심사를 살펴 각 사람이 은사대로 가정교회 혹은 셀 모임에서 한 가지씩 사역을 담당하여 셀 모임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셀 구성원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훈련 과정에 참석하도록 격려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¹⁵⁰⁾

한편 예비 리더는 각 셀 그룹의 모임 장소를 선정하고 정규적인 셀 리더 계획 설정과 훈련에 참여하며 셀 리더가 부재 중일 때 셀 그룹을 인도하며 셀 그룹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제목 목록을

147) 정삼지, 「정착양육과정(DNA) 지도자 세미나」(서울: 제자교회출판부, 2008), 48.

148) 이권희, 「목사님, 제자훈련이 정말 행복해요」(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6), 191.

149)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서울: 도서출판 NCD, 2000), 91.

150) 김덕수, 「소그룹과 셀사역, 그리고 셀 교회로의 전환」, 240-1.

준비하고 셀 그룹이 번식될 때 분가하는 셀 그룹을 인도한다.¹⁵¹⁾ 래리 스타크스틸(Larry Stockstill)은 “잠재력이 있는 리더가 훈련 받는 첫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간단한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서 나온다. 개인적인 증인의 삶에 있어서의 소심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영적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¹⁵²⁾

목장의 전도사역과 관련하여 네이버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복음 전파는 효과적인 목자 그룹(Shepherd Group)의 사역에 있어서 양육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한다.¹⁵³⁾ 그는 “전도 소그룹은 셀 멤버의 집을 부담 없는 모임 장소로 사용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사이에 접촉점을 마련해 주고, 전도 소그룹이 형성될 때 세 명 내지 네 명의 성숙한 그룹 멤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말한다.¹⁵⁴⁾

제이 파이어보우(Jay Firebaugh)는 “셀 교회의 기본은……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변화를 도모하며, 무엇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애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건강한 셀의 모습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친구들과 이웃, 동료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강조한다.¹⁵⁵⁾ 이와 같이 목장에서의 전도사역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신일교회의 사례

(1)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

신일교회는 1971년에 전우덕에 의해 개척되었다. 전우덕은 25년간 목회를 한 후 원로목사로 은퇴하였고, 2대 담임목사가 부임하였으나 5년만에 사임하였다. 그 이후 6개월의 담임목사

151) David Finnell,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92-3.

152) Larry Stockstill, 「셀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박광진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8), 118.

153) Ralph W.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375.

154) Ibid., 398.

155) Jay Firebaugh, 「교회성장의 엑셀레이터」, 김진기 역 (서울: 미니스트리 디렉, 2011), 11-2.

공백기를 거쳐 2001년에 이권희가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당시 신일교회는 약 320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써 40 개의 소그룹이 있었다.

이권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목회비전으로 삼고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왔다. 이권희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사역’으로 정의하며,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것을 목회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¹⁵⁶⁾

이권희는 14 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2017년에 3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권희는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소그룹을 통해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적 교회 회복’에 힘쓰며, 이를 위해 목장을 개편하고 목자, 목녀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이며, 소그룹이 살아날 때 목장이 복음전도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¹⁵⁷⁾ 신일교회는 현재 109 개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남성 목장 18 개, 여성 목장 59 개, 부부 목장 32 개로 구성되어 있다. 목장모임의 중점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친밀감 형성 및 영혼 구원이다.

(2)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리더 양성

이권희는 “양육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면, 훈련은 그렇게 온전케 된 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양육은 성장과 성숙이 목표이고 훈련은 재생산이 목표”라고 말한다.¹⁵⁸⁾ 이에 따라 신일교회의 양육과정은 새가족성경공부, 양육반, 교리반, 성경일독학교로 진행하며, 훈련과정은 제자훈련준비반, 제자훈련으로 진행한다. 신일교회의 제자훈련 교재는 옥한흠이 집필하고 국제제자훈련에서 발간한 「평신도를 깨운다 시리즈(1, 2, 3 권)」을 사용한다. 이권희는 제자훈련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도록 지도하는데,

156) 이권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 108.

157) 신일교회, “담임목사 인사말” [온라인 자료]
http://www.shinilch.com/hboard5/bbs/board.php?bo_table=board_15&wr_id=1, 2019년 10월 3일 접속.

158) 이권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훈련공동체.” 「교회성장」, 2007년 6월, 23.

훈련생들이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하며 1만원으로 전도하기 등의 생활숙제를 제시한다. 하지만 수년간 진행되었던 전도훈련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목자모임을 통한 소그룹 리더 재교육

이권회는 소그룹 리더를 위해 “신일교회에서는 매주 목자, 목녀 모임을 갖는다. 그들이 소그룹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미니 강의를 한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귀납적 성경연구, 리더십, 이단 연구, 소그룹 운영법 등을 강의한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느낀 점을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한다.¹⁵⁹⁾ 이권회는 매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목자모임을 진행하며, 목자모임에 결석하는 소그룹 리더를 위해 목요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한 번 더 목자모임을 진행한다.

목자모임의 참가자는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목자와 목녀이다. 이권회는 목자모임을 통해 교회론과 소그룹 인도법 등 사역훈련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의하면서 소그룹 리더의 전도 스피릿을 강조하는데, 새가족이 등록했을 때 소그룹 리더와 섬김이가 새가족을 위해 ‘7 주의 동행’ 사역을 통해 일곱 번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지도한다. 이권회는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새생명축제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전도사례를 발표하거나 소그룹 리더인 목자들이 전도간증을 하게 함으로써 소그룹 리더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목자모임의 일반적인 시간계획은 다음과 같다.

+

<표 3> 신일교회 목자모임 시간계획

시간	프로그램	비고
3:30-3:45	찬양 및 기도	담당 교역자
3:45-4:15	강의 및 사역 나눔	1-2 주차: 담임목사 3 주차: 교구목사 4 주차: 초원별 모임
4:15-4:30	광고 및 기도	핵심 사역 및 기도제목 공유

159) 이권회, 「목사님, 제자훈련이 정말 행복해요」, 195.

(4) 70인 전도대와 새생명축제 중심의 전도사역

이권회는 전도사역을 강조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70인 전도대를 운영하는데, 매 모임 시에 2개의 소그룹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봉사하도록 한다. 70인 전도대는 기본적으로 노방전도로 진행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커피와 차를 대접하면서 불신자들에 대한 만남 및 나눔을 시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했을 때 ‘신일교회 복음전문’으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신일교회 복음전문’의 특징은 복음을 제시한 이후에 개인 간증을 한다는 것이다. 노방전도가 종료되면 각 팀장은 전도 결과를 정리하여 총무에게 제출하고 총무는 전체 전도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점심식사 이후 지난 주에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화 연락을 함으로써 70인 전도대 사역을 마무리한다. 70인 전도대의 일반적인 운영계획과 ‘신일교회 복음전문’은 다음과 같다.

<표 4> 신일교회 70인 전도대 운영계획¹⁶⁰⁾

시간	프로그램	비고
09:40 - 10:00	찬양 및 기도	장소: 비전홀
10:00 - 10:15	설교 및 기도	담당 교역자
10:15 - 10:20	광고 및 구호제창	전도 시 주의사항 전달
10:20 - 11:50	팀별 전도	전도 물품: 각종 차, 전도용품(물티슈/마스크 등), 배너 및 거치대, 파라솔(책상/의자)
11:50 - 12:30	식사 및 보고서 제출	지난 주 접촉한 사람에 대한 전화 연락

160) 신일교회 <70인 전도대 매뉴얼>에서 인용

<표 5> 신일교회 복음전문¹⁶¹⁾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허해지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질병, 가정 불화, 자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했고,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부터 제 인생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갈림길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편 신일교회는 1년 동안 세 차례의 대신자 작정 - 연초, 부활절, 새생명축제 - 을 실시한다. 이권회는 성도들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대신자를 작정하도록 하여 각 목장 단위의 대신자 현황 및 결신 결과를 통계로 발표한다. 이권회는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목자모임에서 평신도 스태프들이 직접 소그룹 리더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권회는 새생명축제를 통하여 전 교회가 전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를 위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전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도 세미나는 70인 전도대가 모이는 수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데 이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전도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161) 이권회, 「목사님, 제자훈련이 정말 행복해요」, 174-5.

〈표 6〉 신일교회 2018 전도 세미나 계획¹⁶²⁾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0:00 - 10:15	찬양	인도: 김경민 목사(찬양 담당) 간식 배부
10:15 - 11:05	1 강 소통 전도	강사: 최지훈 목사(훈련 담당)
11:10 - 12:00	2 강 청년 전도	강사: 박효범 목사(청년국 담당)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3:50	3 강 불시자 전도	강사: 김영생 목사(행정 담당)
14:00 - 14:50	4 강 전도는 도전	강사: 신정환 목사(전도 담당)

신일교회에서는 새생명축제를 40일 앞둔 시점부터 매일 저녁에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며 3/7 운동도 전개되는데, 이는 태신자를 위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7번 만나자는 다짐이다.¹⁶³⁾ 이권희는 앞으로 신일교회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관계 전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3) 평가

(1) 목장에 대한 일반적 평가

목장은 소그룹 모임 안에서 교회의 모든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목장 안에서 가정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의 나눔을 강화함으로써 불신자들이 교회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목장은 적극적인 전도 활동과 소그룹 분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소그룹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성장을 이루게 만들었다.

목장은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인 목자와 목녀¹⁶⁴⁾의 역량에 따라 소그룹의 분위기와 성장이 좌우되므로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데 목장은 양육 보다는 재생산에 초점을 더 두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예비 리더를 리더로 세울 경우 소그룹의 건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스타크틸은 “증인의 삶에 있어서의 소심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영적 지도자의 길로

162) 신일교회 <2018 전도 세미나> 자료에서 인용

163) 이권희, 「목사님, 제자훈련이 정말 행복해요」, 148.

164)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는 일반적으로 부부이며, 이때 남성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고 여성 리더를 목녀라고 부른다. 목자는 목장 모임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고, 목녀는 목자를 돕는 총무의 역할과 더불어 여성 멤버들을 별도로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들어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¹⁶⁵⁾ 따라서 목장의 리더를 세우기 위한 양육과정에 전도훈련을 포함하여 성숙한 목자와 목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신일교회에 대한 평가

신일교회는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 단계를 체계화함으로써 목장 모임을 통한 전도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교회 전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도록 새생명축제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역량을 집중한다. 하지만 소그룹 리더들이 전도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소그룹이 전도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매주 노방전도에 소그룹 단위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비자발적인 소그룹의 경우 전도의 열매가 적다. 따라서 신일교회는 목장 모임이 전도 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소그룹 전도가 활성화되도록 목자와 목녀를 위한 체계적인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3. 화평교회 가정교회 사례연구

1) 가정교회의 특징과 전도

볼프강 짐존(Wolfgang Simson)은 “가정교회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 공동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과 자원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불신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라고 말한다.¹⁶⁶⁾

최영기는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라고 정의한다.¹⁶⁷⁾ 그는 제자는 듣고 배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서 만들어지며, 따라서 가정교회 모임에서는

165) Larry Stockstill, 「셀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118.

166)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141.

167)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2006), 39.

성경 공부를 한다기 보다 삶을 나누는 데 더 중점을 둔다고 강조하고,¹⁶⁸⁾ 가정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며,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 및 교회를 세우는 일은 평신도들이 담당한다고 말한다.¹⁶⁹⁾

김준은 “가정교회는 단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과업들은 계층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기 보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하게 은사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¹⁷⁰⁾

가정교회는 12명 이하의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2명이 넘으면 가정교회를 분가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가정교회를 탄생시킨다.¹⁷¹⁾ 가정교회의 리더는 목자라고 부르는데, 소정의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하고, 매 주일 예배 후에 있는 정기 훈련에 참석한다. 목자는 가정교회의 책임자로서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새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목장에 할당되면 그 주일에 심방하고 특별한 관심을 쏟는다.¹⁷²⁾

분가를 대비하여 목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예비 목자라고 부르는데, 목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교회에서 임명하고 가정교회가 분가할 때 기존의 가정교회를 물려 받아 운영한다. 만약 가정교회가 분가할 때 예비 목자가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했다면, 우선 ‘대행 목자’라는 직분을 주어 분가를 시킨다.¹⁷³⁾

가정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라고 부르는데, 가능하면 교사와 목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교회에서는 섬기는 목자가 가르치는 교사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 성경공부를 지도하고, 목자는 목원들이 자신의 삶을

168) Ibid., 54.

169) Ibid., 59.

170)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황진기 역, 119-121.

171)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72.

172) Ibid. 90-1.

173) Ibid. 91-3.

나누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¹⁷⁴⁾

가정교회의 전도사역과 관련하여 강정원은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가정교회 안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관계를 중심으로 전도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라고 말한다.¹⁷⁵⁾ 최영기는 가정교회의 전도사역의 특징을 ‘관계에 기초한 전도’라고 주장하며 “각 가정교회가 관계에 기초한 전도 기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불신자와 접촉하여 친구가 되고 이 분들을 가정교회에 초청하여 관계를 맺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라고 말한다.¹⁷⁶⁾

가정교회를 통한 전도는 관계성에 기초한 전도(**relational evangelism**)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가정교회에 끌어들이 사랑의 공동체의 맛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수강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¹⁷⁷⁾

최영기는 가정교회 모임은 전도를 염두에 두고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큐티 나눔 등 오래된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금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방문했으면 모임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없는 불신자에게 위압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에서는 전도가 분업화되어 있다. 목원들은 불신자를 가정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돌보아 주고, 목자는 새로운 목원이 기초 성경공부를 수강하도록 권면하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시한다.¹⁷⁸⁾

174) *Ibids.*, 94-6.

175) 강정원, 「뻔한 소그룹 Fun하게 Design하라!」(경기: 소그룹하우스, 2013), 68.

176)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서울: 나침반, 1997), 141-2.

177) _____,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04.

178) *Ibids.*, 108.

2) 화평교회의 사례

(1) 교회 설립과 성장 과정

화평교회는 1988년 1월 30일에 최상태가 가족을 비롯하여 3명의 형제와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이다. 개척 초기에는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훈련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제자훈련을 했으며 1998년 9월부터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했다.¹⁷⁹⁾ 최상태는 교회 설립 25주년이 되는 2013년에 ‘흠여지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2014년부터 분립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소그룹은 4개의 광역에 총 9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교회 소그룹은 부부가 함께 가정과 총무의 직책으로 소그룹을 인도한다.

(2) 제자훈련 중심의 소그룹 리더 양성

화평교회는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운영하며, 그 이후 13주 과정의 양육반을 통해 성도들이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한다. 그 밖의 양육과정으로 신구약성경공부(24주), 중보기도학교(8주), 부모역할반(13주), 지역단기선교훈련(12주) 등이 있다. 제자훈련반은 개강예배와 수료식을 포함하여 3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에 의해 주일과 주중에 실시되는데, 제자훈련반을 수료한 자는 가정교회의 리더로 파송된다. 화평교회의 제자훈련 교재는 옥한흠이 집필하고 국제제자훈련에서 발간한 「평신도를 깨운다 시리즈(1, 2, 3권)」을 사용하며, 제자훈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79) 화평교회, “교회 소개”[온라인 자료] <http://www.hwapyung21.org/default/aa/sub1.php>, 2019년 10월 3일 접속.

<표 7> 화평교회 제자훈련 교육과정

1 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2 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3 권 작은 예수가 되라
1 과: 나의 신앙고백과 간증 2 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3 과: 경건의 시간 4 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5 과: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6 과: 기도의 응답	1 과: 성경의 권위 2 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3 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4 과: 삼위일체 하나님 5 과: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6 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7 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8 과: 약속대로 오신 성령 9 과: 거듭난 사람 10 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11 과: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 12 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13 과: 그리스도인의 성화 14 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 과: 순종의 생활 2 과: 봉사의 의무 3 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4 과: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5 과: 영적 성장과 성숙 6 과: 순결한 생활 7 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8 과: 신앙인격의 연단 9 과: 그리스도의 주재권 10 과: 청지기직 11 과: 영적 전투 12 과: 새 계명, 사랑하라

(3) 지도자모임을 통한 소그룹 리더 재교육

최상대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환하면서 주일 오후예배를 없애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가정교회의 리더인 가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지도자모임을 진행하며 이 시간은 특강, 사역나눔, 간증(가장/총무, 가원, 새가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지도자모임 진행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매월 4주차에 전도폭발훈련을 실시하였다.¹⁸⁰⁾

<표 8> 화평교회 지도자모임 진행계획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 부: 찬양 및 교제	2:15-2:45	광역별 교제	본당 2층(코이노니아홀)
2 부: 성경공부 및 나눔	2:45-3:30	특강 및 기도회	1 주차: 기도회 2 주차: 특강(내/외부 강사) 3 주차: 사역 나눔 또는 간증 4 주차: 광역별 나눔
3 부: 특별 순서	3:30-4:00	사역 발표 및 광고	선교 보고, 찬양 공연 등

180) 화평교회 <2016 가정교회 지도자모임 진행계획>을 보면, 2-6월과 8-12월 4주차에 한 번씩 총 10회에 걸쳐 전도폭발훈련을 실시하였다.

(4) 전도폭발훈련과 전도축제 중심의 전도사역

최상태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누리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를 “가정교회가 전도와 선교활동을 하는 데에 매우 용이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이며, 가정교회는 복음 전파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형태이고, 소그룹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주요한 변수는 전도를 통한 새가족의 유입이다.”라고 말한다.¹⁸¹⁾ 이를 위해 화평교회는 가정교회 리더들이 파송을 받기 전에 전도폭발훈련반(13주)을 이수하도록 권면한다. 화평교회는 전도폭발훈련을 중심으로 소그룹 리더들을 전도자로 양성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 3, 5 단계 과정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1, 2, 4 단계 과정을 진행한다.

화평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¹⁸²⁾ 부모사랑 경로잔치는 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초청하여 재미있는 순서를 진행하고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며 이때 담임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노후를 소망 중에 살도록 권면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신앙 강좌는 해마다 가을에 3일 혹은 4일 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화평교회는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를 1년에 한 두 차례 실시하는데 ‘가정교회별 전도축제’라는 이름으로 기획하여 진행한다. 특히 가족 초청의 날(혹은 남편 전도의 날)은 매년 5월에 실시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 참사랑축제는 가장 비중 있는 전도행사로 100일 간 전체 성도들이 집중적이고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이를 위해 최상태는 가정교회 지도자모임에서 가정교회 전도축제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며, <참사랑축제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태신자 작정부터 전도집회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전도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181) 최상태, 「제자훈련 이후의 제자훈련」(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231.

182) _____,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59-61.

〈표 9〉 가정교회 전도축제 기획안

구분	진행 사항	비고
1 주차	태신자 작성서 배부	태신자 작성서 준비
2 주차	1 차 초청: 개인적인 만남과 식사	실천 후 가정교회에서 나눔
3 주차	2 차 초청: 엽서, 초청장, 편지쓰기	실천 후 가정교회에서 나눔
4 주차	가정교회 전도축제 진행(1)	가정교회별로 진행
5 주차	가정교회 전도축제 진행(2)	가정교회별로 진행
6 주차	전도축제에 대한 피드백 나눔	설문지 배부 및 회수

3) 평가

(1) 가정교회에 대한 일반적 평가

강정원은 가정교회의 유익과 영향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정교회는 새가족 정착과 양육에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데, 특히 새가족들을 정착시키는 바나바 사역자를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가정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된다. 셋째, 가정교회는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가정교회에는 자녀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나눔도 풍성하기 때문이다.¹⁸³⁾

한편 가정교회는 소그룹 구성원들 사이에서 삶의 나눔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교회 모임 중 성경공부는 담임목사의 주일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정도이다. 물론 주일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써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소그룹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은 약점이다.

또한 가정교회 소그룹은 원칙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해 열려 있는 구조이나 가정교회는 주로 가정 단위로 구성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미혼의 청년들이나 배우자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의 경우에는 소그룹의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소그룹의 리더들이 가정교회에 처음 참여하는 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183) 강정원, 「뻘한 소그룹 Fun하게 Design하라!」, 127-135.

(2) 화평교회에 대한 평가

화평교회는 전도폭발훈련과 가정교회 소그룹이 전도사역의 중심이다. 전도폭발훈련은 양육반 또는 제자반을 수료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이들이 차후 가정교회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전도대상자들이 이미 등록된 새가족이나 양육반 훈련생으로 제한되어 있고, 노방전도의 경우에도 인근의 군부대를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교회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미 소그룹 리더로 파송을 받은 성도들이 전도폭발훈련을 선호하지 않고 가정교회 전도축제를 부담스러워 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가정교회 리더들이 개인 전도 및 소그룹 전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전도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전도 지향적 소그룹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4. 사랑의교회 다락방 사례연구

1) 다락방의 특징과 전도

다락방은 사랑의교회를 개척한 옥한흠에 의해 만들어진 소그룹 유형이다. 옥한흠은 성도교회의 부교역자로 대학부를 지도할 때 서울 공대에 재학 중이던 방선기를 네비게이트 선교회에 보내어 선교단체가 부흥하는 전략을 배우고자 했다. 당시 옥한흠은 네비게이트 교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기성교회가 가지지 못한 선교단체의 특징이 복음과 양육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¹⁸⁴⁾

그 이후 옥한흠은 대학부에 제자훈련을 도입하여 부흥을 경험했으며, 제자훈련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1975년에 미국의 칼빈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 기간 중 옥한흠은 한스 쾅(Hans Kung)의 교회론을 통해 교회의 사도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모든 평신도가 소명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귀국한 이후 1978년 7월에 사랑의교회의 전신인 강남은평교회를 개척하였다.

옥한흠은 개척 당시 일반적인 구역예배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린 지

184)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40년」(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37-8.

오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끝내는 피동적인 방식의 구역예배는 교인 관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한흠은 다락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치료받고, 함께 자라는 은혜가 충만한 구역예배의 장으로서의 평신도 모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당한 신앙 소양과 경험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는 장, 군중 속의 고독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영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안식처가 될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역예배라는 재래 방식의 모임에 익숙해 있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는 그들의 의식을 개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구역장을 순장으로, 구역예배를 다락방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¹⁸⁵⁾

이와 같이 시작된 사랑의교회의 다락방은 제자훈련 목회를 전제로 하는 건강한 소그룹 모델로 한국교회에 소개되었고, 사랑의교회의 국제제자훈련원이 매년 2-3 회 주최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Seminar)¹⁸⁶⁾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직접 다락방을 참관하고 실습함으로써 사랑의교회의 강점이 제자훈련과 다락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락방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다락방의 리더는 순장인데, 순장은 작은 목사로서 가르치는 교사와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순장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순장반에 참여하여 그 주 다락방에서 다루게 되는 성경공부 교재의 내용을 먼저 배우며, 교회의 주요 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한다.

다락방에 참여하는 멤버를 순원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 다락방에는 3-5 명의 순원들이 있다. 순원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로 구성되지만, 전도 대상자로 다락방에 초청되어 참여하는 불신자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다락방은 열린 소그룹을 지향하며,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85) Ibid., 86-7

186)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통상적으로 CAL-Seminar로 알려져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되며 주제 강의, 소그룹, 귀납적 성경연구, 순장반 및 제자반 참관, 다락방 참관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되는 다락방 참관 및 실습은 세미나에 참가한 목회자들이 직접 사랑의교회의 소그룹에 참여하여 순장이 인도하는 다락방을 관찰한 이후 자신이 직접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원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순원을 한 명 선정하여 순모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순모는 순장을 돕는 예비 리더라고 할 수 있으며 다락방 장소를 결정하거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역 일부를 수행한다. 순모는 순장 부재 시 순장을 대신하여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락방은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 순서도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성경공부를 하며 받은 은혜와 도전을 근거로 삶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순원들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집을 다락방 장소로 제공하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과정에 동참하도록 권면을 받는다.

다락방은 관계전도에 의한 불신자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적극적으로 소그룹 단위로 전도사역을 펼치지는 않는다. 다만 전 교회적으로 실시되는 전도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대각성전도집회의 경우에는 태신자 작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후속양육에 이르기까지 다락방이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2) 사랑의교회의 사례

(1) 교회 설립과 성장 과정

사랑의교회는 1978년 7월 23일에 강남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강남은평교회의 설립 비전은 ‘평신도 훈련을 통한 전교인 동력화, 각 대학과 직장의 젊은이 선교, 공산권을 향한 특수 선교’였으며, 이것은 나중에 ‘평신도 훈련, 젊은이 선교, 공산권 선교’로 정리되었다.¹⁸⁷⁾

사랑의교회라는 이름으로의 전환은 교회 창립 3주년을 기념하면서 1981년 9월에 이루어졌다. 이후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1985년 1월 12일에 입당하였다.

옥한흠은 사랑의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5년간 사역한 후 2003년 12월에 조기 은퇴하였고, 오정현이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사랑의교회는 2004년에 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끊임 없이

187) 사랑의교회, 「개척 10년-사랑의교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29.

갱신하는 교회'라는 4대 비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교회 창립 30주년에 발표되었던 HERAT 비전은 2013년 새예배당 건축 및 입당에 맞추어 G'LOVE 비전으로 확장되었다.¹⁸⁸⁾

오정현은 2대 담임목사로서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목회를 강화하였고 토요비전새벽예배와 특별새벽부흥회 등을 통해 예배와 영성을 강조하며 사랑의교회를 이끌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사랑의교회의 다락방은 남자 789개, 여자 1,072개, 여직장인 804개 등 총 2,665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락방모임의 중점은 귀납적 방법론에 입각한 성경공부로서 순장과 순원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중심의 소그룹 리더 양성

사랑의교회는 교회에 새롭게 등록된 성도들을 위한 새가족모임을 4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육과정으로는 4주 단위로 진행되는 큐티세미나,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가 있으며,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성경대학과 교리대학이 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훈련 전 프로그램(3주), 반별 엠티(1주), 선교/전도 프로그램(4주), 다락방 인도 실습(1주) 등을 포함하여 각각 32주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사역훈련을 수료한 자들이 다락방의 순장으로 파송된다.¹⁸⁹⁾

오정현은 제자훈련 선교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비전을 제시하며 제자훈련 교재와 사역훈련 교재를 새롭게 집필하고 교육과정을 조정하였다. 특히 제자훈련 과정 중에는 훈련생들이 해외 단기선교에 참여하고 사역훈련 과정 중에는 훈련생들이 국내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랑의교회 예비 리더인 훈련생들이 전도와 선교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유도하였다.

188)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건축이야기 G'STORY」(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65-7.

189) 사랑의교회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제자훈련은 44기까지 13,094명의 훈련생이 수료하였고, 사역훈련은 31기까지 10,716명이 수료하였다.

<표 10>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교육과정

1 권 온전한 제자의 기초	2 권 온전한 제자의 교리	3 권 온전한 제자의 삶
1 과: 주님은 내 삶의 중심 2 과: 훈련은 멈출 수 없는 걸음 3 과: 성경은 영혼의 양식 4 과: 기도는 영혼의 호흡	1 과: 성경이란 무엇인가 2 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3 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 4 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5 과: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 6 과: 성령 하나님 7 과: 종말론 이해 8 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 과: 보냄 받은 제자 2 과: 제자의 세상 보기 3 과: 제자의 예배생활 4 과: 제자의 언어생활 5 과: 제자의 일과 일터 6 과: 제자의 돈과 재물 7 과: 제자의 믿음과 감정 8 과: 제자와 가정 9 과: 제자와 이웃사랑 10 과: 제자와 선교 11 과: 제자의 신앙계승 12 과: 온전한 제자가 되라

<표 11> 사랑의교회 사역훈련 교육과정

1 권 복음, 하나님의 능력	2 권 교회, 은혜의 공동체
1 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2 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의 3 과: 십자가 안에서 즐거워하라 4 과: 의의 종으로 살라 5 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6 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1 과: 교회다운 교회 2 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3 과: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4 과: 성령 안에서 은사로 섬기는 교회 5 과: 복음의 증인 된 교회 6 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 권 평신도의 자기 이해와 사역	4 권 사역의 현장, 소그룹
1 과: 하나님 나라와 평신도 사역 2 과: 평신도 사역자의 자기 이해 3 과: 제자의 자격(1): 전적 위탁과 순종 리더십 4 과: 제자의 자격(2): 종과 섬김 리더십 5 과: 제자의 자격(3): 증인과 나눔 리더십	1 과: 소그룹의 힘 2 과: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3 과: 소그룹 교재 준비의 실제 4 과: 소그룹 현장 참관 5 과: 소그룹 인도 실습과 자기 점검 6 과: 부름 받은 곳에서 사역자로

(3) 순장반을 통한 소그룹 리더 재교육

사랑의교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순장반을 진행하는데, 남자와 여직장인 순장들을 위해 순장반 실황을 녹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순장반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여 순장반 담당 교역자의 광고와 기도회 인도가 이어지며 그 이후 담임목사가 다락방 교재의 내용과 인도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때 담임목사는 교회의 비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교회의 주요 사역에 대해 순장들에게 설명한다. 다락방에서 사용하는 성경공부 교재는 담임목사가

수년 전에 주일예배에서 시리즈로 설교한 내용을 교재로 만든 것이다.

(4) 전도폭발훈련과 대각성전도집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사역

사랑의교회는 소그룹 리더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3주 과정으로 전도폭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전도폭발훈련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제자훈련을 수료하거나 교사와 리더로 섬기는 자이다. 현재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화요반과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일반이 운영되고 있다. 사랑의교회의 전도폭발 5 단계 과정에서는 자체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타 종교와 이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는 사랑의교회가 이미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5년에 시작된 전도폭발훈련은 66기까지 7,367명의 훈련생과 6,959명의 훈련자를 배출하였고, 지금까지 126,893명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62%인 79,836명이 결신했다.¹⁹⁰⁾

<표 12> 사랑의교회 전도폭발훈련(수요일반) 진행순서

시간	내용	담당
9:45-09:55	찬양과 기도	찬양팀
09:55-10:00	공지사항	담당 교역자
10:00-10:10	시범	교사 중 담당자
10:10-11:00	단계별 강의	각 단계별 강사
11:00-11:55	그룹별 모임	각 그룹장
12:00-15:00	파송기도 및 현장 전도	담당 교역자

사랑의교회는 부활주일에 전 교인이 태신자 작정에 동참하고 가을에 열리는 대각성전도집회¹⁹¹⁾를 전후하여 특별 다락방을 진행하는데, 특별영상을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전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태신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락방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한다. 그리고 대각성전도집회 이후 결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접촉을 하여 교회 등록 및 다락방 정착으로 유도하는 후속양육 사역이 이루어진다.

190) 2019년도 사랑의교회 평신도훈련 수료 및 파송헌신예배 중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학사보고 내용을 인용함

191) 사랑의교회의 대각성전도집회는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1982년도에 제1회 집회를 시작하여 2018년도 제 36회의 집회에 이르기까지 102,032명의 태신자가 참석하여 52,020명이 결신하였다.

3) 평가

(1) 다락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다락방은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에게 소그룹 성경공부를 맡김으로써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낸다. 옥한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소그룹이 가지는 기능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일종의 치료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 치료의 사역은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순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소그룹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자연스러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¹⁹²⁾

이와 같이 다락방은 귀납적 방법으로 소그룹을 진행함으로써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는 전인적인 소그룹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다락방의 리더인 순장은 귀납적 성경연구 및 인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도록 요청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순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락방은 순장이 양육과 돌봄을 중심으로 순원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약하다. 순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에 전도와 관련된 주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전도사역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다락방이 전도 지향적 소그룹으로 변화되고 순장들이 적극적으로 전도사역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전문화된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2) 사랑의교회에 대한 평가

사랑의교회는 양육과 훈련 체계에 있어서 전도폭발훈련이 가장 마지막 단계이지만 필수 과정은 아니다. 따라서 사역훈련을 수료한 이후 전도폭발훈련에 지원하는 것이 개별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순장 가운데 전도폭발훈련을 받은 비율이 낮다. 그러므로 노방전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전도단이나 미자립교회를 돕는 국내전도부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으며 교회가 전체적으로

192)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242.

참여하는 대각성전도집회의 경우에도 순장과 순원들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동참하는 열정이 부족하다. 이는 전도폭발훈련의 복음제시의 분량이 많아서 암기에 부담을 느끼고, 현장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의교회의 다락방이 앞으로 전도 지향적 소그룹으로 변화되려면 순장들과 다락방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5. 소결론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 가지 소그룹 유형인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은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각 소그룹 유형 안에서 멤버들에게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소그룹 리더의 역량에 따라 소그룹의 역동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4 가지 소그룹 유형은 성경적 기초를 공유하는데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은 모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삼고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반면에 구역과 다락방은 한국교회에서 자생한 소그룹 유형이고, 목장과 가정교회는 서구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소그룹 유형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각 소그룹 유형에 따라 지향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른데 구역은 일사불란한 행정과 전도에 초점을 두고 예배 형식으로 모임이며, 목장은 말씀을 기초로 한 교제와 재생산을 목표로 나눔 형식으로 모임이며, 가정교회는 삶의 나눔을 중심으로 교제와 전도에 집중하며, 다락방은 멤버들에 대한 양육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원칙적으로 불신자에 대해 열려있는 구조이다.

한국교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4 가지 소그룹 유형은 전도사역에 있어서 공통적인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인 교회 사례연구를 통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발견되었다. 만남의교회의 구역 모임은 교제 중심으로 진행되며, 매주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도훈련이 없기 때문에 봉사 위주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일교회의 경우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 훈련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회적 차원의 전도사역인 새생명축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도폭발훈련이 중단되어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이 없고,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비자발적으로 노방전도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화평교회는 양육반과 제자반을 수료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폭발훈련을 실시하며, 소그룹인 가정교회에서는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대그룹에서는 참사랑축제를 진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전도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방전도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이미 파송을 받은 소그룹 리더들의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사랑의교회는 다락방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며 순장들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및 인도에 탁월한 장점이 있으나 양육과 돌봄 위주의 소그룹 운영으로 인해 전도의 열정이 약하고 소그룹 리더인 순장을 양성하는 과정에 포함된 전도훈련이 전도사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의 4개 유형 모두 소그룹이 전도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소그룹의 초점을 전도와 재생산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제와 양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유형에 관계 없이 소그룹의 본질적인 특성인 전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략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 4 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

4 장에서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4 개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설문에 참여한 교회는 만남의교회, 신일교회, 화평교회, 사랑의교회이다. 이상의 4 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소속된 교회들로써 사랑의교회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주최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Seminar)를 수료한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들이다.

사랑의교회의 담임목사 오정현은 사랑의교회의 국제제자훈련원의 원장으로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Seminar) 주장사이며 제자훈련 사역의 핵심 인물이다. 만남의교회의 담임목사 나영진은 사랑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6 년간 사역한 이후 만남의교회 2 대 목사로 부임했으며, 칼넷(CAL-Net)의 경기남부지역 총무이다.

신일교회의 담임목사 이권희는 사랑의교회의 부교역자 출신으로 신일교회를 서울서남권의 대표적인 제자훈련 모델교회로 만들었으며, 현재 칼넷(CAL-Net)의 서울지역 대표이다. 화평교회의 담임목사 최상태는 화평교회를 개척하여 제자훈련과 가정교회 중심으로 성장시켰고, 칼넷(CAL-Net)의 전국대표로서 2 년간 사역했다. 그러므로 이상의 4 개 교회는 칼넷(CAL-Net)을 중심으로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공유하는 교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본 설문조사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우편으로 회수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각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그룹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소그룹 사역을 이해하고 소그룹과 교회의 전도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핵심 자원은 소그룹 리더이며, 이러한 소그룹 리더를 양육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1. 설문 목적과 절차

1) 설문 목적

본 설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4 개의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소그룹 리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이 미비하다. 그러므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도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본 설문이 지향하는 목적이다.

2) 참가자

본 설문 응답에 참여한 총 44 명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4 명을 제외하고 분석 대상으로 40 명을 선정하였다. 설문 분석에서 제외된 4 명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유형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사례 2 건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에 전도훈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14 번 문항)고 답변한 이후 ‘전도훈련 기간에 대한 질문’(15 번 문항)에 답변을 한 사례 2 건이다(2 명). 참가자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평신도들이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나이에 대한 구분을 39 세 이하로부터 시작하여 40 대, 50 대, 60 대 그리고 70 세 이상으로 실시하였고, 신앙경력에 대한 구분을 5 년 이하로부터 시작하여 5 년 단위로 6-10 년, 11-15 년, 16-20 년, 21 년 이상으로 실시하였다.

3) 설문 방법

본 연구자는 리버티 대학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를 통해 승인을 받은 설문 동의서(Consent Form)를 설문 참가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낸 후, 4 개 교회의 행정목사가 인쇄된 설문지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설문지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시간은 1 설문 당 15-20 분 정도로 소요되었다.

4) 설문 구성

본 설문은 총 24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기타 의견의 경우에는 간결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설문의 제목은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에 대한 설문’이고, 인구사회학적 질문, 소그룹 유형과 특성에 대한 질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설문 내용
인구사회학적 질문	1) 현재 교회 내에서의 당신의 직분은? 2) 나이 3) 성별 4) 신앙 경력은 몇 년이나 되었나? 5) 현재 당신이 소속된 교회의 규모는? 6) 당신은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7) 전도훈련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았는가?
소그룹 유형과 특성에 대한 질문	8) 당신의 교회의 소그룹 유형은 무엇인가? 9) 다음 중 당신의 교회의 소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10) 다음 중 당신의 교회의 소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11) 당신은 교회의 소그룹이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12) 현재 당신의 교회에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이 있는가? 13) 현재 당신의 교회에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이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14) 현재 당신의 교회에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이 있다면,

	<p>전도훈련도 포함되어 있는가?</p> <p>15) 현재 당신의 교회에 있는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 중 전도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면, 훈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p> <p>16) 현재 당신의 교회에 있는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 중 전도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면, 훈련내용은 무엇인가?</p> <p>17) 당신은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p> <p>18) 당신의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을 실시한다면, 어떤 유익을 기대하는가?</p>
<p>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질문</p>	<p>19)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p> <p>20)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p> <p>21)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p> <p>22)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중 중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p> <p>23)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으로 무엇이 적당한가?</p> <p>24)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방식으로 무엇이 적당한가?</p>

2. 설문 결과

본 연구자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4. Version 을 통해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SPSS 24. Version 은 데이터를 기초로 평균, 분산,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량 등 논리적으로 설문 결과를 도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설문 참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관련 변수에 따라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선호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카이제곱 검증(Pearson Chi-Square)을 실시하였고 P 값으로 유의확률 결과를 표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을 통한 표 형식으로 나타내었으며, 표기는 퍼센트 방식으로 하였고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나타내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질문(19-24)에 대한 분석은 표와 더불어 막대그래프를 보충적으로 제시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질문 (1-7)

설문 조사 중 1-5 번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한 결과,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참가자의 직분과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목회자는 30.0%(12 명), 평신도는 70.0%(28 명)이며, 평신도 중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60.7%(17 명)이었다. 참가자의 나이와 관련해서 참가자의 나이는 50-59 세가 42.5%(17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49 세가 35.0%(14 명)이었다. 즉 40-50 대의 참가자가 77.5%(31 명)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가자의 성별에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남자는 42.5%(17 명)이고, 여자는 57.5%(23 명)이다. 목회자(12 명) 가운데 여성은 16.7%(2 명)이며, 평신도(28 명) 가운데 여성은 75%(21 명)이다. 참가자의 신앙 경력에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신앙 경력이 21 년 이상 된 자가 87.5%(35 명)로 다수였는데, 이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규모에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10,001 명 이상의 교회 규모가 30.0%(12 명)로 가장 많았고, 501-1,000 명의 교회 규모가 20.0%(8 명)로 가장 적었다.

193)

9

<표 13>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직분	담임목사	2	5.0
	부교역자	10	25.0
	중직자	17	42.5
	서리집사	11	27.5
나이	39 세 이하	2	5.0
	40-49 세	14	35.0
	50-59 세	17	42.5
	60-69 세	7	17.5
성별	남자	17	42.5
	여자	23	57.5
신앙 경력	11-15 년	2	5.0
	16-20 년	3	7.5
	21 년 이상	35	87.5
교회 규모	301-500 명	10	25.0
	501-1,000 명	8	20.0
	1,001-10,000 명	10	25.0
	10,001 명 이상	12	30.0
합계		40	100.0

참가자의 전도훈련 경험에 관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직분에 따른 전도훈련 경험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가자 중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77.5%(31명)로 나타났고, 목회자(12명)의 경우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100.0%(12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문에 참여한 4개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가운데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3) 본 연구자는 교회 규모에 따라 소형교회(100명 이하), 중소형교회(101-300명), 중형교회(301-500명), 중대형교회(501-1,000명), 대형교회(1,000-10,000명),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로 구분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만남의교회는 중형교회, 신일교회는 중대형교회, 화평교회는 대형교회, 사랑의교회는 초대형교회이다.

<표 14> 직분에 따른 전도훈련 경험에 대한 교차표

구분		전도훈련 경험		전체	P-value
		있다	없다		
직분	담임목사	2 (100.0)	0 (0.0)	2 (100.0)	6.818 (0.078/3)
	부교역자	10 (100.0)	0 (0.0)	10 (100.0)	
	중직자	13 (76.5)	4 (23.5)	17 (100.0)	
	서리집사	6 (54.5)	5 (45.5)	11 (100.0)	
전체		31 (77.5)	9 (22.5)	40 (100.0)	

설문 참가자가 전도훈련을 받은 기관에 관해서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참가자(31명) 중 지역교회에서 전도훈련을 받은 자가 61.3%(19명)로 가장 많았고, 선교단체 또는 전문기관에서 전도훈련을 받은 자는 32.3%(10명)로 나타났다.

<표 15> 전도훈련 기관

항목	빈도	비율(%)
지역교회	19	61.3
노회 또는 총회	1	3.2
선교단체	5	16.1
전문기관	5	16.1
기타	1	3.2
합계	31	100.0

2) 소그룹 유형과 특성에 대한 질문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유형에 관해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유형은 다락방이 30.0%(12명)로 가장 많았고, 목장이 20.0%(8명)로 가장 적었다.¹⁹⁴⁾

194) 이 결과는 설문 참가자의 교회 규모에 대한 질문(5번)에 대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설문 참가자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6〉 소그룹 유형

항목	빈도	비율(%)
구역	10	25.0
목장	8	20.0
가정교회	10	25.0
다락방	12	30.0
합계	40	100.0

소그룹의 강점에 관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소그룹 유형에 따른 소그룹의 강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의 경우 교제를 강점으로 생각하는 참가자가 100.0%(10 명)로 나타났고, 목장의 경우 양육을 강점으로 생각하는 참가자가 37.5%(3 명)로 나타났고, 가정교회의 경우 교제를 강점으로 보는 참가자가 90.0%(9 명)로 나타났고, 다락방의 경우 양육을 강점으로 보는 참가자가 58.3%(7 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그룹 유형이 구역과 가정교회인 경우 교제를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소그룹 유형이 목장과 다락방인 경우 양육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소그룹 유형에 따른 소그룹의 강점에 대한 교차표

구분		소그룹의 강점				전체	P-value
		예배	교제	양육	전도		
소그룹 유형	구역	0 (0.0)	10 (100.0)	0 (0.0)	0 (0.0)	10 (100.0)	27.194*** (0.001/9)
	목장	1 (12.5)	2 (25.0)	3 (37.5)	2 (25.0)	8 (100.0)	
	가정교회	0 (0.0)	9 (90.0)	0 (0.0)	1 (10.0)	10 (100.0)	
	다락방	2 (16.7)	3 (25.0)	7 (58.3)	0 (0.0)	12 (100.0)	
전체		3 (7.5)	24 (60.0)	10 (25.0)	3 (7.5)	40 (100.0)	

*P<.05 **P<.01 ***P<.001

소그룹의 약점에 관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소그룹 유형에 따른 소그룹의 약점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전도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55.0%(22 명)로 나타났고 봉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30.0%(12 명)로 나타났다. 가정교회의

경우에는 50.0%(5명)가 봉사를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한 4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의 약점은 전도와 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소그룹 유형에 따른 소그룹의 약점에 대한 교차표

구분		소그룹의 약점					전체	P-value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소그룹유형	구역	0 (0.0)	0 (0.0)	2 (20.0)	1 (10.0)	7 (70.0)	10 (100.0)	13.295 (0.348/12)
	목장	1 (12.5)	0 (0.0)	0 (0.0)	3 (37.5)	4 (50.0)	8 (100.0)	
	가정교회	1 (10.0)	0 (0.0)	1 (10.0)	5 (50.0)	3 (30.0)	10 (100.0)	
	다락방	0 (0.0)	1 (8.3)	0 (0.0)	3 (25.0)	8 (66.7)	12 (100.0)	
전체		2 (5.0)	1 (2.5)	3 (7.5)	12 (30.0)	22 (55.0)	40 (100.0)	

교회의 소그룹이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설문 조사에 참가한 자 중 92.5%(37명)가 '예'라고 답하였다.

<표 19> 전도 지향적 소그룹에 대한 찬반

항목	빈도	비율(%)
예	37	92.5
아니오	3	7.5
합계	40	100.0

3)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참가자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이 있는가에 관해서 참가자 중 '있다'라고 답변한 자가 100.0%(40명)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참가자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칼넷(CAL-NET) 회원들로서 제자훈련 목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기간에 관해서 모든 참가자가 6개월 이상으로 답변하였으며, 2년 이상이 45.0%(18명)로 나타났다. 이는 칼세미나(CAL-Seminar)를 수료한

담임목사가 교회의 형편에 따라 훈련커리큘럼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¹⁹⁵⁾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에 전도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설문 조사 참가자 중 ‘있다’ 고 답변한 자는 57.5%(23 명)로 나타났고, ‘없다’ 고 답변한 자는 42.5%(17 명)로 나타났다.

<표 20> 소그룹 리더 양성훈련에 대한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유무	있다	40	100.0
기간	6개월-1년	16	40.0
	1년-1년 6개월	6	15.0
	2년 이상	18	45.0
전도훈련 포함 여부	있다	23	57.5
	없다	17	42.5
합계		40	100.0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에 포함된 전도훈련의 기간에 관하여, 앞의 질문에서 전도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 자(23 명) 중 60.9%(14 명)가 13 주 이상이라고 답하였고, 1-2 주라는 답변은 26.1%(6 명)으로 나타났다.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에 포함된 전도훈련의 내용에 관하여, 앞의 질문에서 전도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 자(23 명) 중 78.3%(18 명)가 전도폭발 복음제시라고 답하였고, 사영리 전도법이라고 답변은 17.4%(4 명)로 나타났다.

<표 21> 소그룹 리더 양성훈련에 포함된 전도훈련에 대한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기간	1-2 주	6	26.1
	9-12 주	3	13.0
	13 주 이상	14	60.9
내용	사영리 전도법	4	17.4
	전도폭발 복음제시	18	78.3
	기타	1	4.3
합계		23	100.0

195) 사랑의교회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주최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CAL-Seminar)에서는 옥한흠이 저술한 제자훈련 교재를 소개하는데 제자훈련과정은 3권으로 구성되어 32주 동안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역훈련과정은 4권으로 구성되어 32주 동안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과 관련해서 설문 참가자 중 100.0%(40명)가 ‘예’라고 답하였다.

<표 22>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의 필요성 찬반

항목	빈도	비율(%)
예	40	100.0
합계	40	100.0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으로 기대하는 유익과 관련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으로 기대하는 유익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소그룹의 성장과 배가’를 기대하는 응답자가 42.5%(1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도하는 교회 분위기 형성’이 32.5%(13명)로 나타났고, ‘개인의 영성 강화’가 25.0%(10명)이었다. 그런데 평신도(28명)의 경우 ‘소그룹의 성장과 배가’를 선택한 참가자와 ‘전도하는 교회 분위기 형성’을 선택한 참가자가 39.3%(11명)으로 같게 나타났고, ‘개인의 영성 강화’를 선택한 참가자는 21.4%(6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신도들이 개인 보다는 소그룹과 교회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의 유익에 대한 교차표

구분		특성화된 전도훈련의 유익			전체	P-value
		개인의 영성 강화	소그룹의 성장과 배가	전도하는 교회 분위기 형성		
직분	담임목사	0 (0.0)	1 (50.0)	1 (50.0)	2 (100.0)	9.816 (0.133/6)
	부교역자	4 (40.0)	5 (50.0)	1 (10.0)	10 (100.0)	
	중직자	6 (35.0)	4 (23.5)	7 (41.2)	17 (100.0)	
	서리집사	0 (0.0)	7 (63.6)	4 (36.4)	11 (100.0)	
전체		10 (25.0)	17 (42.5)	13 (32.5)	40 (100.0)	

4)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질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신앙 경력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 경력이 11-15년인 참가자의 경우 ‘능숙한 개인전도자 배출’ 이라고 응답한 자가 100.0%(2명)로 나타났다. 신앙 경력이 16-20년인 참가자의 경우 ‘전교회적 전도사역 스텝 배출’ 이라고 응답한 자가 66.7%(2명), ‘소그룹의 수적 성장’ 이라고 응답한 자가 33.3%(1명)으로 나타났다. 신앙 경력이 21년 이상인 참가자의 경우 ‘소그룹 멤버에 대한 양육’ 이 60.0%(21명), ‘전교회적 전도사역 스텝 배출’ 이 20.0%(7명), ‘능숙한 개인전도자 배출’ 이 14.3%(5명), 기타(자신감과 복음의 회복)가 5.7%(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참가자 중 ‘소그룹 멤버에 대한 양육’ 이라고 답변한 자는 52.5%(21명)로 나타났고, ‘전교회적 전도사역 스텝 배출’ 이라고 답변한 자는 22.5%(9명)으로 나타났고, ‘능숙한 개인전도자 배출’ 이라고 답변한 자는 17.5%(7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앙 경력이 적은 참가자의 경우 개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앙 경력이 많은 참가자의 경우 교회와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설문에 참여한 4개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우선적으로 ‘소그룹 멤버에 대한 양육’ 이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신앙경력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교차표

구분		소그룹 리더 전도훈련의 목표					전체	P-value
		능숙한 개인전도자 배출	소그룹 멤버에 대한 양육	소그룹의 수적 성장	전교회적 전도사역 스텝 배출	기타		
신앙 경력	11-15년	2 (10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27.777*** (0.001/8)
	16-20년	0 (0.0)	0 (0.0)	1 (33.3)	2 (66.7)	0 (0.0)	3 (100.0)	
	21년 이상	5 (14.3)	21 (60.0)	0 (0.0)	7 (20.0)	2 (5.7)	35 (100.0)	
전체		7 (17.5)	21 (52.5)	1 (2.5)	9 (22.5)	2 (5.0)	40 (100.0)	

*P<.05 **P<.01 ***P<.001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대상과 관련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직분에 따른 교회의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가자 중 ‘모든 성도’ 라고 응답한 자는 였고 50.0%(20 명)로 나타났고, 리더라고 응답한 자는 32.5%(13 명)로 나타났고, 예비 리더라고 응답한 자는 17.5%(7 명)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분이 담임목사(2 명)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참가자 유형(부교역자, 중직자, 서리집사)에서 ‘모든 성도’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교역자와 평신도들은 ‘모든 성도’ 가 교회 안에서 잠재적인 소그룹 리더로 양육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에 대한 교차표

구분		소그룹 리더 전도훈련의 대상			전체	P-value
		모든 성도	예비 리더	리더		
직분	담임목사	0 (0.0)	0 (0.0)	2 (100.0)	2 (100.0)	6.291 (0.391/6)
	부교역자	4 (40.0)	3 (30.0)	3 (30.0)	10 (100.0)	
	중직자	9 (52.9)	3 (17.6)	5 (29.4)	17 (100.0)	
	서리집사	7 (63.6)	1 (9.1)	3 (27.3)	11 (100.0)	
전체		20 (50.0)	7 (17.5)	13 (32.5)	40 (100.0)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기간과 관련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전도훈련 경험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12 주라고 답변한 자가 54.8%(17 명), 16 주라고 답변한 자가 19.4%(6 명), 8 주와 10 주라고 답변한 자가 각각 12.9%(4 명)로 나타났다. 전도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 16 주라고 답변한 자가 55.6%(5 명), 12 주라고 답변한 자가 33.3%(3 명), 4 주라고 답변한 자가 11.1(1 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설문 참가자(40 명) 중 12 주라고 답변한 자가 50.0%(20 명)으로 나타났고, 16 주라고 답변한 자가 27.5%(11 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문 참가자 중 다수가 12 주 이상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도훈련 경험이 없는 자가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을 더 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전도훈련 경험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에 대한 교차표

구분		소그룹 리더 전도훈련의 기간					전체	P-value
		4 주	8 주	10 주	12 주	16 주		
전도 훈련 경험	있다	0 (0.0)	4 (12.9)	4 (12.9)	17 (54.8)	6 (19.4)	31 (100.0)	9.736* (0.045/4)
	없다	1 (11.1)	0 (0.0)	0 (0.0)	3 (33.3)	5 (55.6)	9 (100.0)	
전체		1 (2.5)	4 (10.0)	4 (10.0)	20 (50.0)	11 (27.5)	40 (100.0)	

*P<.05 **P<.01 ***P<.001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중점과 관련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교회 규모에 따른 교회의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중점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교회(301-500명)의 경우 ‘대상자와 관계 맺기’와 ‘열린 소그룹 인도법’이 각각 40.0%(4명), ‘복음의 내용(교리)’이 20.0%(2명)으로 나타났다. 중대형교회와 대형교회의 경우 동일하게 ‘대상자와 관계 맺기’와 ‘복음의 내용(교리)’가 각각 50.0%(4명)으로 나타났다. 초대형교회의 경우 ‘복음의 내용(교리)’이 75.0%(9명), ‘대상자와 관계 맺기’가 16.7%(2명), 기타(전도 대상자 인도방법)가 8.3%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참가자 중 ‘복음의 내용(교리)’이라고 응답한 자는 50.0%(20명)로 나타났고, ‘대상자와의 관계 맺기’라고 응답한 자는 37.5%(15명)으로 나타났고, ‘열린 소그룹 인도법’은 10.0%(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중형교회의 경우 ‘열린 소그룹 인도법’을 선호하고, 중대형교회와 대형교회의 경우 ‘대상자와 관계 맺기’를 선호하며, 초대형교회의 경우 ‘복음의 내용(교리)’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교회 규모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중점에 대한 교차표

구분		소그룹 리더 전도훈련의 내용				전체	P-value
		대상자와 관계 맺기	복음의 내용 (교리)	열린 소그룹 인도법	기타		
교회 규모	301- 500 명	4 (40.0)	2 (20.0)	4 (40.0)	0 (0.0)	10 (100.0)	19.789* (0.019/9)
	501- 1,000 명	4 (50.0)	4 (50.0)	0 (0.0)	0 (0.0)	8 (100.0)	
	1,001- 10,000 명	5 (50.0)	5 (50.0)	0 (0.0)	0 (0.0)	10 (100.0)	
	10,001 명 이상	2 (16.7)	9 (75.0)	0 (0.0)	1 (8.3)	12 (100.0)	
전체		15 (37.5)	20 (50.0)	4 (10.0)	1 (2.5)	40 (100.0)	

*P<.05 **P<.01 ***P<.001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성별에 따른 교회의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소그룹 훈련이 88.2%(15명), 일대일 훈련과 현장실습 훈련이 각각 5.9%(1명)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소그룹 훈련이 56.5%(13명), 현장실습 훈련이 34.8%(8명), 일대일 훈련이 8.7%(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참가자 중 소그룹 훈련을 응답한 자는 70.0%(28명), 현장실습 훈련을 응답한 자는 22.5%(9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자와 여자 모두 소그룹 훈련을 가장 선호하고, 남자 보다 여자가 현장실습 훈련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성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에 대한 교차표

구분		소그룹 리더 전도훈련의 진행방식			전체	P-value
		일대일 훈련	소그룹 훈련	현장실습 훈련		
성별	남자	1 (5.9)	15 (88.2)	1 (5.9)	17 (100.0)	4.263 (0.234/3)
	여자	2 (8.7)	13 (56.5)	8 (34.8)	23 (100.0)	
전체		3 (7.5)	28 (70.0)	9 (22.5)	40 (100.0)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방식과 관련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목사의 경우 현장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50.0%(1명), 기타(설문지) 의견을 제시한 자가 50.0%(1명)로 나타났다. 부교역자의 경우 현장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60%(6명), 구두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30.0%(3명), 소그룹별 암송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10.0%(1명)로 나타났다. 중직자의 경우 현장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94.1%(16명), 구두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5.9%(1명)으로 나타났다. 서리집사의 경우 현장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81.8%(9명), 구두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18.2%(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참가자 중 현장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80.0%(32명)으로 나타났고, 구두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는 15.5%(6명)이었다. 이를 통해 4개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일반적으로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평가방식으로 현장 시험을 선호하며, 부교역자의 경우 구두시험과 소그룹별 암송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방식에 대한 교차표

구분		소그룹 리더 전도훈련의 평가방식				전체	P-value
		구두 시험	현장 시험	소그룹별 암송시험	기타		
직분	담임목사	0 (0.0)	1 (50.0)	0 (0.0)	1 (50.0)	2 (100.0)	25.969** (0.002/9)
	부교역자	3 (30.0)	6 (60.0)	1 (10.0)	0 (0.0)	10 (100.0)	
	중직자	1 (5.9)	16 (94.1)	0 (0.0)	0 (0.0)	17 (100.0)	
	서리집사	2 (18.2)	9 (81.8)	0 (0.0)	0 (0.0)	11 (100.0)	
전체		6 (15.0)	32 (80.0)	1 (2.5)	1 (2.5)	40 (100.0)	

*P<.05 **P<.01 ***P<.001

3. 소결론

다음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설문 결과를 설문 내용의 구성 - 인구사회학적 질문, 소그룹 유형과 특성에 대한 질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질문 - 에 기초하여 분석할 것이다.

1) 인구사회학적 질문에 대한 빈도 분석

본 설문에 참가한 자는 모두 40 명이었는데 목회자는 30.0%(12 명)였고 평신도는 70.0%(28 명)였으며 평신도 중 중직자는 60.7%(17 명)이었다. 참가자의 나이는 50-59 세가 42.5%(17 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 대의 참가자가 77.5%(31 명)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남자는 42.5%(17 명)였고 여자는 57.5%(23 명)였다. 참가자 중 신앙 경력이 21년 이상 된 자가 87.5%(35 명)으로 대다수를 형성하였다. 설문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규모는 초대형교회(10,001 명 이상)가 30.0%(12 명)로 가장 많았다. 참가자 중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77.5%(31 명)으로 나타났고, 목회자의 경우는 100.0%(12 명)로 나타났다.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참가자 중 지역교회에서 전도훈련을 받은 자가 61.3%(19 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설문 조사의 대상이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 소그룹 유형과 관련된 교차 분석

본 설문에 참가한 자가 출석하는 교회의 소그룹 유형은 다락방이 30.0%(12 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그룹 유형에 따른 소그룹의 강점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역과 가정교회는 ‘교제’를 강점으로 생각하는 자가 각각 100.0%(10 명), 90.0%(9 명)로 가장 많았고 목장과 다락방은 ‘양육’을 강점으로 생각하는 자가 각각 37.5%(3 명), 58.3%(7 명)로 가장 많았다. 소그룹 유형에 따른 소그룹의 약점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참가자 중 ‘전도’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55.0%(22 명)로 가장 많았다. 소그룹이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예’가 92.5%(37 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문 참가자들이 4 개

지역교회에서 운영 중인 소그룹 유형에 따라 장점은 각각 다르게 생각하지만 약점은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생각한다고 판단된다.

3)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빈도 분석

본 설문에 참가한 자가 출석하는 교회에는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이 있는 경우가 100.0%(40명)로 나타났다.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 기간은 ‘2년 이상’이 45.0%(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의 전도훈련 포함 여부는 57.5%(23명)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에 전도훈련이 포함된 경우 전도훈련 기간은 ‘13주 이상’이 60.9%(14명)로 가장 많았고, 전도훈련 내용은 ‘전도폭발 복음제시’가 78.3%(18명)로 가장 많았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 100.0%(40명)가 ‘예’라고 답하였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으로 기대하는 유익은 ‘소그룹의 성장과 배가’가 42.5%(1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문 조사에 참가한 자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칼넷(CAL-NET) 회원들로서 전도폭발 복음제시를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전도훈련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교차 분석

신앙 경력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에 참가한 자 중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를 ‘소그룹 멤버에 대한 양육’이라고 답변한 자가 52.5%(21명)으로 나타났고, 신앙 경력이 21년 이상인 참가자(35명)의 경우 ‘소그룹 멤버에 대한 양육’이라고 답변한 자는 60.6%(2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 경력이 많을수록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전도’보다는 ‘양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에 대해서 ‘모든 성도’라는 응답이 50.0%(20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설문 참가자들이 ‘모든 성도’를 잠재적 소그룹 리더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도훈련 경험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에 대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도훈련 경험이 있는 설문 참가자의 경우 12주라고 답변한 자가 54.8%(17명), 16주라고 답변한 자가 19.4%(6명)로 나타났고, 전도훈련 경험이 없는 설문 참가자의 경우 16주라고 답변한 자가 55.6%(5명), 12주라고 답변한 자가 33.3%(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도훈련 경험이 없는 자가 있는 자보다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더 길게 필요로 한다고 판단된다.

교회 규모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중점에 대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가 중형교회(301-500명)의 경우 ‘대상자와 관계 맺기’와 ‘열린 소그룹 인도법’이 각각 40.0%(4명)로 나타났고, 중대형교회(501-1,000명)와 대형교회(1,001-10,000)의 경우 ‘대상자와 관계 맺기’와 ‘복음의 내용(교리)’이 각각 50.0%(4명)으로 나타났고,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의 경우 ‘복음의 내용(교리)’이 75.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도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전체 참가자 중 ‘소그룹 훈련’이라고 답한 자가 70.0%(28명), ‘현장실습 훈련’이라고 답한 자가 22.5%(9명)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 ‘현장실습 훈련’이라는 답변이 5.9%(1명)이며 여자의 경우 34.8%(8명)이었다. 이는 성격과 기질에 있어서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진행방식에 대한 선호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직분에 따른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방식에 대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참가자 중 ‘현장 시험’이라고 응답한 자가 80.0%(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교역자의 경우 ‘현장 시험’이라고 답한 자가 60.0%(6명)이고 ‘구두 시험’이라고 답한 자가 30.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교역자가 ‘구두 시험’을 현장 실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할 것이며 제 5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5 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략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

5 장에서는 3 장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4 개 유형의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고, 4 장에서 설문 연구를 통해 분석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에 대한 기대 사항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략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주차별 훈련과정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1. 명칭과 목적과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Evangelism Academy for Small Group Leaders(EASGL)’으로 하며, 한국어로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학교’이고 ‘EASGL 전도훈련’이라고 약칭한다. 이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의 방향성을 암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그룹 리더 또는 예비 리더가 전도 지향적 소그룹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도대상자들의 상황을 파악한 이후 개인적으로는 관계전도¹⁹⁶⁾와 노방전도¹⁹⁷⁾를 실시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열린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6 가지이다. 첫째, 소그룹의 전도 지향적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요한복음 3:16 전도법을 습득한다. 셋째,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통해 전도현장을 경험한다. 넷째, 공개보고를 통해 전도현장의 교훈을 공유한다. 다섯째, 전도 대상자 가운데 한 명 이상을 선정하여 열린 소그룹에 진행한다. 여섯째, 지속적으로 전도 사역에 동참하도록 한다. 각 교육 목표의 성취를

196) 본 연구에서 ‘관계전도’는 제임스 케네디의 정의를 활용한다. 즉 ‘관계전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맺고 있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또한 앞으로 맺게 될 새로운 인간관계를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와 및 그의 백성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James Kennedy, 「전도폭발」(서울: 은광문화사, 2005), 28-9).

197) 일반적으로 ‘노방전도’는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전도대상자에게 전도지 등의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위한 교육과정은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하며 교실 수업은 강의, 시범, 공개보고, 소그룹 활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현장 실습은 관계전도, 노방전도, <열린 소그룹>을 체험하도록 구성한다. 교육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는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노방전도에 대한 평가로 성취 여부를 판단한다.

2. 교육 대상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은 지역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는 평신도가 1차 대상이며, 차기 리더로 준비되는 평신도가 2차 대상이다.¹⁹⁸⁾ 따라서 본 전도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소그룹 리더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복음제시를 위한 성경(교리)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교육 대상자의 선발은 나이와 성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교육과정 중 소그룹 활동 및 현장 실습이 있기 때문에 코치 및 부코치의 확보 여하에 따라 교육 인원은 제한될 수 있다. 타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자신이 출석하는 지역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를 받도록 한다.

3. 교육 기간

설문 결과 다수의 참가자가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으로 12주와 16주를 선택하였다. 교육 기간이 길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지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2주 과정이 더 합리적이다. 한편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12주 과정이 적절하다.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지역교회의 형편에 따라 교육 날짜를 지정할 수 있으나 공예배와

198) 제4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의 결과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은 소그룹의 리더 및 예비 리더로 한정한다.

소그룹 모임이 없는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은 각각 2시간으로 구성하며, 교실 수업의 경우 찬양 및 기도(15분), 전도 간증 및 공개 보고(5~10분), 시범(5~10분), 강의(40분), 소그룹 활동(50분)으로 구성한다. 소그룹 활동 및 현장 실습을 위해서 코치와 부코치를 각 소그룹에 배치하며, 교육 참가자는 각 소그룹별로 4-6명을 편성하고 각 소그룹 안에서 2-3명을 1개조로 편성한다.¹⁹⁹⁾ 주차별 전도훈련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0>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교실 수업 (am 10:00-pm 12:00)		현장 실습 (pm 1:00-3:00)
	전체 모임 (am 10:00-11:10)	소그룹 활동 (am 11:10-pm 12:00)	
1 주차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전도 간증: 1명)	소그룹 구성원 소개	없음
2 주차	소그룹과 전도대상자에 대한 이해 (전도 간증 및 전체 시범 1)	전도대상자 목록 작성	관계전도 참관
3 주차	요한복음 3:16 전도법 개요 (공개 보고 및 전체 시범 2)	핵심 단어 및 문장 암기	노방전도 참관
4 주차	“하나님, 세상” 강의 (공개 보고 및 시범)	“하나님, 세상” 확장 연습	관계전도 실습 (부분 참여)
5 주차	“사랑하사, 독생자” 강의 (공개 보고 및 시범)	“사랑하사, 독생자” 확장 연습	관계전도 실습 (부분 참여)
6 주차	“믿는 자, 멸망” 강의 (공개 보고 및 시범)	“믿는 자, 멸망” 확장 연습	노방전도 실습 (부분 참여)
7 주차	“영생” 강의 (공개 보고 및 시범)	“영생” 확장 연습	관계전도 실습 (전체 참여)
8 주차	복음제시 암기대회	소그룹별 발표 및 시상	노방전도 실습 (전체 참여)
9 주차	열린 소그룹의 준비 (공개 보고)	시간계획 및 초대장 만들기	개인별 관계전도

199) 제4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의 결과는 전도훈련의 진행방식은 ‘소그룹 훈련’과 ‘현장실습 훈련’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진행은 소그룹 활동(50분)과 현장 실습(2시간)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각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를 2명(코치, 부코치) 배치한다.

10 주차	열린 소그룹의 실제 (공개 보고)	열린 소그룹 실행 준비	소그룹 관계전도 (약속된 날짜)
11 주차	평가 안내 및 진행	소그룹별 현장 시험 준비	노방전도 평가
12 주차	수료예배 및 파송식 (수료자 간증: 2명)	전도헌신작성서 작성 및 제출	없음

4. 교육 내용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소그룹 리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차적으로 참가자들이 개인전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²⁰⁰⁾ 이를 위해 요한복음 3:16 전도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주차별로 진행한다. 전도폭발 복음제시는 암기 분량이 많아서 소그룹 리더들에게 부담감을 주며 전도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약점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16 전도법은 그림을 활용하여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복음제시를 하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와 전도 대상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복음제시가 가능하다.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은 소그룹의 리더와 예비 리더이므로 이들이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열린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현장 실습은 참관 2 회(관계전도 1 회, 노방전도 1 회) 이후 실습 5 회(관계전도 3 회, 노방전도 2 회)을 실시하며, <열린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 개인별 관계전도 1 회를 실시한다.

1) 1 주차 훈련

1 주차 훈련은 개강예배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전체 모임을 진행한다. 담당 교역자는 코치와 부코치에게 봉사자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소그룹 활동을 고려한 교실 환경을 준비한다.

200) 제4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의 결과는 전도훈련의 목표의 선호도가 ‘소그룹 멤버 양육’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우선적으로 ‘개인전도 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가 개인전도 능력을 갖춘 능숙한 전도자로 무장될 때 자신의 소그룹 멤버를 위한 복음제시 및 양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과 전도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쌓아가며 검증이 되면 ‘전교회적 전도사역 스텝’으로 봉사할 수 있다.

개강예배의 사회는 담당 교역자가 진행하며 전도훈련을 위한 찬양팀을 구성하여 봉사하도록 한다. 대표 기도는 전도사역을 담당하는 장로가 담당한다. 설교는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전도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개강예배 시 소그룹 리더 중 1명을 선발하여 전도 현장의 은혜와 이로 인한 소그룹의 변화를 간증하도록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담당 교역자가 진행하며, 전반적인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 훈련 진행을 돕는 코치와 부코치를 소개하고, 훈련서약서 작성을 인도한다. 훈련서약서 작성 이후 담임목사의 축도로 개강예배를 마무리 한다.

<표 31> 훈련서약서 예시

“훈련서약서”
<p>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학교(EASGL 전도훈련)’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p> <p>하나, 나는 앞으로 12주 동안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학교(EASGL 전도훈련)’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결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겠습니다.</p> <p>하나, 나는 담당 교역자와 소그룹 리더(코치와 부코치)의 지도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p> <p>하나, 나는 요한복음 3:16 전도법을 완전히 숙달하고 현장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p> <p>하나, 나는 <열린 다락방>을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하나, 나는 매일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학교(EASGL 전도훈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9월 3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p>

전체 모임(개강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각 코치와 부코치에 의해 소그룹 활동이 진행된다.²⁰¹⁾ 소그룹 구성원은 4-6명으로 하여 코치와 부코치가 각각 2-3명의 조원들을 지도하도록 한다. 1주차 소그룹 활동은 구성원들을 서로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며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에 대해 서로 나눈다. 행정팀에서는 미리 명찰과 출석부를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소그룹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코치와 부코치가 활용할 수 있는 소그룹

201) 코치와 부코치는 전도훈련을 위한 각 소그룹의 리더를 의미하며, 각각 소그룹 안에서 2-3명으로 구성된 조를 이끄는 조장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두 사람 중 전도 사역의 경험이 많은 자를 코치로 임명하여 소그룹 전체를 인도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을 부코치로 임명하여 코치의 역할을 보조하도록 한다.

활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신의 이름, 가족, 직업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
- 교회에 등록하게 된 계기와 자신을 교회로 인도해준 사람에 대해 소개하기
- 개강예배 설교와 간증을 통해 도전 받은 부분에 대해 나누기
-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나누기

1 주차 현장 실습은 없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고, SNS 를 통해 조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전도훈련과 관련된 자료 및 동영상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원들이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돕는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1 주차 큐시트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 EASGL 전도훈련 1 주차 큐시트

시 간	내 용	담당자	준비사항
9:30 ~ 10:00	교실 세팅	봉사자	프로젝트, 마이크, 명찰 등
10:00 ~ 10:10	찬양	찬양팀	PPT
10:10 ~ 10:15	대표 기도	담당 장로	
10:15 ~ 10:40	설교	담임목사	자막(본문 및 제목)
10:40 ~ 10:45	전도 간증	소그룹 리더	간증문 작성(4 분 이내)
10:45 ~ 11:00	오리엔테이션 - 훈련과정 및 조장 소개	담당 교역자	PPT
11:00 ~ 11:05	훈련서약서 작성	담당 교역자	훈련서약서(배부용)
11:00 ~ 11:10	축도	담임목사	
11:10 ~ 12:00	소그룹 활동 - 소그룹 구성원 소개	조별 코치	조별 출석부

2) 2 주차 훈련

2 주차부터 본격적인 전도훈련이 시작된다. 교실 수업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며 담당 교역자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훈련일정을 진행한다. 2 주차에는 전도를 받아 교회에 정착한 성도를 섭외하여 간증을 들으며, 전도 간증은 2 주차로 마감한다. 전도 간증 이후 관계전도를 가정한 전체 전도 시범을 진행한다. 전도 시범 담당자는 각 소그룹의 코치들이 순서를 정하여 진행하고, 부코치가 전도대상자의 역할을 한다.

전도 시범 이후 담당 교역자가 2주차 강의를 진행하며 주제는 ‘소그룹과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해’이다.²⁰²⁾ 담당 교역자는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하여 강의하도록 한다. 강의 이후 각 조별로 코치의 인도에 따라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며, 주제는 ‘전도대상자 목록 작성’이다. 코치는 각 조원들이 전도대상자 목록을 2장 작성하도록 하여 한 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코치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코치는 조원들의 전도대상자를 정리하여 조원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시작한다.

현장 실습은 코치와 부코치가 중심이 되어 각각 1개 조를 인솔하여 관계전도를 실시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사전에 각각 전도대상자를 섭외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조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3:16 전도법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결신기도를 인도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각 조원들과 더불어 전도보고서를 작성하며 조원들에게 작성 요령을 교육한다. 전도보고서의 내용에는 전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 복음제시의 내용 및 결과, 현장에서의 소감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표 33> 전도대상자 목록 예시

순서	이름	관계	현재 상황 및 기도제목
1			
2			
3			
4			
5			
6			
7			

<표 34> 전도보고서 예시

전도보고서	
1. 전도 유형	관계전도(), 노방전도()
2. 이름	
3. 성별	남자, 여자
4.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202) 제4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의 결과, 전도훈련의 내용 중점의 선호도는 ‘복음의 내용(교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와 관계 맺기’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3장 사례연구에서 가정교회 소그룹을 운영 중인 화평교회의 경우 불신자를 비롯하여 가정교회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의 첫 강의를 의도적으로 ‘소그룹과 전도대상자에 대한 이해’로 구성하여 강사가 소그룹의 전도 지향적 특성과 전도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도록 한다.

5. 주소지	
6. 연락처	
7. 교회출석 여부	본교회 출석, 타교회 출석, 타종교(천주교/불교/기타), 무교
8. 구원의 확신 여부	확신이 있다. 확신이 없다. 모른다.
9. 복음제시 여부	하나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 믿는 자, 멸망, 영생
10. 결신 여부	결신, 미결신, 보류
11. 현장에서의 소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2주차 큐시트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으며, 3주차 이후의 훈련과정은 2주차 큐시트에 준하여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표 35> EASGL 전도훈련 2주차 큐시트

시 간	내 용	담당자	준비사항
9:30 ~ 10:00	교실 세팅	봉사자	프로젝트, 마이크, 명찰 등
10:00 ~ 10:10	찬양	찬양팀	PPT
10:10 ~ 10:15	합심 기도	담당 교역자	
10:15 ~ 10:20	전도 간증 - 전도를 받은 이야기	소그룹 멤버	자막(본문 및 제목)
10:20 ~ 10:30	전도 시범 - 관계전도 상황	코치 중 1명	PPT(배경 화면)
10:30 ~ 11:10	강의 - 소그룹과 전도대상자 이해	담당 교역자	PPT
11:10 ~ 12:00	소그룹 활동 - 전도대상자 목록 작성	조별 코치	조별 출석부 전도대상자 목록 양식(2장)
12:00 ~ 13:00	점심식사 및 이동	코치, 부코치	이동수단 확보
13:00 ~ 15:00	현장 실습: 관계전도 참관	코치, 부코치	복음제시 후 보고서 작성

3) 3주차 훈련

3주차 훈련부터 요한복음 3:16 전도법 강의가 시작된다. 요한복음 3:16 전도법은 광명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한 미국인 선교사가 요한복음 3:16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으며 복음의 개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²⁰³⁾ 강사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1개 조를 선정하여 2주차 현장 실습에 대한 공개보고(5분)를 진행하고, 코치 중 1명은 2주차에 이어 한 번 더 전체 전도시범(10분)을 하되 노방전도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203) 광명옥, 「나는 전한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81-3.

3주차 훈련에서는 요한복음 3:16 전도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며, 7개의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을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강조한다. 7개의 핵심 문장은 첫 글자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함으로써 암기가 쉽도록 배려한 것이다.

<표 36> 요한복음 3:16의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

순서	핵심 단어	핵심 문장
1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2	세상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세상'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3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여야 했습니다.
4	독생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5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6	멸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7	영생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림 1> 요한복음 3:16 전도법 그림²⁰⁴⁾



3 주차 소그룹 활동은 2 주차 관계전도 참관에 대한 조별 공개보고 및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코치는 공개보고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부코치가 공개보고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코치와 부코치는 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조원 모두가 첫 번째 전도 현장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요한복음 3:16 전도법의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을 암기하도록 지도하고, 핵심 문장 암기가 완료된 이후 핵심 문장을 활용한 복음제시 연습을 진행한다. 핵심 문장을 적절한 접속사와 단어로 연결하면 매우 간결한 복음제시가 가능하다.

204) 광명옥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계속 읊조리던 중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복음제시를 위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이웃에 살고 있었던 삽화가의 도움을 받아 그림 전도지를 완성하였다(광명옥, 「나는 전한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82-3).

<표 37> 공개보고 예시

제 1 조 공개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의 조장은 홍길동이고 조원은 김철수, 이영희입니다.
 저희 조는 지난 주에 관계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박민기 씨인데, 남자이고, 60 대이며, 서초동에 살고 계십니다.
 전도 대상자는 타종교(불교) 신자이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복음제시를 하나님부터 영생까지 실시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결신을 보류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나쁜 경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1 조 공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 38> 요한복음 3:16 핵심 문장을 활용한 복음 제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세상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3 주차 현장 실습은 노방전도 참관으로 진행한다.²⁰⁵⁾ 코치와 부코치는 사전에 노방전도 현장을 결정하고 그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원들에게 설명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에게 노방전도 시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하고 전도 현장과 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각 1 개조를 인솔하여 노방전도 현장으로 이동하며, 전도대상자를 찾아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제시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후속양육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정중하게 전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고 전도보고서에 반영한다.

4) 4 주차 훈련

4 주차 훈련부터 요한복음 3:16 전도법의 핵심 문장을 확장해가는 훈련을 실시한다. 4 주차부터는

205) 제4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의 결과, 전도훈련의 진행 방식의 선호도는 ‘소그룹 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현장실습 훈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3장 사례연구에서 구역을 운영 중인 만남의교회와 목장을 운영 중인 신일교회는 노방전도 시 차를 나누는 봉사 위주의 전도활동을 실시하였고, 가정교회를 운영 중인 화평교회는 교회 내의 전도대상자(새가족 또는 양육반 수강생)에게 복음제시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의 현장실습은 노방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도훈련 참여자들이 노방에서 전도대상자를 찾아 복음제시를 하도록 진행한다.

2 개 조가 공개보고를 하며(10 분), 시범은 각 주차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진행하도록 한다(5 분).

4 주차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 세상’이다. 강사는 핵심 단어 중 ‘하나님, 세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성경 구절과 보조 문장을 동원하여 핵심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강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강조하고 ‘세상’을 설명할 때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²⁰⁶⁾

4 주차 소그룹 활동은 3 주차 노방전도 참관에 대한 조별 공개보고 및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코치와 부코치가 한 번 더 공개보고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조원 모두가 전도 현장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코치는 5 주차 공개보고부터 조원들이 주도적으로 공개보고를 실시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하나님, 세상’에 대한 보조 문장을 암기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소그룹 활동 시간 안에 보조 문장을 암기하도록 지도한다.

<표 39> ‘하나님, 세상’ 핵심 문장 확장하기

핵심 단어	핵심 문장	보조 문장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세상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처음 조상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 주차 현장 실습은 관계전도 실습으로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4 주차부터 조원들이 현장 실습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다음 주 5 주차의 관계전도 실습을 위해 조원들이

206) 제4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 참여자들이 전도훈련의 내용 중점으로 ‘복음의 내용(교리)’을 가장 선호하였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의 4주차부터 7주차까지 진행되는 강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사는 전도훈련 참여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참고도서를 제시한다.

전도대상자를 섭외하여 약속을 정하도록 지도한다. 조원들은 4 주차까지 암기한 ‘하나님, 세상’에 대한 핵심 문장과 보조 문장을 활용하여 복음제시에 참여한다. 코치는 현장 실습 전에 조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정해주고 조원들의 복음제시가 막힐 때 자신이 이어서 복음제시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에게 관계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도 현장과 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각 1 개조를 인솔하여 관계전도 현장으로 이동하며, 전도대상자에게 조원들을 소개하며 복음제시를 시작하고 약속된 지점에서 조원들에게 복음제시를 넘긴다.²⁰⁷⁾ 코치와 부코치는 현장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원들을 격려하고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표 40> 코치가 조원에게 복음 제시를 넘겨주는 예시

* 코치: 선생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집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선생님께 설명해주시겠어요?

* 조원: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 코치: 선생님,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선생님과 저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5) 5 주차 훈련

5 주차 훈련도 4 주차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16 전도법의 핵심 문장을 확장해가는 훈련을 실시한다. 5 주차부터는 조원들이 주도하여 공개보고를 하며(10 분), 시범은 5 주차 주제에 따라 ‘사랑하사, 독생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한다(5 분). 강사는 핵심 단어 중 ‘사랑하사, 독생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성경 구절과 보조 문장을 활용하여 핵심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207) 제3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 사례연구에서 가정교회를 운영 중인 화평교회와 다락방을 운영 중인 사랑의교회는 현장전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그룹 리더들이 전도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에서는 현장실습 중에 조장인 코치와 부코치가 조원들을 복음제시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원들이 전도현장의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돕는다.

강사는 ‘사랑하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강조하고 ‘독생자’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및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강조한다.

5주차 소그룹 활동은 4주차 관계전도 실습에 대한 조별 공개보고를 발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원들은 코치와 부코치가 지난 3, 4주차에 보여준 형식에 따라 공개보고를 실시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조원 모두가 전도 현장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사랑하사, 독생자’에 대한 보조 문장을 암기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소그룹 활동 시간 안에 보조 문장을 암기하도록 지도하며, 자신이 현장에서 유익했던 사례들을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조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표 41> ‘사랑하사, 독생자’ 핵심 문장 확장하기

핵심 단어	핵심 문장	보조 문장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5주차 현장 실습은 4주차에 이어 관계전도 실습으로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4주차에 비해 더 많은 부분을 조원들이 현장 실습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조원들에게 복음제시 역할을 분배하고, 6주차 노방전도를 어떤 장소로 나갈 지에 대해 조원들과 상의한다. 가장 일반적인 노방전도의 장소는 병원, 공원, 노인정, 지하철역, 터미널 등이다. 조원들은 5주차까지 암기한 ‘사랑하사, 독생자’에 대한 핵심 문장과 보조 문장을 활용하여 복음제시에 참여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섭외한 전도 대상자에 대한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전도 현장과 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각 1개조를 인솔하여 관계전도 현장으로 이동하며, 조원 중의 한 명이 전도 대상자에게 조장(코치, 부코치)과 조원들을 소개한다. 조장(코치, 부코치)은 조원의 소개를 이어 받아

복음제시를 시작하고 약속된 지점에서 조원들에게 복음제시를 넘긴다. 코치와 부코치는 현장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원들을 격려하고 전도보고서를 작성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지도한다.

6) 6 주차 훈련

6 주차 훈련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3:16 전도법의 핵심 문장을 확장해가는 훈련을 실시한다.

5 주차와 마찬가지로 조원들이 주도하여 공개보고를 하며(10 분), 시범은 6 주차 주제에 따라 ‘믿는 자, 멸망’에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한다(5 분). 강사는 핵심 단어 중 ‘믿는 자, 멸망’의 의미에 대해 강의하고, 성경 구절과 보조 문장을 활용하여 핵심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요한복음 3:16 전도법의 강점이 이 부분에 있으므로, 강사는 ‘믿는 자’를 설명할 때 죄 용서와 천국의 영생을 강조하고 ‘멸망’을 설명할 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처참함에 대해 강조한다.²⁰⁸⁾

6 주차 소그룹 활동은 5 주차 관계전도 실습에 대한 조별 공개보고로 시작한다. 5 주차 관계전도는 조원들이 전도 대상자를 섭외하여 진행한 현장 실습이었으므로 조원들의 생각과 느낌을 충분히 나누도록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7 주차 관계전도와 8 주차 노방전도를 할 때 조원들이 전체 복음제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조원들을 격려한다. 단, 결신 과정과 기도는 코치와 부코치가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조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믿는 자, 멸망’에 대한 보조 문장을 암기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소그룹 활동 시간 안에 보조 문장을 암기하도록 지도하며, 조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표정, 억양, 자세 등의 비언어적 요소까지 세밀하게 설명한다.

208) 제3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넷(CAL-NET)에 소속된 지역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전도폭발훈련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전도폭발 복음제시는 전도대상자가 결신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3:16 전도법은 핵심 단어 중 ‘멸망’에 대해 복음제시를 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전도대상자가 결신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42〉 ‘믿는 자, 멸망’ 핵심 문장 확장하기

핵심 단어	핵심 문장	보조 문장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난, 질병, 고통, 불행, 죽음이 없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멸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 곧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천국, 지옥 중 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6 주차 현장 실습은 노방전도 실습으로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이제 조원들이 복음제시 전체를 전도 대상자에게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격려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전도 대상자와 접촉하는 부분을 담당할 이후에 ‘하나님’부터 ‘멸망’까지 조원들이 복음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준다. 조원들은 6 주차까지 암기한 ‘믿는 자, 멸망’에 대한 핵심 문장과 보조 문장을 활용하여 복음제시에 참여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로 하여금 7 주차 관계전도 실습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도하고, 7 주차 관계전도 실습은 조원들이 전체 복음제시뿐만 아니라 결신 과정과 기도까지 진행해야 함을 설명한다. 한편 코치와 부코치는 9 주차와 10 주차에 <열린 소그룹>을 준비하고 실행한다는 사실을 조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현장 실습에서 만난 전도대상자 중 어떤 사람을 <열린 소그룹>의 초청 대상으로 선정하면 좋을 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제안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지난 주에 조원들과 함께 선정한 노방전도 현장의 특성에 대해 조원들에게 설명하고 전도 대상자를 순적하게 만나고 조원들이 담대하게 복음제시를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각 1 개조를 인솔하여 노방전도 현장으로 이동하며, 노방전도 현장에서 전도대상자를 물색하여 접촉한 이후 조원들을 소개한다. 조원들은 조장(코치, 부코치)의 소개를 이어 받아 복음제시를 시작하고 약속된 지점에서 결신 과정과 기도 부분을 조장에게 넘긴다.²⁰⁹⁾ 코치와 부코치는 현장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원들과 노방전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서로

209) 복음제시 이후 ‘결신’의 단계는 매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조원들이 7 주차 훈련을 통해 결신 과정과 기도에 대해 이해하고 연습하여 숙달할 때까지 조장(코치와 부코치)이 ‘결신’ 단계를 전담하도록 한다.

논의하고 조원들이 그 결과를 8 주차에 있을 노방전도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7) 7 주차 훈련

7 주차 훈련은 요한복음 3:16 전도법의 핵심 문장을 확장해가는 마지막 훈련이다. 공개보고는 계속해서 조원들이 주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10 분), 시범은 7 주차 주제에 따라 ‘영생, 결신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한다(5 분). 강사는 핵심 단어 중 ‘영생’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보조 문장을 활용하여 핵심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과 결신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강사는 조원들로 하여금 결신 기도가 전도 대상자들이 믿음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임을 인식시킨다.

7 주차 소그룹 활동은 6 주차 노방전도 실습에 대한 조별 공개보고로 시작한다. 6 주차 노방전도는 조원들이 ‘하나님’부터 ‘멸망’까지 복음제시의 전체 내용을 담당한 현장 실습이었으므로 조원들의 생각과 느낌을 충분히 나누도록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에게 8 주차에 있을 <복음제시 암기대회>의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조원들과 함께 ‘구호, 복장, 퍼포먼스 등’에 대해 논의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영생’에 대한 보조 문장을 암기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소그룹 활동 시간 안에 보조 문장을 암기하도록 지도하며 ‘결신기도 인도하기’가 숙달되도록 연습시킨다.

<표 43> ‘영생’ 핵심 문장 확장하기

핵심 단어	핵심 문장	보조 문장
영생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천국의 선물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받으시겠습니까?

<표 44> 결신 기도 인도하기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 10:10)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주차 현장 실습은 관계전도 실습으로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이제 조원들이 전체 복음제시와 결신기도 인도까지 담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격려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7주차 관계전도 실습의 전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결신 기도에 이르기까지 조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조원들이 복음제시를 하다가 막히거나 결신 기도 인도를 부담스러워 할 경우에는 코치와 부코치가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코치와 부코치는 지속적으로 <열린 소그룹>에 대한 정보를 조원들에게 제공하고, 특히 복수의 초청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중보기도체인을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정한 관계전도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도제목을 나누게 하고 현장 실습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각 1개조를 인솔하여 관계전도 현장으로 이동하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원들을 교육한다. 조원들은 주도적으로 복음제시를 시작하고 가능하면 결신기도까지 인도한다. 만약 복음제시를 하다가 막히거나 결신기도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경우 조장(코치, 부코치)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준다. 코치와 부코치는 현장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도적으로 현장 실습을 이끌어간 조원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경청하고, 8주차에 진행되는 <복음제시 암기대회> 연습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다.

8) 8주차 훈련

8주차 훈련은 조원들이 요한복음 3:16 전도법을 완전히 암기할 수 있도록 소그룹별 경연의 형태로 <복음제시 암기대회>로 진행한다.²¹⁰⁾ 강사는 사전에 핵심 문장을 확장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예문을 조원들에게 제공하며, 코치와 부코치는 강사가 제시한 복음제시 전문을 기초로 조원들이 자신들만의 복음제시 전문을 만들어 연습하도록 지도한다. 이 때 <복음제시 암기대회>의 역동성을 위해 코치와 부코치는 ‘구호, 복장, 퍼포먼스 등’을 구상하여 조원들과 논의하며 필요 시 ‘배경 음악,

210) 제4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에서 설문 참가자들이 전도훈련의 평가방식으로 ‘현장 시험’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구두시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에서는 11주차에 진행되는 ‘소그룹별 현장 시험’과 별도로 참여자들의 복음제시 능력을 제고하고 암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복음제시 암기대회>를 진행한다.

영상, 찬양, 워십댄스 등'의 요소를 가미하여 <복음제시 암기대회>가 재미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강사는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담임목사와 담당 장로 등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하여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 차원의 관심을 보여주도록 한다. 심사 기준은 '출석(30 점), 암기완성도(30 점), 복음제시의 창의성(20 점), 태도 및 자신감(10 점), 퍼포먼스 준비(10 점) 등'으로 구분하여 총점 100 점으로 평가한다. 각 소그룹별 복음제시 경연이 완료되면 사회자(담당 교역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찬양을 인도한다. 집계가 완료되면 담임목사가 등단하여 격려와 더불어 총평을 하고 우수 소그룹에 대한 시상을 한다. 가능하면 모든 소그룹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소그룹별 특성을 반영한 시상 - 암기 우수상, 퍼포먼스 우수상 등 - 을 하도록 한다.

<표 45>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 예문²¹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처음 조상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난, 질병, 고통, 불행, 죽음이 없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천국, 지옥 중 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천국의 선물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받으시겠습니까?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 10:10)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해주시겠습니까?

211)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는 강사가 4-7주차 교실 수업을 통해 설명하고 제시한 '보조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이다. 그런데 전도자는 더욱 풍성한 복음제시를 위해 핵심 문장과 관련된 성경 구절, 적절한 예화, 개인 간증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자신만의 특화된 복음제시를 할 수 있다. 코치와 부코치는 이미 전도훈련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특화된 복음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복음제시 암기대회>를 활용하여 조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로 삼는다. 한편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는 암기 분량이 '전도폭발 복음제시'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 또는 예배 리더가 EASGL 전도훈련에 지원하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주차 소그룹 활동은 <복음제시 암기대회>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7 주차 관계전도 실습에 대한 조별 공개보고로 시작한다. 7 주차 관계전도는 조원들이 복음제시의 전체 내용과 결신기도까지 담당할 현장 실습이었으므로 모든 조원들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도록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에게 9 주차 현장 실습은 ‘개별 관계전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조원 각자가 전도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코치와 부코치는 9 주차에 예정된 <열린 소그룹> 준비를 위해 조원들과 함께 초청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원들 각 자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열린 소그룹>을 진행하는 날짜는 전도훈련 일정과 겹치지 않는 다른 날로 결정한다.

<표 46> 열린 소그룹을 위한 역할 분담표²¹²⁾

역할	담당자	역할	담당자
데코레이션		간증(4 분 이내)	
순서지와 명찰 만들기		복음 제시	
찬양 인도(축복송)		선물(부담 없는 것)	
음식(다과) 준비		교회 소개, 감사 기도	코치(또는 부코치)
아이스 브레이크		사진 촬영	

8 주차 현장 실습은 노방전도 실습으로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복음제시 암기대회>를 통해 복음제시 능력을 완전하게 습득했음을 격려하고, 실제로 노방전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8 주차 노방전도 실습 시 전도 현장의 선정 및 전도 대상자 접촉을 비롯하여 결신 기도에 이르기까지 조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지난 7 주차와 마찬가지로 조원들이 복음 제시를 하다가 막히거나 결신기도 인도를 부담스러워 할 경우에는 코치와 부코치가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노방전도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순적하게 만나고 조원들이 대상자 접촉부터

212) <열린 소그룹>은 모든 소그룹 구성원이 자신의 은사대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장(코치와 부코치)은 조원들각자의 성격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단, ‘교회 소개와 감사 기도’는 교회와 소그룹을 잘 이해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코치 또는 부코치가 전담한다.

결신기도 인도까지 담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각 1 개조를 인솔하여 노방전도 현장으로 이동하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복음제시 전문 암기와 결신기도 인도 요령에 대해 한 번 더 조원들을 교육한다. 조원들은 주도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 복음제시를 시작하고 가능하면 결신기도까지 인도한다. 만약 복음제시를 하다가 막히거나 결신기도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경우 조장(코치, 부코치)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준다. 코치와 부코치는 현장 실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 노방에서 주도적으로 현장 실습을 이끌어간 조원들을 격려하고, 10 주차에 진행되는 <열린 소그룹> 준비를 위해 실시하는 9 주차 훈련의 소그룹 활동(초청장 만들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9) 9 주차 훈련

9 주차 훈련은 <열린 소그룹>의 준비와 실행을 위한 첫 번째 훈련이다. 공개보고는 계속해서 조원들이 주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5 분), <열린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소그룹 리더를 세워 간증을 하도록 한다(5 분). 7 주차로 종료된 시범을 대신하여 요한복음 3:16 전도법 중에서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 예문’을 함께 암송하며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5 분). 강사는 <열린 소그룹>과 관련하여 목적과 의미, 시간진행계획, 조원들의 역할 분담, 중보기도 등에 대해 강의한다.²¹³⁾

213) 제3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 사례연구에서 목장을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신일교회는 소그룹 단위로 노방전도(70인 전도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지만 멤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가정교회를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화평교회는 소그룹 전도(가정교회 전도축제)를 실시하지만 소그룹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에서는 8, 9주차 훈련과정에 <열린 소그룹>을 반영함으로써 소그룹 리더들이 전도훈련 단계에서부터 모범적인 소그룹 전도를 경험하게 하여 자신이 인도하는 소그룹에서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열린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표 47〉 열린 소그룹 시간진행계획 예시

순서	시간(3H)		내용	준비물
준비	10:00-10:30	30 분	데코 및 다과 준비	현수막, 장식품, 순서지
환영 및 인사	10:30-10:40	10 분	코치, 부코치, 조원 소개	명찰, 간식, Ice-Break
찬양	10:40-10:45	5 분	환영과 축복	악보, Guitar, 음원(MP3)
간증	10:45-10:50	5 분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문
특별 성경공부	10:50-11:35	45 분	귀납적으로 인도	열린 소그룹 교재, 필기구
복음제시 및 결신	11:35-11:45	10 분	간결하고 확실한 복음	전도 보조자료
축복송 및 선물	11:45-11:50	5 분	감사와 축복	신앙서적, CCM 음반
교회 소개	11:50-11:54	4 분	예배 및 소그룹 안내	교회주보, 브로셔
감사기도	11:54-11:55	1 분	짧고 은혜로운 기도	기도문
점심식사 및 교제	11:55-12:50	55 분	자연스러운 대화	음식, 과일, 커피/차
작별 및 마무리	12:50-13:00	10 분	연락처 교환 및 작별인사	기념사진 촬영

9 주차 소그룹 활동은 8 주차 노방전도 실습에 대한 조별 공개보고로 시작한다. 8 주차 노방전도는 조원들이 전도대상자 선정 및 복음 제시, 결신 기도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을 담당할 현장 실습이었으므로 조원들의 생각과 느낌을 충분히 나누도록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열린 소그룹> 진행을 위해 각 조원들에게 부여된 역할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강사가 제시한 ‘열린 소그룹을 위한 시간사용계획’을 참고하여 조원들과 함께 시간계획을 논의하여 확정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미리 준비한 ‘초청장 만들기’ 재료들을 조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그룹별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인 초청장을 제작한다.

9 주차 현장 실습은 개인별 관계전도 실습으로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각 자의 전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기도제목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지도하고 전도대상자와 개인별 관계전도 현장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만약 전도대상자 선정에 실패한 조원이 있다면, 전도대상자를 선정한 조원과 함께 개인별 관계전도 현장을 따라가도록 하거나 코치 또는 부코치와 함께 노방전도 실습을 한 번 더 하도록 지도한다. 9 주차 개인별 관계전도 실습 이후 조원들은 다시 모이지 않고 전도대상자와 교제의 시간을 갖거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 각자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별 관계전도 현장 실습에 대한 소감을 경청하고, 10 주차에 진행되는 <열린 소그룹>에 참석하기로 약속된 초청 대상자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한다.

10) 10 주차 훈련

10 주차 훈련은 <열린 소그룹>의 준비와 실행을 위한 두 번째 훈련이다. 공개보고는 계속해서 조원들이 주도하여 실시하되 <열린 소그룹> 초청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관계전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조원이 발표하도록 하며(10 분), 9 주차에 이어 요한복음 3:16 전도법 중에서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 예문’을 함께 암송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다(5 분). 강사는 <열린 소그룹>과 관련하여 진행 시 주의 사항과 실시 이후 후속양육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함으로써 훈련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수료간증문의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표 48> 수료간증문 작성 양식

* 제목: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다	이름: ○○○ 집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도훈련을 받기 이전의 상태 2. 전도훈련을 받게 된 동기 3. 전도훈련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4. 현장 실습의 사례 소개 5. 전도훈련 이후의 각오와 결단 	

10 주차 소그룹 활동은 9 주차 개인별 관계전도 실습에 대한 조별 공개보고로 시작한다. 9 주차 개인별 관계전도는 조원들이 <열린 다락방>에 초청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대일로 복음제시를 한 것이므로 조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누도록 진행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9 주차에 실시한 역할 분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원들의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데코레이션: 초청 대상자를 환영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하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 순서지와 명찰: 깔끔하게 디자인하고 글씨가 눈에 잘 보이도록 편집한다.
- 아이스 브레이크: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한다.
- 찬양과 축복송: 악보, 악기 또는 음원을 준비하되 잘 알려진 곡을 선정한다.
- 간증: 원고를 A4 1 장으로 작성하여 4 분 이내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특별 성경공부: 교회에서 제공한 <특별 성경공부 교재>를 활용한다. ²¹⁴⁾
- 복음 제시: 요한복음 3:16 전도법을 위한 그림을 코팅하여 준비한다.
- 선물: 초청 대상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한다.
- 교회 소개: 주보 및 브로셔 등을 준비하여 주일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안내한다.
- 다과와 식사: 조원들 각자 한 가지씩 메뉴를 준비하여 가져오도록 한다.
- 감사기도: 초청 대상자를 축복하는 내용과 식사기도를 포함하여 기도문을 작성한다.
- 사진: 초청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액자를 만들어 다음 만남에서 전달한다.

10 주차 현장 실습은 약속된 날짜에 소그룹 관계전도 즉 <열린 소그룹>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훈련 당일에는 현장 실습을 진행하지 않는다. 코치와 부코치는 초청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기도제목을 간략하게 나누고 조원들과 함께 <열린 소그룹>의 은혜로운 진행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11 주차에 전도훈련에 대한 평가가 노방전도로 진행됨을 안내하고, 수료간증문 작성을 위한 샘플을 조원들에게 제공하여 11 주차에 수료간증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11) 11 주차 훈련

11 주차 훈련은 노방전도를 중심으로 전도훈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공개보고는 10 주차에 소그룹별로 실시한 <열린 소그룹>에 대한 은혜와 감동을 조원들이 주도적으로 발표하되 가능하면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10 분). 9 주차와 10 주차에 이어 요한복음 3:16 전도법 중에서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 예문’을 함께 암송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다(5 분). 강사는 전도훈련에 대한 훈련생들의 피드백을 설문지를 통해 받으며, 소그룹별로 진행되는 현장 시험에 대해 안내한다.

214) 열린 소그룹을 위한 ‘특별 성경공부 교재’는 담임목사의 설교 중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설교를 선별하여 교재로 만들거나 이미 출간되어 있는 교재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소그룹 리더가 질문과 경청의 기법을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함으로써 초청 대상자의 마음과 입을 열도록 유도해야 한다.

<표 49>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 예시

질문	평가(○로 표시)
1. 전도훈련은 유익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 강의는 도움이 되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소그룹 활동은 유익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현장 실습은 적절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요한복음 3:16 전도법은 유용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6. <복음제시 암기대회>는 유익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7. <열린 소그룹>은 적절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8. 나는 최선을 다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훈련을 추천하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 나는 조장으로 섬기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전도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건의사항(서술형)	

11 주차 소그룹 활동은 10 주차에 진행된 <열린 다락방>에 대해 조원들 각자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발표하도록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열린 소그룹>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의 수료간증문을 수거하고 그 중에서 은혜로운 간증문을 선정하여 12 주차 수료예배 시 발표할 수 있도록 담당 교역자에게 건의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소그룹 활동 시간에 요한복음 3:16 전도법에 대한 조원들의 암기 상태를 점검하고, 노방전도로 진행되는 현장 시험에 대해 설명한다. 현장 시험 장소는 그동안 조원들이 노방전도에 참여했던 장소 중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결정한다.

11 주차 현장 실습은 노방전도 평가를 중심으로 현장 시험으로 진행한다.²¹⁵⁾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과 전도대상자와 전도 현장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각 1 개조를 인솔하여 현장 시험을 실시하고 조원들을 평가한다. 조원들은 전도대상자 접촉부터 시작하여 결신 기도에 이르기까지 노방전도를 실시하며, 조원들 각자가 역할을 바꾸어 같은 장소에서 2-3 회 노방전도를

215) 제4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에서 설문 참가자들은 전도훈련 평가 방식으로 ‘현장시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에서는 조장(코치와 부코치)에 의해 소그룹별로 현장 시험을 실시하되 조원들이 노방전도를 실시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며 평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담당 교역자는 사전에 조장들에게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시험을 진행하며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한다. 현장 시험 이후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과 함께 노방전도 현장을 벗어나 조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조원 각자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평가해준다. 코치와 부코치는 각 조원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표 50> 현장 시험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 수준(○로 표시)
1. 전도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2.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한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3. 요한복음 3:16 전도법 복음제시는 어떠한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4. 결신기도 인도는 어떠한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5. 전도 현장 마무리는 어떠한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 최종 합격 여부	합격, 불합격
* 코치와 부코치의 전반적인 평가(서술형)	

12) 12 주차 훈련

12 주차 훈련은 전체 모임을 수료예배 및 파송식으로 진행한다. 담당 교역자는 후보 광고 및 초청장 배부를 통해 전도훈련 참가자들의 가족과 소그룹 구성원들이 수료예배에 참석하여 수료자들을 축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료예배 설교는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설교의 내용은 전도훈련 참가자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그들이 일상에서 전도를 생활화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담당 교역자는 훈련 시작부터 수료에 이르기까지 전도훈련의 주요 장면을 수료기념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며,²¹⁶⁾ 전도훈련 참가자 중 2명을 선발하여 수료간증문을 발표하도록 한다. 담임목사의 설교 이후 파송식을 진행하며, 전도훈련 수료자 중 대표자가 선서의 형태로 <전도헌신작정서>를 낭독하고 담임목사에게 제출할 때 나머지 훈련생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에 동참한다. 전도훈련 수료자들은 전도헌신의 결단을 담은 찬양을 선곡하여 특송을 한다.

전체 모임이 끝나면 각 코치에 의해 마지막 소그룹 활동이 진행된다(20 분). 12 주차 소그룹 활동은

216) '수료기념 영상'은 전도훈련 수료자들에게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수료예배에 참석한 가족들과 소그룹 멤버들에게 전도훈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담당 교역자는 전도훈련 시작 전부터 사진 봉사자를 섭외하여 전도훈련 전반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5분 정도의 분량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수료예배 시 상영하도록 한다.

조원들의 수료를 축하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조원들이 <전도헌신작성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코치와 부코치는 전도훈련 수료 이후 참여할 수 있는 전도사역을 소개하고, 수료자 중 다음 학기 스텝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소그룹 활동이 마치면 점심식사를 전도훈련 수료만찬으로 진행한다.

<표 51> EASGL 전도훈련 12 주차 큐시트

시 간	내 용	담당자	준비사항
9:30 ~ 10:00	교실 세팅	봉사자	프로젝트, 마이크, 명찰 등
10:00 ~ 10:10	찬양	찬양팀	PPT
10:10 ~ 10:15	대표 기도	담당 장로	
10:15 ~ 10:20	수료기념 영상	담당 교역자	프로젝트
10:20 ~ 10:30	수료자 간증	수료자 2명	수료간증문(4분 이내)
10:30 ~ 10:55	설교	담임목사	자막(본문 및 제목)
10:55 ~ 11:00	과송식: 전도헌신작성	담당 교역자	대표자 선정
11:00 ~ 11:05	특송	수료자 전원	자막(찬양 가사)
11:05 ~ 11:10	축도	담임목사	
11:10 ~ 11:30	소그룹 활동 - 전도헌신작성서 제출	조별 코치	전도헌신작성서(배부용)
11:30 ~ 12:20	수료만찬	봉사자	
12:20 ~ 12:30	뒷정리 및 마무리	봉사자	

<표 52> 전도헌신작성서 예시²¹⁷⁾

“전도헌신작성서”
<p>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 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단합니다.</p> <p>하나, 나는 매일 한 번 이상 요한복음 3:16 전도법 복음제시를 암송하겠습니다.</p> <p>하나, 나는 매일 3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p> <p>하나, 나는 매주 1회 이상 전도 현장을 지키겠습니다.</p> <p>하나, 나는 매 학기 1명 이상의 성도를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학교(EASGL 전도훈련)’에 추천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11월 26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p>

217) 제3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회 사례연구에서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이 전도의 열정이 부족하고 전도폭발훈련 수료 이후 지속적인 전도 활동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에서는 마지막 12주차 소그룹 활동에서 수료자들이 <전도헌신작성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수료 이후에도 전도훈련을 비롯한 교회의 전반적인 전도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 분석

본 연구자는 전도 지향적 소그룹 리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학교)’을 제안하였다.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소그룹 리더과 예비 리더들이 부담감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전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12 주의 일정 안에 ‘요한복음 3:16 전도법’을 습득하고 <열린 다락방>을 실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요한복음 3:16 전도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한 훈련이다. 연구자는 요한복음 3:16의 핵심 단어를 7개로 정리하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전도훈련 참가자들이 암기 하기 쉽도록 핵심 문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를 제안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매 훈련 시간마다 전체 모임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의를 듣지만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중점은 소그룹 활동과 현장 실습이다. 코치와 부코치는 4-6명의 조원들을 소그룹 모임 형태로 지도하는데, 각각 조장으로서 2-3명의 조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며, 소그룹 활동 시간 안에 복음제시가 숙달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코치와 부코치는 매주 소그룹 활동을 시작할 때 지난 주 현장 실습을 통해 조원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서로 배우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셋째,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전도현장 중심의 단계적 훈련이다. 전도훈련 참가자들은 전체 모임의 간증, 공개보고, 시범 등을 통해 전도현장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후, 현장 실습을 통해 전도자로서 성장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코치와 부코치가 관계전도와 노방전도의 시범을 먼저 보여주고(2-3주차), 그 이후 조원들이 정해진 분량의 복음제시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4-6주차), 마지막에는 조원들이 전체 복음제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7-8주차). 한편 현장 실습은 총 8회가 진행되는데 그 중 관계전도는 <열린 소그룹> 초청을 위한 개인별 관계전도를 포함하여 5회, 노방전도는 3회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단계적으로 균형 있게 숙달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복음제시 능력 향상 및 자신감 배양을 위해 8주차에 <복음제시 암기대회>를 실시한다. <복음제시 암기대회>는 전도훈련 참가자들이 요한복음 3:16 전도법 내용 중 '핵심 문장을 확장한 복음제시'를 숙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코치와 부코치는 조원들이 <복음제시 암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특화된 복음제시를 전수하고 '구호, 퍼포먼스, 영상 등'을 가미하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소그룹 전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열린 소그룹>을 진행한다(9-10주차). 담당 교역자는 전체 모임에서 강의를 통해 <열린 다락방>의 목적, 원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코치와 부코치는 소그룹 활동에서 조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소그룹>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차후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소그룹 모임 -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 등 - 에서 주도적으로 <열린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다.

여섯째,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를 전도현장에서 노방전도로 진행한다. 물론 코치와 부코치가 매주 소그룹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조원들의 복음제시 능력을 점검할 수 있고 <복음제시 암기대회>를 통해 조원들의 암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이므로 노방전도를 통한 현장 시험으로 참가자들의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일곱째,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도 현장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12주차 수료예배 및 파송식에서 대표 수료자가 선서의 형태로 <전도헌식작성서>를 낭독한 후 담임목사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전도훈련 참가자들은 소그룹 활동 시간에 <전도헌신작성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도훈련 참가자들은 수료예배 중 특송을 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전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며, 코치와 부코치는 마지막 소그룹 활동 시간에 조원들에게 교회의 전도 사역과 전도 현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소그룹 리더와 예비 리더들이 실제적으로 전도 지향적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추도록 구성되었다. 하지만 소그룹 리더와 예비 리더들이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하는 것은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위한 출발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와 담당 교역자는 소그룹 리더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교와 광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전도훈련 수료자들이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도사역과 전도현장을 개발해야 한다.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성장둔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지역교회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원리를 개발하여 소그룹을 운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실제로 소그룹은 목회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거나 성도들에게 교제와 성경공부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으로 약화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가 운영 중인 소그룹 유형들에 있어서 전도 지향적 특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한국교회의 성장둔화 현상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연구에 임하였다. 첫째, 교회의 존재 목적 중의 하나는 전도이며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도가 활성화되려면 소그룹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전도 지향적 소그룹이 지역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소그룹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셋째, 평신도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이 전도 대상자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들이 전도의 열정으로 무장하고 소그룹을 전도 지향적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자는 헤르테네스가 제시한 대로 소그룹을 “의도적이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3-12 명 정도의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며, ‘공통의 목적’ 안에 전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였다. 한편 본 연구자는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를 구약시대, 예수님의 공생애 및 초대교회시대를 배경으로 확인하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늪바의 집에 이르기까지 소그룹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소그룹의 신학적 근거를 연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기초로 한 교회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으며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소그룹을 고찰한 결과, 초대교회시대에는 소그룹으로 시작되었던 지역교회가 기독교 공인 이후 소그룹의 특성이 약화되었고, 중세교회시대에는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이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종교개혁시대에는 루터의 제 3 형태의 예배와 재세례파 운동을 통해 소그룹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근현대교회시대에는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형성된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의 전도 지향적 특성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사전 연구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본질적으로 전도 지향적이었으며, 소그룹의 역사는 교회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20 세기의 소그룹 운동과 한국교회의 소그룹 운동을 살펴보면, 20 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소그룹 운동은 대학생 선교단체에 의해 크게 발전하며 복음 전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한국교회에서의 소그룹 운동은 조용기의 구역모임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락방과 가정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문헌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교회의 전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전략적인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는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과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전도폭발, 총동원 전도 등의 다양한 전도방법이 운영되고 있고 전도의 대상과 장소에 따라 여러 유형의 전도 유형들이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제 3 장에서 교회 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4 가지 소그룹 유형인 구역,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은 모두 초대교회를 이상형으로 삼고 있으며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4 가지 소그룹 유형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구역을 운영 중인 만남의교회는 소그룹이 교제 중심으로 진행되며 봉사 위주의 전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목장을 운영 중인 신일교회는 소그룹 리더 양성과 교회적

차원의 전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소그룹 멤버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운영 중인 화평교회는 전도폭발훈련과 소그룹 전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그룹 리더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고, 다락방을 운영 중인 사랑의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이 멤버들에 대한 양육과 돌봄에 집중함으로써 전도의 열정이 약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4 가지 유형의 소그룹들은 소그룹의 초점을 전도와 재생산에 두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제와 양육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한국교회의 소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전도 지향적 특성을 많이 상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는 사전 연구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소그룹 리더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소그룹을 전도 지향적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만남의교회, 신일교회, 화평교회, 사랑의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가지 소그룹 유형 중에서 구역과 가정교회의 강점은 ‘교제’로 나타났고 목장과 다락방의 강점은 ‘양육’으로 나타난 반면에 4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전도’가 약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 참가자들은 4 가지 소그룹 유형 모두에서 ‘소그룹이 전도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가자들이 원하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그룹 멤버에 대한 양육’이었고, 대상은 ‘모든 성도’였으며, 기간은 ‘12’주를 선호하였고, 내용 중점은 ‘대상자와 관계 맺기 및 복음의 내용(교리)’이었으며, 진행 방식은 ‘소그룹 훈련’이었고, 평가 방식은 ‘현장 시험’이었다. 사실 본 연구자는 소그룹 리더와 전도에 대해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은 소그룹 멤버를 포함한 모든 성도와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교회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략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으로써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학교’ 즉 ‘Evangelism Academy for Small Group Leaders(EASGL)’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소그룹 리더 또는 예비 리더가 전도 지향적 소그룹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도대상자들의 상황을 파악한 이후 개인적으로는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제시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열린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실 수업(전체 모임과 소그룹 활동)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실 수업은 '소그룹과 전도대상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요한복음 3:16 전도법'을 5주에 걸쳐 강의하고 '열린 소그룹의 준비와 실제'를 다룬다. 소그룹 활동과 현장 실습을 위해 코치와 부코치를 배치하고 주차별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현장 실습은 참관(2회) 및 실습(6회)으로 진행한다. 한편 8주차에 <복음제시 암기대회>를 실시하며, 11주차에 노방전도를 통해 '소그룹별 현장 시험'을 진행하여 참가자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대그룹 전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대형 집회를 위주로 진행되는 전도 - 총동원 전도, 새생명축제 등 -는 결국 개인의 복음제시 능력과 소그룹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소그룹 리더와 예비 리더들은 지역교회가 진행하는 대그룹 전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교회 사례연구와 설문조사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칼넷(CAL-NET) 회원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결과는 한국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며 교회의 성장은 소그룹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적,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은 한국교회 안에서 교단과 지역을 망라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자는 사랑의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목양사역과 훈련사역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도사역 - 전도폭발훈련, 대각성전도집회, 사랑의전도단, 국내아웃리치 등 - 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역 경험은 한국교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때 다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들에게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그룹을 전도 지향적 소그룹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소그룹과 전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얻고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전도 지향적인

소그룹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미래의 추가적인 연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유형을 4 가지로 한정하였는데 차후의 연구는 그 밖의 소그룹 유형 - 순, 속회, G-12, D-12 등 - 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교회 사례연구를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4 개 교회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차후의 연구는 전국을 망라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의 사례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로 한정되었는데 차후의 연구는 일반 성도들의 필요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차후의 연구에서는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에서 소그룹 활동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코치와 부코치의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차후의 연구에서는 소그룹 리더와 예비 리더들이 'EASGL 전도훈련 프로그램' 수료 이후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도사역 및 전도현장 개발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미래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소그룹과 전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전도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전도사역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교회 성장을 기대하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하나의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서 (한글)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에 대한 설문 문항

(해당 문항에 O 해 주세요.)

인구사회학적 질문

1. 현재 교회 내에서의 당신의 직분은?

- ① 담임목사 ② 부교역자 ③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④ 서리집사 ⑤ 일반 성도

2. 나이:

- ① 39 세 이하 ② 40-49 세 ③ 50-59 세 ④ 60-69 세 ⑤ 70 세 이상

3. 성별:

- ① 남 ② 여

4. 신앙경력은 몇 년이나 되었나?

- ① 5 년 이하 ② 6-10 년 ③ 11-15 년 ④ 16-20 년 ⑤ 21 년 이상

5. 현재 당신이 소속된 교회의 규모는?

- ① 100 명 이하 ② 101-300 명 ③ 301-500 명 ④ 501-1,000 명 ⑤ 1,001-10,000 명 ⑥ 10,001 명 이상

6. 당신은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 ① 있다 ② 없다

7. 전도훈련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았는가?

- ① 지역교회 ② 노회 또는 총회 ③ 선교단체 ④ 전문기관 ⑤ 기타_____

소그룹 유형과 특성에 대한 질문

8. 당신의 교회의 소그룹 유형은 무엇인가?

- ① 구역 ② 목장 ③ 가정교회 ④ 다락방

9. 다음 중 당신의 교회의 소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 ① 예배 ② 교제 ③ 양육 ④ 봉사 ⑤ 전도

10. 다음 중 당신의 교회의 소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 ① 예배 ② 교제 ③ 양육 ④ 봉사 ⑤ 전도

11. 당신은 교회의 소그룹이 전도지향적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12. 현재 당신의 교회에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이 있는가?

- ① 있다 ② 없다

13. 현재 당신의 교회에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이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① 1-3 개월 ② 4-6 개월 ③ 6 개월-1 년 ④ 1 년-1 년 6 개월 ⑤ 2 년 이상

14. 현재 당신의 교회에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이 있다면, 전도훈련도 포함되어 있는가?

- ① 있다 ② 없다

15. 현재 당신의 교회에 있는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 중 전도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면,

훈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① 1-2 주 ② 3-4 주 ③ 5-8 주 ④ 9-12 주 ⑤ 13 주 이상

16. 현재 당신의 교회에 있는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 중 전도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면,

훈련내용은 무엇인가?

- ① 브릿지 전도법 ② 사영리 전도법 ③ 전도폭발 복음제시 ④ 기타_____

17. 당신은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18. 당신의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위한 특성화된 전도훈련을 실시한다면, 어떤 유익을 기대하는가?

- ① 개인의 영성 강화 ② 소그룹의 성장과 배가 ③ 전도하는 교회 분위기 형성
④ 전체 출석인원의 증가 ⑤ 기타_____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질문

19.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 ① 능숙한 개인전도자 배출 ② 소그룹 멤버에 대한 양육 ③ 소그룹의 수적 성장
④ 전교회적 전도사역 스텝 배출 ⑤ 기타_____

20.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

- ① 모든 성도 ② 예비 리더 ③ 리더 ④ 엘더 ⑤ 기타_____

21.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

- ① 4주 ② 8주 ③ 10주 ④ 12주 ⑤ 16주

22.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중 중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 ① 대상자와 관계 맺기 ② 복음의 내용(교리) ③ 이단 및 타종교에 대한 이해
④ 열린 소그룹 인도법 ⑤ 기타_____

23.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으로 무엇이 적당한가?

- ① 일대일 훈련 ② 소그룹 훈련(나눔) ③ 대그룹 훈련(강의)
④ 현장실습 훈련 ⑤ 기타_____

24. 소그룹 리더를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방식으로 무엇이 적당한가?

- ① 필기 시험 ② 구두 시험 ③ 현장 시험 ④ 소그룹별 암송시험 ⑤ 기타_____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강사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가정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8.
- 강정원. 「뻔한 소그룹 Fun하게 디자인하라!」.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 곽명옥. 「나는 전한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 교회성장연구소 편집부. 「소그룹 리더 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_____. 「불신자들이 호감가는 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 김덕수. 「소그룹과 셀사역, 그리고 셀 교회로의 전환」. 경기: 킹덤박스, 2011.
- 김명호. 「균형 잡힌 소그룹 지도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 김병원. 「기독교 지도자론」.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4.
-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서울: 포이에마, 2012.
- 나겸일. 「전도집중교회로 만들라」. 서울: 규장, 2001.
- 나일선. 「한국교회 선교단체, 선교훈련원 및 선교사 일람」. 서울: 도서출판 바실래, 1989.
- 민경진.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박용철. 「셀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4.
- 박용규. 「부흥의 현장을 가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 _____.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안산: 큰숲, 2009.
- _____. 「초대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6.
- _____.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 박철현. 「출애굽기 산책」. 서울: 도서출판 목양, 2011.

- 배창돈. 「열매 맺는 순장」.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_____. 「아름다운 이름, 순장」.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 _____. 「권세 있는 공동체, 교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_____. 「존귀한 공동체, 교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사랑의교회. 「개척 10년-사랑의교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_____. 「사랑의교회 건축이야기 G'STORY」.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 서요한.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 심창섭. 「근현대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5.
- 양용의.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0.
- 양창삼. 「21 세기가 원하는 크리스천 리더」.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4.
- 오정현. 「잠들지 않는 사역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_____. 「제자훈련 열정 40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유상섭. 「분석 사도행전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 유태엽. 「마가복음 해석과 적용」.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2.
- 윤철원. 「누가복음서 다시 읽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7.
-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0.
- 이권희. 「목사님, 제자훈련이 정말 행복해요」.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6.
- 이명희. 「전도학 개론」. 서울: 보이즈사, 1999.
- _____. 「현대전도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하기서원), 2013.
- 이상대. 「그 교회를 찾다」. 서울: 마음지기, 2016.
- 임도건. 「근대.현대 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정삼지. 「정착양육과정(DNA) 지도자 세미나」. 서울: 제자교회출판부, 2008.
- 정우홍. 「마태복음 강해(상)」.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9.
- 조병수. 「사도행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조용기. 「희망목회 45년-구역 소그룹 부흥 이야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주상지. 「교회사역자들을 위한 리더십 개발의 12 가지 열쇠」. 서울: 서로사랑, 2000.
-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 _____.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5.
- _____. 「건강한 소그룹 목회 컨설팅」.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 _____. 「제자훈련 이후의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6.
- _____.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15.
-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7.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_____.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한국장로교출판사 편.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전도프로그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 Althaus, Paul.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 Andy, Stanley 외.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중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 Autrey, C.E. 「기본 전도학」, 정진항 역(서울: 침례회출판사, 1976)
- Brown, Rindsay. 「역사를 바꾼 복음주의 학생운동 이야기」. 김종호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 Bruce, F. F. 「사도행전(하)」. 김재영, 장동민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 _____. 「요한복음」. 서문강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3.
- Coleman, Robert.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Comiskey, Joel. 「지투엘브 이야기」. 정진우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 _____.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Cragg, Gerald G. and Viddler, Alec. 「근현대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Donahue, Bill and Robinson, Russ.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Donahue, Bill.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 가지 실수」.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 _____.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Edwards, Jonathan.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백금산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 Finnell, David.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Firebaugh, Jay. 「교회성장의 엑셀레이터」. 김진기 역. 서울: 미니스트리 디렉, 2011.
- Foster, Robert D. 「불타는 세계 비전」. 조성동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2.
- Gonzalez, Justo L. 「초대교회사」.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12.
- _____. 「현대교회사」.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12.
- Graham, Billy. 「전도자의 선언문」. 김준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 Icenogle, Gareth W.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출판부, 2007.
- John, Maxwell C. 「리더십 불변의 법칙」. 홍성화 역. 서울: 비즈니스 북스, 2010.
- Jones, Martyn L. 「진정한 기독교」. 전의우 역.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사람, 2008.
- Kennedy, James. 「전도폭발」. 김만풍 역. 서울: 은광문화사, 2005.
- Kostenberger, Andreas J. 「요한복음」. 신지철, 전광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 Meeks, Wayne A. 「바울의 목회와 도시 사회」. 황화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Neighbour, Ralph W.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 Ridderbos, Herman N. 「마태복음(하)」.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0.
- Swindoll, Charles R. 「사도행전」. 이종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역. 경기: 도서출판 NCD, 1999.
- Stein, Robert H. 「마가복음」.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 Stockstill, Larry. 「셀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박광진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8.
- Stott, John R. W. 「살아 있는 교회」. 신현기 역. 서울: IVP, 2009.
- _____. 「존 스토티의 복음 전도」. 김성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1.
- _____.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8.

Terry, John.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Towns, Elmer L. and Anderson, Neil T. 「부흥의 혁명」. 홍용표, 서성식 역. 서울: 한국왜그녀교회성장연구소, 2000.

Turner, David. 「마태복음」.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Viola, Frank. 「1세기 관계적 교회」. 박영은 역. 서울: 미션월드, 2007.

Watson, David. 「복음 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2. 정기간행물

김건주. “본질이라 생각하면 한 우물만을 파야 한다 - 창원 한빛교회”. 「디사이플」. 2005년 12월, 30-5.

_____. “실패를 딛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 산본무지개교회”. 「디사이플」. 2005년 10월, 24-9.

_____. “본질을 선택하는 것이 목회의 정석이다 - 춘천시온교회”. 「디사이플」. 2008년 2월, 32-40.

김명호. “제자훈련을 통한 재생산 역량강화”. 「디사이플」. 2011년 9월, 6-11.

_____. “새로운 영적 각성과 전도집회 모델을 제시하다”. 「디사이플」. 2007년 2월, 4-7.

김익겸. “성도들의 영적 대각성에 관심을 기울이다”. 「디사이플」. 2006년 5월, 56-7.

_____. “한 영혼이 결신할 때까지 축제는 계속 된다”. 「디사이플」. 2006년 4월, 54-5.

_____. “변화된 제자들이 영혼구원을 책임진다”. 「디사이플」. 2006년 1월, 56-7.

_____.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의 야성을 일깨우다”. 「디사이플」. 2007년 4월, 66-7.

_____. “복음 선포에 집중하는 새생명축제”. 「디사이플」. 2007년 7/8월, 68-9.

김종원. “제자훈련과 전도훈련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디사이플」. 2012년 10월, 14-7.

김종포. “전도훈련, 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디사이플」. 2008년 12월, 12-5.

김창근. “제자훈련 중에 영혼의 소중함을 무장시켜라”. 「디사이플」. 2011년 9월, 12-5.

김철수. “전도의 현장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라”. 「디사이플」. 2012년 10월, 18-21.

_____. “제자는 전파사역자로 부름 받았다”. 「디사이플」. 2013년 10월, 18-21.

류환석. “일품승부를 꿈꾸다 - 송내사랑의교회”. 「디사이플」. 2012년 12월, 38-45.

- _____. “행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 천안장로교회”. 「디사이플」. 2013년 5월, 34-41.
- 박주성. “메마른 신도시 틈바구니에 꽃핀 생명력 있는 교회 - 수지사랑의교회”. 「디사이플」. 2011년 4월, 30-9.
- 박순종. “목회적 필요보다 목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 청주 꿈이있는교회”. 「디사이플」. 2011년 10월, 28-37.
- _____.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 화평교회”. 「디사이플」. 2009년 12월, 24-33.
- _____. “변화의 열매를 맺는 제자훈련이 되려면 - 신일교회”. 「디사이플」. 2008년 3월, 34-43.
- _____.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든다 - 전주사랑의교회”. 「디사이플」. 2010년 9월, 30-8.
- _____. “성숙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디사이플」. 2010년 9월, 22-8.
- 박희석. “훈련된 평신도가 증인이 되어 전도한다”. 「디사이플」. 2005년 10월, 50-1.
- 방민경. “대각성전도집회, 복음전도의 본질을 회복시키다 - 전주사랑의교회”. 「디사이플」. 2008년 4월, 58-9.
- _____. “비신자를 위한 눈높이 새생명축제”. 「디사이플」. 2007년 12월, 66-7.
- 배창돈.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 「디사이플」. 2010년 12월, 4-7.
- _____. “전도 빠진 제자훈련은 반쪽 제자훈련”. 「디사이플」. 2013년 10월, 6-9.
- _____. “제자가 제자를 낳게 하라”. 「디사이플」. 2012년 9월, 6-9.
- 손현보. “전도, 혼자 하지 말고 지혜를 자서 함께 전하라”. 「디사이플」. 2010년 9월, 40-3.
- 송정현. “멈출 수 없는 제자훈련의 생명력”. 「디사이플」. 2004년 6월, 18-21.
- 안소영. “전도, 긴장감의 끈을 붙잡아라”. 「디사이플」. 2010년 12월, 20-1.
- _____. “교회 특성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한다 - 신일교회”. 「디사이플」. 2006년 2월, 52-3.
- _____. “자기 몸에 맞는 대각성 전도집회 만들기”. 「디사이플」. 2006년 10월, 74-5.
- 양승언. “5 가지 변화의 법칙 - 강남교회”. 「디사이플」. 2004년 5월, 18-23.
- _____. “교회를 향한 고민과 사랑, 영향력 있는 군사를 만들게 하라 - 평택대광교회”. 「디사이플」. 2006년 5월, 24-31.
- 왕재권. “제자훈련에서 전도집회로 이어지는 사이클”. 「디사이플」. 2013년 10월, 22-5.
- 우은진. “불신자에게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을 드려요 - 화평교회”. 「디사이플」. 2005년 12월, 64-5.
- 이권희. “제자훈련 중 ‘전도하는 제자’를 강조하라”. 「디사이플」. 2013년 10월, 14-7.

- _____. “대각성전도집회, 교회 차원의 전도시스템을 마련하라”. 「디사이플」. 2011년 9월, 20-3.
- _____.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목회와 신학」. 2017년 7월, 108-111.
- _____.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훈련공동체”. 「교회성장」. 2017년 6월, 20-8.
- 이상화. “셀 이해를 위한 소그룹 사역 조망”.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42-50.
- 장관익. “훈련 이후, 전도로 이어가자”. 「디사이플」. 2011년 9월, 16-9.
- _____. “전도훈련하지 않는 제자훈련, 본질을 잃게 된다”. 「디사이플」. 2010년 12월, 12-5.
- 조현용. “세상에서 증인이 되라는 말, 계속 듣게 하라”. 「디사이플」. 2013년 10월, 10-3.
- _____. “전도하는 교회로 시스템 구축하라”. 「디사이플」. 2010년 12월, 16-9.
- _____. “성도에게는 ‘대각성’, 태신자에게는 ‘새생명’을”. 「디사이플」. 2010년 12월, 4-7.
- 진기현. “전도하는 지도자 밑에 전도하는 제자가 나온다”. 「디사이플」. 2010년 12월, 8-11.
- 한태수. “제자들의 최대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 「디사이플」. 2012년 9월, 10-3.

3. 주석류

- 박수암. 「신약주석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백예철. 「요한복음(하)」.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Brueggemann, Walter.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창세기」.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Calvin, John. 「칼빈성경주석-고린도전서」.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원, 1999.
- _____. 「칼빈성경주석-창세기 1」.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원, 1999.
- _____. 「칼빈주석: 사도행전, 신윤수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 Durham, John I. 「WBC 성경주석-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 Fretheim, Trencé E.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출애굽기」.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 Hays, Richard B.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고린도전서」. 유승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 Macdonald, William. 「신자성경주석-골로새서/데살로니가서」. 조성훈, 김대영 역. 고양: 전도출판사, 1999.
- Martin, Ralph. P.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에베소서/골로새서/빌레몬서」. 김춘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Nolland, John. 「WBC 성경주석-누가복음」, 김경진 역. 서울: 솔로몬, 2003.
- O'Brien, Peter T. 「WBC 성경주석-골로새서/빌레몬서」.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8.
- Osborne, Grant. 「적용을 도와주는 빌립보서/골로새서/빌레몬서」. 진광규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Throntveit, Mark A.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에스라/느헤미야」.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Willimon, William. H.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사도행전」. 박선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4. 미간행물

- 김동현. “NCD 전도 소그룹 운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07.
- 김영권. “전통교회에서 셀 교회로의 전환에 따른 전도 소그룹 활성화 방안: 영도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 김영태. “소그룹 목회 시스템을 통한 교회성장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
- 남춘섭.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회전도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4.
- 노명환. “재생산을 위한 소그룹 강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0.
- 박성화. “구역 지도자 양성을 통한 역동적 교회 만들기: 유곡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 여동현. “에베소서에서의 목회와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4.
- 옥인준. “개혁주의적 소그룹 운동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8.
- 왕은숙.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목회 활성화 방안: 서울씨티교회 청년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그리스도대학교, 2015.
- 유양욱. “전통적 교회에서 CELL을 중심으로 한 교회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2.

- 이근철. “전도폭발훈련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 이영희. “소그룹(구역) 강화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청북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 이재형. “관계훈련을 통한 전도특공대의 활성화 방안: 약수교회를 중심으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 정성영. “지역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9.
- 제성경. “효과적인 리더재생산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2.
- 조기동. “전도시스템 비교와 적용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8.
- 조흥래. “한국교회 구역운영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8.
- 진광석. “자연적 교회성장 원리를 통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3.
- 채종성. “한국교회 소그룹목회 유형 분석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3.
- 최기열. “소그룹 사역의 유형별 비교분석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7.
- 최원영. “셀 교회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2007.

5. 온라인 자료

- 교갱뉴스.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만남의교회”[온라인 자료]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85>. 2019년 9월 24일 접속.
- 만남의교회. “교회 소개 - 교회 비전”[온라인 자료] <https://www.mannamchurch.org/front/F010200>.
 2019년 12월 21일 접속.
- _____. “목요나눔 (무료)카페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 오픈”[온라인 자료]
<https://www.mannamchurch.org/board/F050800/3/144?page=1>. 2019년 12월 20일 접속.
- _____. “정평수 원로목사 인사말”[온라인 자료] <https://www.mannamchurch.org/front/F010301>.
 2019년 9월 24일 접속.
- 신일교회. “담임목사 인사말”[온라인 자료]
http://www.shinilch.com/hboard5/bbs/board.php?bo_table=board_15&wr_id=1. 2019년 10월 3일 접속.

한국기독교학생회. “IFES 소개”[온라인 자료] <http://www.onivf.com/info>. 2017년 12월 5일 접속.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라이언 콜먼과의 대화”[온라인 자료]
http://www.smallgroup.co.kr/board/list.php?page=3&code=old_data. 2018년 2월 24일 접속.

화평교회. “교회 소개”[온라인 자료] <http://www.hwapyung21.org/default/aa/sub1.php>. 2019년 10월 3일 접속.

6. 기타 자료

사랑의교회. <2019 평신도훈련 수료 및 파송헌신예배 학사보고>, 2019.

_____. <대각성전도집회 통계자료>, 2018.

신일교회. <70인 전도대 매뉴얼>, 2018.

_____. <2018 전도 세미나>, 2018.

화평교회. <2016 가정교회 지도자모임 진행계획>, 2016.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December 5, 2017

Myung Chul Chang

IRB Exemption 3040.1205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vangelism Training Program for Evangelistic Small Group Leaders

Dear Myung Chul Chang,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 (2) Research involving the use of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unless:
 - (i)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in such a manner that human subjects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and
 - (ii) any disclosure of the human subjects' responses outside the research could reasonably place the subjects at risk of criminal or civil liability or be damaging to the subjects' financial standing, employability, or reput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The Graduate School